

여름의 트랙에서...

2004/05/04

귀를 간지럽히는 온갖 벌레 소리들,
초록 수풀 사이를 나풀 거리는 별박이세줄나비와 노랑나비,
쥐똥나무 잔가지 사이를 후루룩 후루룩 나르는 박새 날개짓 소리,
배추흰나비 애벌레 나뭇잎 갉아먹는 소리.
아작 아작 풀무치 씹어 삼키는 사마귀 소리,
두눈박이 쌍살벌 퐁퐁 묶어놓고 너무 기분이 좋아 왕거미 줄 통기는소리,

지익 지익 늦털매미 울음소리,
귀뚜라미, 여치 날개 비비는소리,
진딧물 궁둥이 단물 받아 삼키는 개미 목에서 나는 소리,
고추잠자리 암수 성기 비비는 소리,
하루살이 숨 넘어가는소리,
작업실 유리창에 머리 박고 떨어지는 오목눈이 두개골 부서지는소리,
열나게 전리품 실어 나르는 일개미 발자국 소리,
소나무아래 몰락한 개미왕국,
사지팔린 개미들의 비명소리.
장수하늘소 참나무 갉아먹는소리,
네점박이 노린제가 바늘같은 주둥이를
보라금풍뎡이 갑옷 사이 겨더랑이 속에 깊이 박고
쭈욱 쭈욱 채액 빨아먹는 소리.
두더지 삽질하는 소리와 그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지렁이 가쁜숨소리.....

2002년 여름, 따가운 폐약별 아래 나의 트랙은 이렇게
살아있는 모든것들의 치열한 삶의 에너지로 가득하다.

제1회 부일 미술대상 수상소감

2004/05/12

안녕하십니까? 안창홍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먼 길을 오신 타 지역 여러분들께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사실 작년 11월 말경 수상 소식을 전화로 전해듣고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당황스럽기도 하였습니다. 학연과 지연이 실타래처럼 얽혀 또 다른권력과 정치의 썩은냄새를 풍기는 우리의 미술계를 생각 한다면 저로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평소 저의 사고방식이나 작업의 내용들 속에 권위주의와 제도권에 대한 저항과 냉소를 많이 담아 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겨운 선택을 하여주신 심사위원들께 새삼 감사드립니다.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전국 규모의 미술상이 부산에서 제정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 입니다. 사실,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올곧은 정신으로 묵묵히 작업에만 전념하는 작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회 수상자로 저를 선정해 주신 뜻에 송구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앞으로도 많은 작가들에게 지속적인 격려의 장이 되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세기 동안 진보적인 미술은, 넘쳐나는 저질 문화와 융통성 없는 보수성과 권위주의로 무장한 사회와의 불화 속에서 소외 된 채 파경을 맞거나 힘겹게 지탱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황금 만능의 요즈음의 세태속에서는 아무리 정신적 가치가 뛰어난 미술 일지라도 경제성이 없을때는 가차없이 제거되고, 살아 남기 위해서는 권력과 종교, 그리고 돈의 유혹앞에 머리를 조아린 채 싸구려 웃음을 팔아야 하는 위기에 놓이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하고 달콤한 유혹이 가장 자유로워야 할 정신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혹과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그 자유정신을 위한 댓가를 치를 각오 또한 하여야 합니다. 세상이 혼탁하면 혼탁 할수록 예술가의 정신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깨어 있는 자유정신의 산물인 예술이야말로 인간과 인간이 인간답게 만나는 소통의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 합니다.

2001.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이른 새벽 창가에서

2004/05/14

어슴프레한 새벽빛이 창 앞에 있다.
창문을 여니 아직 잠에 취한 거리가
부드러운 빛속에 쌓여 고요롭다.
불을 켜고 책상앞에 앉아 어제 그리다만
그림의 배경문제를 생각한다.
편안히 잠들어 있을 아이들 얼굴과 마누라 얼굴이 떠오른다.
창밖을 본다.제각거리는 시계소리,토닥거리는 빗소리.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책꽂이에 잘 정돈된 책들.
고요하고 푸른 거리.
모든것들이 새삼스레 눈앞으로 닥아온다.
지금쯤 신문이 왔을까?
다시 어제 그리다만 그림의 배경문제가 떠오른다.
어떻게 처리할까?
갑자기 멀리서 확성기 소리가 들린다.
예비군 비상소집을 알리는 소리같다.
큰놈이 일어나 잠들겐 목소리로 "아버지 뭐하노" 한다.
세상의 모든것들이 조금씩 잠에서 깨어나 꿈지락 거린다.
마누라 목소리, 방문 여닫는 소리.
아직 둘째놈은 조용하다.곧 깨어나 공부하는 큰놈을 괴롭힐 것이다.
달덩이같이 희고 둥근 얼굴로 쿵쿵쿵 마루를 뛰어 건너
내 품으로 날아 들것이다.그리곤 "아빠 일찍 일어났네"라고
할 것이다. 멀리 두부장수 짤랑거리는 종소리,자동차 소리,

창밖은 이제 아침이다.
어느새 어제같은 일상으로 돌아와 있다.
다시 어제 밤에 지나왔던 골목길을 되돌아 나가
마치 꺼꾸로 돌리는 영사기 처럼
오늘이, 어제같은 오늘이 시작 될 것이다.
달라지는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제 그리다만 그림의 배경일 것이다.

1985.6.2 아침.

군산 영화동의 밤 2004/05/16

꼬불꼬불 산길을 돌아
해질녘에 군산에 도착 하였다.
오는길 차창밖으로 아무 쓸모없는 작고
늙은 산들이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
그 산비탈에 스러질듯 허기진 집들.
그 속에 주름투성이 삶에 지친
얼굴들이 떠 올라 황급히 눈을 뜨면
저 멀리 피빛 노을이
외로운 여행자의 가슴 가득히 고여든다.
서울을 떠나 오랜시간을 달려온
군산은 양놈 꼬시는 술집 네온들이
어둠 속에서 병든 창녀의 허벅지 처럼
창백하고 슬프게 빛난다.
군산 텍사스 영화동의 1991년
2월 24일의 밤 9시는 너무 쓸쓸하다.
나도 한잔 취하여 양공주 품에나 안겨볼까 싶다
빨간 고추전구와 작은방 가득한
싸구려 향수냄새.
병들고 지쳤어도 따뜻한 채운의 살갗
루즈냄새 그리고 지친음부.
통속적이고 슬픈 과거 이야기.
그리고 포근하고 긴 잠.
화살같이 빠르고 덧없는
우리들의 삶 속에
도덕, 윤리 따위의 음산한 낱말들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허깨비같은 그림따위가 나의 삶에

무슨 의미를 준단 말인가?
밤 하늘에 파랗게 얼어붙은 별들과
창백한 네온 불빛이 무어 다르게 있단 말인가?
그속에 지친 음부 하나를 밑천으로 살아가는
양갈보와 내가 뭐 다르게 있단 말인가?

1991.2.24.

"....." 2004/05/17

폼나고 당당한 것들보다 가벼운것, 하찮은것,유치한것,
천박한것,통속적이고 별볼일 없는것,
은폐되고 금기시된 것들이 오히려 제각기
질은 향기를 풍기며 나의 감각을 유혹한다.
할수만 있다면 나비처럼 가볍게 어디든지 날아가 이 모든것들 위에
내려 앉을 수 있는 의식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
보이는것의 뒷면, 감추고 싶은것의 안쪽, 바른것속의 뒤틀림,
하찮은것 속의 고귀함, 천한것속의 당당함 등등....
격조있고 세련된 문화에 길들여진 눈으로 볼수없는 정말 살아있는
소중한 것들이 도처에 얼마나 많이 방치되고 버려져 있는지.
설령 악취 풍기고 추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외면 할 후 없는 우리 삶의
한 부분 아닌가!

1994.4월

우리들의 삶처럼, 2004/05/19

그림은 목적이 아니고 과정이다.
그림은 도달할 목적지가 아니고
어디론가 뻗혀진 길이다.
우리들은 수없이 많은 갈래의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고 아무리 험겁고 가혹한 현실과
맞닥드려져도 피하거나 우회해서는 안된다.
거침없이 앞을 향해 발을 내 디더야 한다. 끝없이 펼쳐진 삶의 여정
그 길위에 찍히는 무수한 발자욱들, 고뇌와 상처로 얼룩진
발자욱들, 그것이 바로 굴복하지 않는 정신의 산물인
그림인 것이다. 삶이그림이고 그림이 곧 삶이다.
그림과 삶은 분리될 수 없다.

아름답고 완전한 그림을 원한다면 그것은,
 그 아름다움을 위해 몸을 던지는 일에서 부터 비로소 가능해 진다.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이러한 진실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얼마나 고갈되어 있는가?
 외롭고, 힘들고, 설령 세상으로부터 보상에 대한 아무런 기대조차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구속 받지않은 정신적 자유 그 자체 만으로도 우
 리는 이미 보상을 받은것은 아닌지? 우리의 현실속에 댓가없는 행운이 어디에 있
 든가?)
 단지 그 이유때문에 애써 견뎌온 상처 투성이의 자존심마저 버리고
 편하고 폭신한 유혹의 길로 건너 뛴다면
 설령 화가로서의 세속적인 존경과 명예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치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그 치욕적인 싸구려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것을 위해 헌신한다. 화가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마치 국가 검정고시 치루듯, 헛된 시간과 아까운 정열을
 비지니스에 바치고 어딘가를 향하여 머리 조아린채 충성한다.
 잘 훈련된, 말 잘듣는 양순한 개처럼, 안전하게 쳐진
 울타리 안쪽에서 제주 부린댕가로 던져주는
 고기로 배를 채우고, 기름기 도는 털을 붉은 햇바닥으로 핥으며
 만족해 한다. 우리는 이 치욕스러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우리 일에 대한 믿음과 신념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투명한 삶을 위하여 단호함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인습과 규칙으로 부터 더욱
 자유로워져야 한다.
 그림은 도덕이 아니다. 그림은 정해진 일정한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림은 삶의 자유롭고 다양한 향기다.
 갈등이고, 고뇌이고, 사랑이다.
 무개성적이고 권력과 부에 편향되어 있는 역사를
 향한 개인의 도전이다.
 비정상적이든, 비도덕적이든, 광기로 가득하든
 나는 관계치 않는다. 그이유는 다양하고 거침없는 의식의 표출들이
 결국엔, 우리들의 삶을 깨우쳐 주는 역할을 충실히 담당할것을
 믿고있기 때문이다.

1995.2.17.작업실에서.

작업단상 (1)

2004/05/24

왜곡, 굴절, 야유, 가벼움, 신성불가침, 사악함, 치사함, 비겁함, 쾌감, 쾌락, 자율적 생명력, 재앙, 예감, 암시, 놀라움, 망막, 반역, 고독, 가슴저림, 유효성, 태폐, 저항, 어둠, 욕망, 성욕, 자위행위, 음모, 불구. 공포, 절규, 현기증, 신경 체계- 중추신경 - 혈관 - 혈액 - 경락 - 우주 이미지 + 육체, 별, 별자리, 별뿔별.

2001.2

작업단상 (2)

2004/05/24

눈감기기 = 일탈

- 환각
- 은밀한 상상
- 잠
- 망막의 저편
- 어둠
- 죽음
- 우주
- 초월
- 부유하는 영혼

2001.2

종일 비가 온다.

2004/05/28

어제 밤부터 내린 비가
오늘도 진종일 참 많이도 온다.
이렇게 굶은 날은
손에 들고있든 붓 팽개치고
창 앞 편한 의자에 앉아
되도록이면 복잡한 상념들은 접어두고
비오는 밤을
춥점없이 바라보며
죽음기엔 문주란의 "초우" 틀어놓고
막걸리 한 잔에 된장 짙은 마늘쫑 한 입 베어 물고
외로움을 즐기던지 아니면
이 악다물고 외로움과 맞짱 뜨는 게 최선이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울의 늪에서
아예 헤어나질 못할테니까.

얼마전 채氏 나비농장에서,
 제비나비 종류의 애벌레들이 좋아 한다는 황벽나무 어린놈을
 한그루 얻어다 마당 한켠에 심어놨는데
 돌아나는 잎들 군데군데
 언제 낳고 갓는지 제비나비의 알이 가득 하였다.
 그리곤 며칠후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들이
 갓 돌아난 보드라운 잎들 마다 달라붙어
 왕성한 먹성으로 열심히들 갹아먹고 있었는데
 이놈들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더니 나중엔
 큰놈은 어른 새끼손가락 세마디 만큼이나 되었다.
 성충이 된 나비를 상상하며 살오른 놈들의 모양을
 바라보는 마음이 즐겁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아직 뿌리도 채 내리지 못하였을
 어린 나무가 죽지나 않을까 하고 걱정도 되었는데
 나중엔 나비 불 욕심에 너무 심각하게 이문제를 생각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곤 한 동안을 바쁘게 보내다가 생각이 나서 살펴 보니
 잎들은 간데 없고 앙상한 줄기마다 메달린
 크다란 애벌레들의 움직이는 모양새가
 굼주림에 지친듯 사뭇 심각해 보였다.
 나의 생각짧은 욕심때문에
 나무는 나무대로, 애벌레는 애벌레대로,
 둘다 죽게 생겼으니 큰 낭패를 당한것이다.
 사실은 처음 나비 알을 발견했을때 부터
 이런 사태를 짐작 했건만
 설마하는,편한 생각이 낭패를 불러 들인 것이다.
 생각끝에 애벌레라도 살려야겠다 싶어 채氏에게 전화를 걸고
 사정 이야기를 하였더니 애벌레를 가지러 오겠다.
 반쪽의 구원 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어
 애써 마음을 달래며 기다렸는데 이틀후
 채氏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늙은 해결사의 모습으로
 쏟아지는 비를 헤치며 황벽나무 세그루를 실은 트럭을 타고
 아내와 함께 나타났다.
 트럭에서 내려선 채氏는 나와 함께 황벽나무를 내리고,
 그의 아내는 애벌레들을
 능숙하고 조심 스러운 손길로 미리 준비해온
 약간의 먹이가 들어있고 작은 구멍들이 뚫려있는
 투명한 플라스틱 통 속에 넣었다.
 그리곤 차 한잔을 하는등 마는등 고맙다는 말을 전할

겨울도 없이 두 사람은 다음 목적지를 향하여
쏟아지는 빗속으로 다시
트럭과 함께 황급히 사라졌다.
즐거운 마음으로 비를 맞으며
두그루의 황벽나무를 심고,
한 그루는
이 나무를 구하고 싶어했던
월산리 김氏에게 건네 줄 심산으로
남겨 두었다.

못다 핀 꽃 한송이(2)

2004/05/29

며칠동안 내린비로
모처럼의 맑은 햇살과 초록빛이 더욱 눈부시다.
월산리 김氏에게 나무를 전해 주곤
어제 심어놓은 나무들이 기력을 회복 했는지
상태를 이리저리 살피는데
홀로 낙오되어 먹이찾아 헤메인듯 애벌레 한마리가
젖은 맨 땅위에 지친듯 엎드려 있다.
조심스레 애벌레를 잎위에 올려 놓고는
잠시후 정신을 차린듯 잎위에서 꼬물거리는
모양을 바라보다가 문득 건너편에 서 있는
맨 가지만 남은 불쌍한 황벽나무를 쳐다 보며
아무리 굶주렸어도 애벌레 한마리가 이 나무 마저 저렇게
불상하게 만들진 않겠지 하고 잠시 불안한 생각도 하였다.
한참동안 작업실에 박혀 있다가 허리 펴로 나간김에
이놈이 잘있나 싶어 살펴보니 새들이 물고 갇는지
제비나비 애벌레가 보이질 않는다.
가지마다 잎들마다 꿈꿈이 살펴 보아도 보이질 않는다.
혹시 바닥에 떨어졌나 싶어 땅에다
코를 박는듯 살펴보아도
끝내
보이질
않는다.

창밖에 보이는,

2004/05/30

자작나무 가지 사이로
작은 새 한마리가 후르륵.

이 굵은 빗줄기를 헤치고서
먹이 찾아 왔을까?
님 그리워 나왔을까?
적 .막 .한 . 山 .川 .에
비가 참 많이도 온다.

산 그림자를 바라보며. 2004/06/12

어제는 더위에 지친 나무들이 미동도 않고 서 있더니
오늘은 종일 온몸을 흔들며 바람의 애무를 즐긴다.
공기가 어찌나 맑고 투명한지 앞산에 만개한 밤꽃의
미세한 흔들림까지 산들바람에 실려온
비릿한 꽃향기와 함께 눈에 가득 들어온다.
며칠을 작업실에 박혀있다가
모처럼 한가로이 나무 그늘에 앉으니
아무 생각없이 편안하다.
저멀리 앞산에 일렁이는 신록의 잎들과
길게 산그림자를 남기는 저녁햇살을 바라보며
누구에게서 이든 전화라도 한통
걸러 왔으면 하는 생각을 잠시 해 본다.
종일 말문을 닫고 지낸지라 목안이 칼칼 하다.

작품 "49인의 명상"을 끝내고.... 2004/06/16

약 한달 반 가량을 매달려 있던 52점의 작품을 오늘 아침, 마무리 까지 끝을 내었다.(사진
위의 페인팅 작업까지 계산 한다면 해를 훌쩍 넘긴 길고 지루한 과정의 작업이었다
가슴과 손으로 그려 내는 그림이 아니고 아이디어와 재료에서 오는 효과가 한몫을 하는 작
업이라 제작기간 내내 여러가지 일들로 스트레스의 연속이었다. 일테면 내가 일일이 지켜서
서 간섭할 수 없는 일들, 사진 현상만 하더라도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고 패넬 위에 사진
배접 문제, 강철 프레임 주문, 특히 미세한 온도의 차이와 습기에도 변하는 에폭시 종류의
화학적 반응에서 작업을 위한 인원 동원 문제까지, 아무리 큰 스케일의 작업도 내게 익숙한
自家發電的 작업의 방식으로 해결해 온 지금까지와는 너무나 다른 형태의 일들과 부닥치면
서그 동안 내가 느껴왔던 작업의 의미와 제작 과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
회가 되었다. 밀도높은 手작업으로 오로지 자신과의 싸움만으로 창작물을 생산해 내던 생산
자가 유행따라 간다고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대량 생산의 체제로 전환하려고 한
것이니 우리가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물론, 이번 작업이 표현 방식의 확
장과 시각적 효과의 면에서는 매우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는 작업의 내용과
성과 또한 훌륭하다. 그리고 처음 만져보는 재료에 대한 호기심과 효과에 대한 기대치, 協
業 과정의 인간적 유대 관계, 거기다 시스템 운용의 묘까지, 이 새로운 작업 방식의 모든

것들이 조금 힘들긴 했지만 또다른 매력으로 나를 사로 잡은 것이 사실이다.) 어쨌든 이 생소한 과정을 겪으면서도 작업은 별 탈없이 마무리된 것 같아 안도의 숨을 쉰다. 이 안도의 숨 뒤에는 도움을 준 사람들이 많다. 특히, 재료의 소중한 노하우를 제공해주신 조각가 김 선생이 고맙고 이 무더위 속에서 힘든 노동일을 마다않고 도와준 몇몇 제자들, 까탈스런 나의 주문을 잘 해결해준 김사장과, 배氏의 마음 씀씀이가 고맙다. 이번 작업의 과정을 겪으면서 느낀 점 중 하나는 작품은 역시, 잔머리와 테크닉으로 人力과 기계를 부리며 재료가 주는 효과의 일률적 느낌이 작업의 비중을 차지하는 대량 생산되는 작품보다는 가슴의 진동과 체온이 담긴 손 끝으로 오랜 시간을 비비고 매만지면서 생산해 내는 것이라야 그 속에서 더욱 짙은 감동이 배어난다는 평소 나의 지론이 새삼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내가 너무 보수적이고 진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요즈음의 미술관은 그런 작품을 찾아 보기가 어렵고 질적 밀도와 스케일보다는 양적 스케일에만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가 없다. 오히려 그런 방식을 부추기는 느낌의 대형 미술제나 비엔날레의 전시 스타일과 형식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은 유행의 결과물이 아니지 않는가!

X 氏에게. 2004/06/16

- .떨리는 대로 살되 진실할 것.
- .인정받으려 애쓰지 말 것.
- .현실적 보호막 혹은 울타리를 건어낼 것.
- .자신에게 정직할 것.
- .자신에게 엄격할 것.
- .오만할 것.
- .외로움, 짝어지고 다닐 것.
- .미술사적 유행에 둔감할 것.
- .화폭 앞에서 잔머리 굴리지 말 것.~산이면 넘고 강이면 건너리~
- .지식에 너무 의존 하지 말 것.
- .کم플렉스와 맞짱 뜯 것, 그리고 노력으로 극복할 것.
 - 피해가던지 덮어두면 결함이지만 극복을 위한 노력
 - 그 자체가 이미 강력한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다. -
- .그럴듯한 낱말들로 자신의 작업을 합리화 하지 말 것.
- .원하는 그림을 위해서라면 악마 하고라도 악수할 것.

지나간 몇몇 자살사건에 대한 小考. 2004/06/17

자신의 부끄러움을 들추어낸 세상에 대한 원망과 양갓음으로 죽진 말자. 불명예는 부끄럽지 않고 손상된 자존심만 견딜 수 없어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 급으로 키워낸 이 사회의 정신적 도덕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정 죽고 싶다면 명예를 위해서 죽어라! 정 죽고 싶다면 진심어린 뉘우침과 속죄의 뜻으로 죽어라! 설령, 그런 생각이 든다면 살아서 죄

값을 치러라!

테러에 대한 小考. 2004/06/17

우리에게 왜 테러 문화가 없는가? 죄값을 위한 응징의 문화가 왜 없는가? 법과 권력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애써 외면하는 꼴들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백주대로를 활개치는 뻔뻔스럽고 파렴치한, 용서받지 못할 자들을 응징하는 테러 문화가 왜 없는가? 하다못해 사람 많은 곳에 끓어 앉혀놓고 악취나는 대갈통에다 꿀밤이라도 몇 대 쥐어박는 소극적인 린치라도 왜 가하지 못하는가? 우리 사회는 왜, 청량제처럼 신선한 그런 영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小考. 2004/06/17

만약에 그런 세계가 死후에 존재 한다면
그곳으로 향한 두 개의 문은
선을 행한 자와 악을 행한 자의 구분으로 결정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걸어온 삶 속에서 행한 일들의
신념과 용기의 측도로 선택되어 질 것이다.

사랑에 대하여. 2004/06/18

그것은 가시 많은 선인장을 삼킨 채
입안 가득히 핫초코를 머금고 있는 것과 같다.

외로움에 대하여. 2004/06/18

그 고통은 마치,
캄캄하고 작은 철함속에 몸을 구겨 넣고
견고한 자물통을 채워둔 것 같은 느낌이다.

화가는 창녀인가? 2004/06/24

모처럼의 서울 나들이.
어리둥절해질 정도로
혜화동이 변해 있었다.
전시장들을 둘러 보고 그 곳에서
오래만에 만난 몇몇 지인들과
술잔을 기울였다.

근데 기분이 좇같았다.
거리엔 습기찬 무더위 속에서도
넘쳐나는 사람들.
입에 풀칠하러 이라크에 갔다가 납치,
초췌한 물골로
난 살고싶단 말을
서툰 영어로 목 터지게 외치다가
그제께 밤에 참수된
불쌍한 청년이 살았던
아! 대한 민국,
아!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 ,
아! 활기 넘치는 우리의 서울 ,
여전히 좇같은 기분.
화가는 창녀인가?
전시 기획자는 포주인가?
우연히 들린 한 전시관에선
정말 기분이 좇같았다.
초대받은 작가들은
기획자의 지시(?)대로
안면많은 작품들을 들고 나왔고
기획자 컨셉의 부속물로
마치 실내 인테리어를 위한
소품들 처럼
더 넓은 공간에
띄엄 띄엄, 폼나게(?)
충실히 제 자리를 지키며
바닥에 놓이거나 매어 달리거나,
벽지처럼 벽에 달라붙은 채
손님 맛이를 하고 있었는데
전시내용과 기획 의도를
논리적으로 아무리 잘 설명해 댔어도
내 눈엔 유행의 겉 멋에 잔뜩 물든
철없는 아이의 쇼 윈도우 같은 느낌이었다.
수준 높은(?) 공간 해석 때문에
오히려 관객과 작품들과의 대화를 위한 접근을
방해받는 느낌이었다.
몇 안되는 작품들이었지만,
한 두 작품 빼 놓고는
이미 오래 전에 눈에 익은
작품들이었기 때문에
난 애써 새로운 무엇인가를 발견해 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허사였다.
(과연 나의 무식함 때문만일까?)
정말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인지 알 수 없었다.
밀도없이 그냥
텅 비워 놓기만 한 것 같은 공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다.
양질의 작품을 생산해 내는
작가들 대다수가
창작에 대한 열정만으로
외로움과 궁핍을 견디면서
작업에 전념하고 있음을
알고나 있는지.
발표할 장소를 마련하지 못해
절망하고 있음을 알거나 하는지.
내가 울화통이 터져서
폰수갈고 뜬금없이,
화가들의 구차한 삶 이야길 주절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을 수도 있는
이 전시에 탄지를 거는 이유는 ,
잘 만들어진 아까운 공간과
기획을 위해 헤프게 쓰인 예산과
풍족한 뒷풀이를 위해 쓰인 돈이 모두
우리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라는것 때문이다.
그런 소중한 예산으로
일을 기획하고 추진 할 때는
매우 신중한 자세로
충분한 토론과 검토의 과정을 거치는
제대로된 전시를 치뤄내기 위한
노력의 흔적과 겸손함이
조금이라도 엿보여야 함이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는가?
우리 현실에서
불러주기만 해도 감격해 하며
젖싸게 달려 갈 수밖에 없는
목마른 화가들을
포주가 창녀 부리듯 해서야 되겠는가?
작가가 기획자의
퍼즐 조각이 되어 움직이는,
오직, 기획만 존재하는

전시가 어디 하나 둘이던가?
화가 나는 것 중 또 하나는
미술관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해야할
말빨 좋은 사람들 다수가 이런 일엔
꿀 먹은 병어리처럼
침묵한다는 것이다.
왜일까?
왜 침묵하는 것일까?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

컴퓨터에 대하여 2004/07/07

요즈음은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컴퓨터 끄는 방법을 몰라서 콘센트에 연결된 전기선을 뽑아놓곤 했었는데....허기야 내가 운전 한다는 말을 처음 주위 사람들에게 했을 때 사람들은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나 말 방귀 끼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 떨떠름한 표정들을 지으며 나를 쳐다보았었다. 그만큼 주위 사람들에게 비친 나의 모습은 기계와는 거리가 먼 메카니즘을 싫어하는 자연주의자 혹은 반문명주의자로 인식되어 있었다. 나 자신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핸들을 잡고 운전 에 조금 익숙해지자 겁없이 속력을 내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폭주족처럼 전국의 도로를 포장, 비포장 가리지 않고 뺑뺑 달리면서 3년만에 약 17만km를 계기판에다 기록하였다. 그땐 "길 없는 길 이라면 더욱 좋다!"라는 자동차 광고 선전 문구가 너무 좋았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컴퓨터도 마찬가지. 흥미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주위 사람들에게 처음 했을 때 나의 게으름과 컴퓨터 실력을 아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관리가 어려울테니 그만두라고 만류하였다. 속으론 걱정도 되었지만 하다 힘들면 문 닫아버릴 심산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거의 매일 흥미 속에 들어와 본다. 작업노트에 일기를 쓰듯 사뭇 심각하게 나의 생각들을 올리기도 하고 간혹 방명록에 올라오는 진지하고 느낌이 좋은 글들을 통해 말아보는 사람의 향기, 아니면 사람들과 시시껄렁한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시간을 죽이는 방식이 지금까지 나에게 익숙한 힘들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견뎌온 삶의 방식보다 훨씬 안전하고 덜 힘들다는 생각이 컴퓨터 앞으로 자꾸만 나를 유혹하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언뜻 언뜻 모니터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전자파의 냉기가 언젠가는 내 심장의 박동도 차갑게 멈춰버리게 하고 말 것이라는 불안한 생각이 동시에 떠오른다. 치유될 수도 망각해서도 안될 본질적 외로움과 그리움, 피하면 피 할수록 이것에 대한 상처의 고통만 더욱 커질 것이라는 생각 또한 떨쳐 버릴 수가 없다.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즐거움, 그래서 차라리 인간적인 오너 드라이브의 즐거움과는 전혀 다른 차가움고 비정한 함정이 컴퓨터 본체의 어둠 속에 내장 되어 있다는 것을 난 알고 있다. 그래도 나는 이 달콤한 악마의 유혹을 당분간 즐길 것이다.

난, 내가 두렵다. 2004/07/12

이틀째 작업실에서
새벽을 맞는다.
퍼붓는 빗 속에서도 새벽은
어둠을 밀어내고
창 앞까지 다가와 있다.
요란한 빗소리 때문에
밤새도록
배를 타고 넓은 바다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더니
창 밖에 보이는
잎이 무성한 물푸레나무가
"안창홍!
여기는 너의 작업실이란다.
떠내려 가지 않고
제자리에 있으니 안심하거라."
하고 나에게 말하는 듯하다.
13년전
마을 앞산에 산책 갔다가
이름도 모르고서
손가락굵기의 절반가량되는
가느다란 놉을 뽑아다
작업실 창 앞에 심어 놓곤
한동안을 잊고 살았는데
무책임한 나의 무심함에
열받았었는지
저 혼자 너무 열심히 자라서
잎이 하늘을 가릴 정도로
무성해 진 것이다.
요즈음은
작업실에서 보내는
많은 시간들에 비해
생산되어 나오는
작업의 양이
너무 적다.
사실 투자된 시간과
작업의 양이
꼭 정비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은 편치가 않다.
2주전에 마무리한
꽤 많은 양의 작품들로
스스로를
위로해 보기도 하지만
마음이 불편함 은
매한가지다.
평생을
긴장의 사슬로
몸을 묶어두고서
홀로 시간을 운용하고
다스리며 살아야 하는
직업이다보니
가장 경계해야할
무서운 적이
개으름과 자기 변명이다.
자꾸만 구실을 만들고
편해질려고 하다보면
자기 합리화의 함정에 빠져서
평소 지킬려고 애썼던
작가로서의
바른 자세를 외면하게 되고
나중엔 오히려
올바른 삶의 방식을
싫어하거나
아예 무시하게 될 것이
뻔한 이치이다.
나는 내가
그렇게 될까 너무 두렵다.
난,
그러한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아왔고
또 그런 사람들이
현실적 환경 속에서는
능숙한 비즈니스와
정치적 역량으로
화가로서의 명성과 신분을
더욱 공고히 하며
아무런 하자없이
편안하고 윤택하게

너무나 잘들 살고 있고
현실도 오히려
그들의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같은
의구심마저 들 때가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타자들의 시선 속엔
나도 그들 쪽에 속해 있거나
무의식 속에선
그들 쪽으로 결눈질하며
군침흘리고 있는 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나는 더욱 두렵다.
간혹은
그 두려움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으려는 듯이
느껴지는 내가
너무
두
려
운
것
이
다.

기분 좋은날 ! 2004/07/28

손이 풀렸는지
오늘은 쓰윽쓰윽 잘도 그려진다.
거울을 보니 그 속에
들어앉은 내 꼴이
영락없는 각설이 이다.
얼굴이며 배며 팔뚝이며,
안경테며 팬티까지 알록 달록.
물감이 묻지않은 곳이 없다.
손바닥만한 그림을 그려도
꼭 티를 내는 것이다.
그래서 작업을 시작할 때는
아무리 작은 것을 그려도
작업복으로 갈아 입던지
출지않은 계절일땐
팬티차림으로 시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한번은 동네 목욕탕에서
얼굴에 로션 바르려고
거울 앞에 폼 잡고 섰다가
팬티앞 부분에 묻어있는
제법 많은 양의 빨간색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 적도 있다.
손에 묻은 물감이
볼 일 볼 때마다 옮겨 묻은 것이다.
흰색 바탕에 연한 무늬가
연속으로 그려진 팬티였는데,
하얀팬티 앞부분에 묻어있는 선홍빛이라...
마치 남자가 웬 생리?! 하는듯이
흠칫흠칫 결눈질하는
낯선 사람들에게
일일이 설명해 줄 수도 없는 일이라
혼자서 난감해하며 순간적으로
얼굴까지 화끈거리며 죽을 맛이였다.
내 급한 성격을 스스로 아는지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붓이며,
물감 닦을 걸레며,
파렛트 대용으로 쓸 접시까지
여러 개를 손 잘 닫는 곳에 준비해 두는데
작업에 속도가 붙고
삼매경에 빠져들면
준비해둔 것들은 생각나지 않고
손바닥이며 무릎까지
붓닿는 걸레나
파렛트 대용으로
사용할 때가 종종 있다.
급한 성격이 작업할 때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물감통들도 다른 색들이 뒤섞여
낭비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작업이 끝난 후
뒤섞인 물감들을 걷어내며
버려지는 물감이 아까워서
혼자서 툭툭덜 때가 많다.
그런들 어떠랴!
작업만 잘 풀려준다면.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기분이 너무 좋은 날이다.

꽃 노 래 까 지 흥 얼 흥 얼
정

말

기

분

이

째

지

게

조

타.

맑은 아침 햇살처럼..... 2004/07/28

밀려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눈까풀을 간지럽히는 바람에
어쩔수없이 일어나 앉는다.
여명이 오는 것을 보고
다락방에 올라왔는데...
내 작업실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찾아오는 곳이
다락방이다.
떠오르는 햇님의 시선과
다락방 창문의 눈높이가
수평을 이룰땐
동남쪽 방향으로
가로로 길다랗게 뚫려있는
창문 속으로 깊숙히
밀려 들어오는 햇살 때문에
게으름과 민망함을 동시에 견디며

버티고 누워있기가 쉽지 않다.
서쪽 창문 앞 물푸레나무 가지에 앉아
재잘대는 부지런한 새 소리라도 들리는 날은
더욱 그렇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다.
잠이 좀 모자란듯 하지만
밤새워 그린 그림이 잘 풀려준 덕분에
기분은 상쾌하다.
오늘 아침은 서쪽 창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해서 더욱 좋다.
웬지, 오늘은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버릴듯
벌써부터 마음이 바쁘다.
모처럼 맛보는 아침 햇살과
쾌청한 하늘처럼
오늘 내가 할 작업도
잘 풀려나갔으면 좋겠다.

내가 왜 몰랐을까? 2004/07/30

이 나이 되도록
내가 왜 몰랐을까?
작업을 통해서 얻는
성취감과 희열은
제작 과정 속에서
늘 맛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업이 끝나고 난 뒤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늘 그래왔든것 처럼
또 다른 시작을 위하여
바닥에 흩어진 붓들을
허리굽혀
다시 쫓아 모아야
하는 사실을.

붓을 잡고
화폭앞에

마주
섰을때 부터
붓을
놓는 순간까지,
천길
낭떠러지의
두려움과
구천을
떠도는
영혼처럼,
외로움을 견디며
자신과
싸워야한다는 사실.

그 싸움이
아무리 힘에 겨워도
꼭 이겨내야만
한다는것을
확연히 깨닫기 까지
걸린 시간이 너무 길었다.

내가 취한 방법이 과연 최선택이었을까? 2004/08/14

새벽공기가 너무 좋아서 마당 단풍나무아래 서 있다가 말벌들의 무차별적 기습에 혼쭐이 났다. 어찌나 아프든지 추격해오는 말벌들을 쫓을 생각으로 양쪽팔을 휘저으며 벗겨진 슬리퍼를 다시 신을 겨를도 없이 걸음아 날 살려라하고 쩍싸게 도망을 쳤다. 그모양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 방에 들어가 툭툭거리며 여기저기 약을 바르고 통통부어 오르는 자국들을 바라보다 울화통이 터졌다. 핫김에 살충제를 손에들고 결전을 치를자세로 긴팔옷에 모자까지 눌러 써고서 염탐꾼처럼 사알살 단풍나무쪽으로 닥아가 벌집의 위치를 살피는데 제법 큰지막이 메어달린 벌집주위를 애워싸고 있는 흥분한듯이 느껴지는 수십마리의 말벌들이 몇해전에 땅벌들에게 쏘여 곤욕을 치룬기억들과 겹쳐져서 더욱 공포스럽게 눈에 들어왔다. 벌집의 위치가 사람다니는 길목인지라 그냥 뒀다간 누구든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날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일을 어떡하나? 짧은순간이긴 하지만 고민에 쌓였다. 핫김에 살충제를 들고 나오긴 했지만 막상 거사(?)를 치를려고하니 망서려지는 것이다. 아무리 미물들이라지만 살아있는것들을 , 그것도 대량학살을 자행해야할 위치에 서서 마음에 작은 동요라도 없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 이 아니겠는가? 약간의 심리적 혼란을 겪고있는 순간 나를 발견한 말벌 한놈이 빠른 속력으로 돌진 해왔다. 잇따라 돌격 부대들의 일사 분란한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말벌들의 면전을 향해 나의 손에서도 하얀 살충제가 뿜어져 나왔다. 내 느낌엔 나의 행동이 OK목장의 결투에서 케리쿠퍼가 뿜아든 권총보다 더 빨랐든것 같으다. 흐트르짐없는 자세와 정확한 조준. 본능적인 위기 대응능력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다. 내가 바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방위군 출신 아닌가 ! 평화롭든 초록정원이 아비규환의 장으로 변하고 마무리되는 시간은 불과 몇초 밖에 걸리지않는 짧은 순간이었다. 지구촌의 여기저기서 일어나고있는 현대戰의 양상이 이곳 선바위 마을에서도 일어나고 만 것이다. 살생의 현장에는 매캐한 화약냄새 대신에 TV 광고에서처럼 만기좋은 살충제의 향기만 가득하고 땅에 떨어진 시체들은 풀잎에 가려 잘 보이지도 않았다. 초록빛도 그대로 였다. 작은 말벌왕국의 몰락이 나의 정원에 미칠수 있는 영향은 아무것도 없었든 것이다. 환각처럼 스쳐가버린 참혹한 이 사건이 인간 세상사의 일들과 너무 닮아있어 모골이 송연해지는 느낌이었다. 전리품인 토실토실한 애벌레들로 꽂찬 벌집을 나무에서 떼어내어 덩불속으로 던져버리고 돌아서면서내가 취한 해결 방법이 과연 최선책이었을까? 하고 자신에게 잠시 질문은 해보지만 평소의 나 답지않게 모호하고 어정쩡한 자세로 어떤 결론으로든 접근해 볼려는 작은 노력도 없이 내 자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양심의 바깥쪽 아무곳으로든 짐을 슬쩍 떠넘겨 버리려는 유치한 수작을 부려 보는 것이다. 아무리 하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일일 지라도 경우에 따라선 매우 신중한 선택으로 행동해야할 일이 있는것이다.

부산 비엔날레의 개막식을 다녀오다. 2004/08/24

제목: 마흔 아홉사람들의 명상 (부분).

크기: 가로 78cm x 세로 112cm 뚝깨7cm(40점)

재료: 패넬위에 사진+아크릴릭+애폭시+강철 프레임과 모조나비.

작품 진열방식의 설명: 위쪽 첫번째 사진처럼 미술관 3층 통로 중앙에 만들어진 가로 10m 세로 8m의 4면의 벽으로 이루어진 바깥쪽으로 바닥에서 90cm높이에 비스듬히 놓이게 만들어진 선반위에 작품들이 놓여져 있다. 작품 전체의 규모와 작품당 25kg이 넘는 무게 때문에 주최 측에서 상당한 고심끝에 결정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나름으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평소 내가 계획한 전시 방식과는 상당히 달라진 방법 이지만 환경적 장애를 이해하고 또 하나의 가능성을 실험해본다는 쪽으로 마음을 위로 하였다.

작품 설명

(비엔날레 측과의 미팅때 내가 구술한것을 토대로 적어놓은 글을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일단 옮겨 적는다.)

작가는 우연한 기회에 문을 닫는 동네 사진관에서 수백장에 이르는 증명 사진 필름을 입수한 바 있다. 그는 증명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의 뜬 눈을 감기고, 사진표면에 상처를 입히는 등의 틈을 시각화한 표현을 가미 함으로써 2004년 부산 비엔날레의 주제에 대한 작가 나름대로의 해석을 시도한다. 모든 초상들의 감은 눈은 존재와 부재의 사이, 그 틈에 대한 암시이자 그 자체이기도 하다. 그가 수집한 증명 사진속의 인물들은 언젠가 그 곳에서 살았던 특징인 입에 분명 하지만 몇 십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존재는 빛바랜 사진 속에서만 "박제된 과거"로 남아 있다. 이러한 "정지된 시간" 이야말로 이 작가가 시각적으로 표현 하고자한 "틈"의 하나인 것이다.

가을에게... 2004/08/28

어젯밤엔 개울물에 비친 달 그림자가 애를 끓이더니
새벽엔 밤새 잠 못 이룬 귀뚜라미의 울음소리가 내 속을 또 할킨다.
한동안 전시 준비 때문에 이곳 저곳을 오가며 정신 없이 보낸 사이
에 허락도 없이 작업실 앞 물푸레나무 아래까지 가을이 다가와 있다.
지금은 차라리 새벽잠을 설치게 하던 매미소리와 개구리들의 합창이
그립다.

알 사람은 다 알 것이다. 가을이 얼마나 건디기 힘든 계절인가를!
그저께 아침엔 특별한 일이 있었다. 평소처럼 샤워를 끝내고 마른 수건
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오는데 방안 탁자 앞에 웬 사람이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라 안경을 찾아서 끼고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오래 전에 한 두
번 본 적이 있는 후배의 친구였다.

표정이 너무 우울하고 피곤해 보여서 사전 허락없이 내 집을 침입?한
데 대한 화도 내지 못 한 채 의자를 권하고 편히 앉게 하였다.

표정에서 전해져 오는 느낌만으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지만, 어색
한 침묵이 싫어서 잠시 뜸을 들이다가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말없이 담배연기만 뿜어내던 행동을 멈추고 지친 목소리로
"외로움이 너무 힘들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고 말했다.

앞뒤없이 뱉어낸 말이긴 했지만 그 말속에 숨겨진 고통이 나에게도 전
해져 왔다. 순간, 나는 무언가 위로의 말이라도 해야겠기에 잠시 생각
을 하다가 나의 방식이 부질없음을 깨닫곤 그 생각을 접고 말았다.
이럴 경우엔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냥 마주 보고 앉아 있어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도 알
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홀로 버텨내는 것이라
는 것을 이미 나는 오래 전부터 알고있는 터였다.

따뜻한 차라도 한잔 대접할 마음으로 부엌에서 가스 렌지에 물을 켜고
물을 올려놓고 나와 보니 그 사람은 오간데 없고
빈 의자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황급히 밖을 보니 차는 이미 대문 바깥쪽에 쫘무니만 조금 보이다가 쥐
똥나무 울타리 사이로 사라지고 빗방울이 맺힌 사각 유리 틀 속엔 젖
은 자작나무와 습기 찬 아침 공기만 가득 하였다.

"그래! 차라리 혼자서 소리내어 우는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탁자 위에 놓인 식어버린 코코아 잔을 바
라보며 한참 동안을 멍 하니 앉아 있었다.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랬을까! 그럴 땐 자신을 잘 아는 사람보단 어렴풋
이 안면만 조금 있는 내가 훨씬 도움이 될 꺼라는 생각, 난 충분히 이
해 할 수 있었다. 다른 이로부터 위로 받을 수 없다면 차라리 낯선 어

색함이 훨씬 도움이 될 꺼라는.....

숙명의 족쇄처럼 발목을 놓아주지 않는 이 천형의 외로움이 가을이 되면 더욱 옥죄여온다는 사실을 경험해 본 사람은 다 알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가을이 두렵다. 기다려지면서도 두려운 것이다.

그 품이 그립다. 2004/08/28

전시 핑계로 몇 날 몇 밤을 지새며 얼마나 술을 퍼부어 댔는지, 피로에 절은 몸이 너무 힘이 들어 오늘은 종일을 작업실에 앉아 있다. 11월의 개인전도 마음에 걸렸지만 몸과 마음이 불안하고 편치 않을 때 작업실은 어김없이 주는 나무처럼 나에게 평안을 안겨다 준다.

오늘따라 작업실의 편안함이 어릴 적 할머니의 품같다.

무명 저고리 옷고름 사이에 얼굴을 묻으면 약간 비릿한 냄새와 숨 쉴 때마다 천식으로 그르렁대는 소리가 어김없이 코와 귀로 전해져 왔는데, 난 그 냄새와 그 소리의 느낌이 좋았다.이부자리 속에서는 늘 할머니의 쪼그라든 젖무덤을 만지작거리면서 잠들곤 했다.

내가 속옷 사이로 손을 넣을 때마다 할머니는 귀찮아서

"아가 와 이라노"

하시면서도 늘 한 쪽 젖을 내어 주곤 하셨다. 간혹 잠결에 할머니의 한 숨쉬인 푸념과 기침 소리를 들을 땐 조금 불안 하기도 했지만 품 속은 늘 변함없이 편안하고 따뜻하였다.

학교 갔다오면 빈 병이나 못쓰는 양은 그릇과 바꾼 엿을 밀가루 독에 물어뒀다가 꺼내주곤 하셨는데, 엿을 먹느라고 입가에 묻은 하얀 밀가루를 사포같은 손바닥으로 쓰윽 스윽 닦아주시며,

"야아 야! 천천히 목거레이 니엿, 아무도 안 뺏떨어 목는다"

하시며 웃으시던 할머니. 그 웃음과 웃음 주위로 깊게 패인 주름살이 그립다.

한번은 시장 다녀오신 할머니께서 뭘 잃어 버리셨는지 시장 바구니를 이리저리 뒤지시며 뭔가를 한참 찾으셨다. 철이 들고 난 뒤 부턴 그 기억을 떠올릴 때 마다 가슴속에서 싸아하고 바람이 인다.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때의 대구는 내륙이라 운송수단이 발달한 요즈음과 달리 해산물을 산 채로 보기가 무척이나 힘들었을 것이다. 시장 보러 가신 할머니께서 그곳에서는 보기도문 해삼이란 놈을 보시곤 손자에게 먹이고 싶은 맘이 간절하셨을 것이고 해삼 한 마리를 사서는 무명 손수건에 감싸 손에 쥐고서 장 보시느라 한참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 오셨다. 그런데 무명 손수건을 펴니 그 속의 해삼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놀란 할머니께서는 애꿎은 시장 바구니를 몇 번이고 이리 저리 뒤져 보시고 무명 손수건도 앞뒤를 몇 번이나 살피시더니,

"참 알궂은 일도 다 있제! 손수건에 싸서 볼끈 쥐고 있던 게 어디로 갔을꼬"

하면서 못내 아쉬워하시는 거였다. 대청마루에 걸터앉아서도

"우리 홍이 먹일라꼬 산건데.."

를 혼잣말로 몇 번이나 되뇌이셨다.

그 때에는 낙담하시는 할머니와는 달리 어린 나는 그 사건에 별 관심도 없었고 이해하지도 못 했지만 몇 년이 지난 후 철이 들 무렵 자연스레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있었다. 해삼이 할머니의 손에서 사라진 이유는 너무나 간단했다. 싱싱하지 못한 해삼이 한여름의 기온과 할머니의 체온에 녹아 무명 손수건에 약간의 흔적만 남긴 채 흡수되어 버리고 만 것이었다.

얼마 후 복잡한 가족사로 할머니와는 이별을 하였다.

할머니의 그리움을 묻어둔 채 흐르는 시간에 밀리어 난 중학생이 되었고 임종 소식도 먼 산 메아리처럼 돌고 돌아 몇 년이 지난 후에야 희미하게 내 귀에까지 들려왔다.

마지막 순간에도 나를 찾으셨고 나 오면 주라고 꼬깃꼬깃 지폐 몇 장을 그 지겨운 무명 손수건에 싸서 남기셨다는 소식을 누구에게선가 어렵듯이 전해 들곤 서러워 눈물을 흘렸었다.

이렇듯 내 유년의 추억은 늘 외할머니와 함께 겹쳐져 있다. 나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할머니의 마른 가슴이 유년의 기억을 더듬을 때마다 애뜻한 사연들과 같이 떠 오르며, 사무치는 그리움 속으로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이다. 오늘은 종일을 작업실에서 빈둥거리며 편한 의자에 기대 앉아 할머니 생각에 젖어있다.

안창홍이 안창홍의 그림을 수집하다. 2004/08/31

이른 봄 어느 미술품 수집가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되팔기 위해 내어 놓은 소장품들 중에서 작품 네 점을 구입하였다. 작품들은 모두 91년에서 95년 사이에 제작된 나의 작품들이다. 수집 점의 소장품 목록 속에 섞여있는 나의 작품을 발견하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이 돈 아쉬워 팔아먹은 자식 보는 것 같은 미안함과 도로 가져오고 싶은 욕심이 마음속에서 동시에 일었다. 일찍부터 화가이기만을 고집한 삶인지라 그림을 내다 팔지 않으면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 그림을 소홀히 그릴 수 없고, 좋은 그림이 남아있을 리가 없으니, 늘 허기진 것처럼 시집보낸 자식같이, 떠나보낸 그림 보고 싶은 간절함을 마음속에 묻어 두고 살아왔다. 그래서 간혹은 형편 단는 대로 내 그림을 다시 사 모으기도 하는데 이번에 구입한 그림들은 특히 포기 할 수 없는 그림들이었다. 만만찮은 가격이었지만 흥정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자 무리해서 살 수 밖에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어렵사리 마련한 돈을 건네주고 그림을 인수받는 과정이 너무 즐거워서 나는 입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 방안 벽에 걸어 놓고는 며칠간을 그림만 쳐다보며 살았다. 수집한 작품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풀잎사랑.1992.89.4x130.3cm

청춘-죽음의 유혹은 꽃으로부터.1992.102x82cm

장미빛 인생.1991.82 x112cm

패션 쇼 인상.1995.130.3x89.3cm

나의 작업 속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에로티즘과 죽음, 욕망, 관능, 현실에 대한 비판적 냉소 따위의 것들이 이때의 그림 속에도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이 작품들 제작 과정에서도 회화가 지닌 상징과 표현의 가능성에 대한 실험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내가 이 작품을 제작하던 시절은 갈등과 대립의 시대였다. 민주화 운동뿐만 아니라 미술관 또한 이념의 첨예한 대립으로 서로에게 이빨을 드러낸 채 상처내기에 바쁜 시절이었다. 그 때 내가 속해 있던 민중 미술은 내가 보기에 순수하고 열정으로 뭉쳐져 있긴 했지만 표현양식과 내용이 경직되어 있었다. 그런데 오히려 표현 양식과 내용의 동일성이 초록 제복의 일사 분란함처럼 결속을 더욱 강화시켜 주는 느낌이었고 나는 그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그들은 미술로서의 질보다는 운동 자체에만 관심이 있는듯했다. 오히려 내 그림의 내용과 양식이 문제시 되었고 난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 후 그들의 일부는 나를 무시하려 애썼고, 나 또한 그들의 무시를 무시했다. 나는 나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운동 덕분에 사회적 입지와 해계모니를 거머쥔 작가들의 정신과 그림들이 지금 어떻게 변해 있는지를 보라! 나의 빛깔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 이지 않은가? 이번 봄에 사들인 그림들은 그 시절 그림들 중 일부이다. 나는 늘 나의 예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노력해 왔으며 새로운 창조를 위한 에너지의 재충전은 화가로서 정직하게 살아온 지난 삶의 바탕 위에서만이 가능하다는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림은, 2004/09/04

그림은, 가슴으로 그리는것이다.
손가락과 머리로 그리는것이 아니다.
요즈음 눈에 띄는 그림들속에서는
잔피와 잔머리굴린 흔적만 발견될뿐,
감동이 없다.
너무 메말라 있다.
이것이 새로운 스타일이라면 할말이 없다.
하지만,
아무리 시대가 바쁘게 변한다해도
그리기의 노동을 힘겨워 하고,
정신마저 속도에 휘둘러서는 않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나는 오늘 아까운 시간을 투자하여
검뻘듯이 무례하게 치룬 전시하나를 보고 왔다.
자신의 작업을 남에게 내어 보이는것을
너무 쉽게 생각 하는것 같아 실망스러웠다.
그것보다 더 고약한 것은
항상 그와 가깝게 지내는 동료들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다.

잘못된 정신과 전시를 보고도
싫은 소리와 충고를 피하는것뿐만 아니라
애매한 미소들 띠어줌으로써
작가가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태도는 매우 비겁한 이기심의 발로이다.
망가져가는 정신과 그림을 보면서
은밀한 희열을 느끼는것일까?
자기편 감싸주기의 태도일까?
아니면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 하기 때문일까?
오프닝 뒤편 풀이하는 자리에서
전시에 불만을 품고 공개적인 논쟁을
요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행동이
비록, 취기로 인한 시비였다 하더라도
솔직한 감정의 표현만은
품잡고 옅은 미소로 앉아있는 이들 보다
내눈엔 차라리 아름다워 보였다
동료는 비즈니스 상대가 아니다.
올바른 길로 끌어주고 끌려가면서
평생을 같이 하는것이다.
작업실로 돌아오는길 내내
전시관람을 위해 투자한 시간이
너무 아깝고 후회스러워서
기분이 쫓잡았다.
그러면서도,
혹시, 내눈이 잘 못된 것은 아닐까?
설익은 눈의 어슬픈 평가로
좋은 전시를
함부로 폄하하고 있는것은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고 진지하게
내 눈에대한 의구심을 가져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골똘히 생각을 해 보아도
나의 판단이 옳다고 느껴졌다.

나는 왜, 2004/09/12

왜 나는,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는, 나를 놓아주지 못하는 것일까?

며칠째, 2004/09/18

나는 지금 앓고있다. 어제밤도 고열로 잠을 설쳤다.
낮에도 신열로 인한 환각 증상으로 몽롱한 취기에 묻혀 있다.
아픔이 고통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썸통이다 싶기도 하다.
그동안 오만하고 방자한 나에게 함부로 취급당한 나의 몸이
나에게 화가 난 것이니 누굴 원망하겠는가?
작업이나 열심히 하다 이지경이 됐으면 동정이나 받겠지만
누구에게 업살조차 떨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버렸다.
간혹 이렇게 나 자신을 막다른 벼랑끝까지 몰아붙이고야 마는
내가,
두렵고 지겹다. 그런다고 허기진 영혼이 채워지는 것도 아니건만
나를 놓아주지 못하는 내가 정말 힘겹다.
더욱 두려운 것은 나의 절망적인 긍정론이다.
일테면 며칠째의 폭음으로 인해 몸과 속이 만신창이가 된 다음날이면
그동안 유쾌하게 즐겼으니 이 정도의 고통쯤은 당연히 감당해야 한다
며 나 스스로 후회와 반성의 문을 일찌감치 차단해 버리는, 대안없는
순응적 긍정론.
얼핏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기 변명을 위한 패배주의 적 사고방식.
오랜 세월동안 나 자신을 괴롭히고 혹사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변질된
교활한 핑계,
처음에는 무리한 작업후의 피로를 달래기 위한 위로의 방편으로 "땀가
없는 삶이었다"는 말을 되뇌이기 시작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본 의도가 변질되어 나를 망가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내 맘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심각한 문제는 나의 이 무대보적 생활이 개선되지 않는데 있는 것이다.
간혹 찾아오는 이런 병상의 고통이 나를 자기 반성의 자세로 끌고 가긴
하지만, 건강이 회복되면서 나는 거의 본능적으로
황량하기 그지없는 처음의 그자리로 다시 되돌아 가고 마는 것이다.

왜 나는 나와 화해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는 화난 나를 달래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는 내가 화난 책임의 모든것을 나에게 돌리는 것일까?
이 지겨운 나와와 싸움이 언제 썸이면 끝이 날까?
나의 정신이 정상적이거나 한 것일까?

지금도 나는 앓고 있는 나에게 끝없이 시비를 건다.
이치에 맞지도 않은 잡다한 생각들로 이렇게 나를 괴롭혀서
신열로 들떠있는 나를 화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힘겨웠든 시간은 지나가고, 2004/09/21

며칠을 앓은 것일까? 마당에 내려서니 무성하든 초록 풀들이 성장을 멈춘채 생기를 잃었다. 방에 박혀 끄끙되고 있는 사이에 가을이 마당 안쪽까지 발을 깊게 디밀어 넣은 것이다. 앓을때는 눈에 들어오지도 앓든 풍경들의 세세함이 새롭게 읽혀지기 시작 한 것은 나에겐 좋은 징조이다. 낮엔 아래집 김씨와 함께 읍내에 나가 목욕탕에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거고 느긋하고 한가로운 시간을 보냈다. 음식 잘하는 중국집을 찾아가 청요리를 안주 삼아 고량주도 한잔하였다. 자장면도 한 그릇 후딱 해 치웠다. 오래 만에 입맛이 돌아 온 것이다. 미열이 조금 있긴 하지만 회복 단계에 들어선 듯 몸이 가벼웠다. 어지르진 방을 정리하고 아픈 와중에도 다급한 일정 때문에 그리기를 중단 할 수가 없어 비몽사몽간에 붓질하든 그림들 앞에 앉아 그동안 진행된 작업을 찬찬히 관찰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내었다. 모처럼 음악을 틀고 바닥에 흩어진 붓들과 물감을 정리하고 전시일정표와 작품 진행을 위한 계획서를 살피고, 미뤄 두었던 잡다한 계획들을 적어둔 메모지를 읽어보면서 어느새 아프기 전의 일상으로 돌아와 있는 나를 느낀다. 고열과 땀으로 힘들게 지새웠든 지난 시간들과 마음을 괴롭혔든 반성의 시간들은 늘 그래왔듯처럼 이제 곧 두텁고 견고한 상자에 간혀 망각의 시간 속에 버려 질 것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다시 덧없이 흐르는 일상의 강물에 몸을 마끼곤 바빠, 바빠 흘러갈 것이다.

와인 잔을 바라보며, 2004/09/24

아침에 어제밤 손님들이 마시고 간 와인 잔을 씻었다.
와인 잔을 씻을 땐 항상 조심스럽다.
투명하고 볼록한 잔 속에 스펀치를 밀어 넣어 닦을 때나
가는 허리를 물 묻은 손가락 끝으로 잡을 때는
미끄러져 떨어 터 릴까 싶어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다.
얼마 전에 특별히 아끼든 잔을 실수로 깨 터 리고 난 뒤부터는
더욱 그렇다.
이미 저지른 일에는 좀처럼 후회하지 않는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 만큼은 원망과 후회로 나를 꽤 괴롭혔었다.
투명한 유리제품은 다 좋아하는 편인데
특히 와인 잔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
이유는 화려하면서도 자칫하면 깨트려 질 것 같은,
위험스레 보이는 느낌 때문이다.
와인 맛 보다 와인 잔의 느낌을 더 즐긴다고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렇다고 극성스럽게 수집을 한다든지 하는 수준은 아니고
이미 있는 것 자체를 좋아하고 아낀다는 뜻이다.
와인 잔을 바라보든지 만지든지 할 때마다 관능적인 화려함의 모양새
에 늘 감탄을 아끼지 않는다.

특히 스펀지에 세제를 묻혀 거품을 내어 닦을 때의 손에 느껴져 오는 감촉과 다루기가 위험 하고 조심스러워서 스스로 긴장하는 불안한 심리 상태의 기묘한 경험은, 창작의 에너지원으로까지 연결되기도 한다.

어둠 속에서 나즈막한 촛불이 있는 유리탁자 위에 잔을 올려놓고 바라보면 흔들리는 촛불이 투영된, 투명한 어둠이 가득 담긴 잔은 너무 아름답다.

간혹, 편한 의자에 기대 앉아 그렇게 연출된 잔을 바라보며 상념에 잠기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어김없이 기억의 장막 속으로 여행을 떠난다.

어떨때 와인 잔의 느낌과 어울리는 영화의 장면이나, 소설의 한 부분이나, 시의 한 소절을 마음속으로 읊조리기도 하고 위험스러운 상상에 빠져들기도 한다.

와인 잔을 바라 볼 때마다 나는,
내 그림이 이런 느낌을 품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깊은 물 속 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맑아서 수초의 일렁임이 다 들려다 보일 때의 느낌같은.....

맑음에서 느껴지는 명징 함과 깊음에서 느껴지는 불안함과 두려움,
화려하고 아름다우면서도 면도날 같은 날카로운 불안과 가시 같은 고통이 들어있는 그림,
화려함과 위험스러움이 마찰하면서 파생되는 빛의 느낌을 나는 그리고 싶다.

도덕과 윤리에서 자유스러운 그림을 그리고 싶다.
젓갈처럼 상한 채 깊은 맛을 내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

관계와 인연에 대하여, 2004/09/26

관계 (關係)[-계/-계][명사]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등 둘 이 상이 서로 걸리는 일.

인연 (因緣)[명사]

사물들 사이에 서로 맺어지는 관계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

관계를 긍정적인 인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따뜻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정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상 속에서는 마음과 달리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한 이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다.
시간에 부대끼며 살다 보면
간혹 상대에게 소원 할 수도 있고
서운하게 느낄 일을 저질러 놓고도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모른척 할수도 있는데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대수롭지않게 생각 해서는 않된다.
그럴 때 실수를 사과할 줄 아는 용기와
그 사과를 받아들이는 너그러움에
우리는 매우 인색하다.
상대 앞에서의 겸손함과 배려하는 마음
또한 마찬가지로이다.
상대의 마음열기를 기다리는
인내심 역시 쉽지가 않다.
`수평적`이고 가치 있는 인연을 위해서는
"이 정도쯤은 이해 할 수 있겠지" 하는
자기 변명 식 오만함을 버려야 한다.
상대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늘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한다.
서로를 향한 이해심과 배려를 통해
경계의 벽이 허물어지고
믿음과 신뢰가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이다.
관계와 인연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꾸어 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에게 모순된 부분이나
인격적 결함이 발견된다면,
그것을 바로잡고 극복하기 위한
자기성찰의 지혜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니
인연, 그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러나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환경과 성장 조건에 따라
가치관조차도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얹혀있어서
정서를 공유하고
마음을 나누어 가는 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 마음의
끝없는 대화가 필요하고

삶의 방식이나 사고의 방향 때문에
다소간의 오해와 마찰이 있다 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화해를 위해
노력해야함은 물론이고
서로에게 닥아가기 위해 투자되는 시간을
아까와 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외롭고 덧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 동지로서
서로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가치있는 삶이 아니겠는가!

작업일기-양귀비 언덕을 거닐며, 2004/09/27

모처럼 꿈도 없는 깊은 잠을 늘어지게 잤다. 눈을 떠니 방안이 흰하다, 내방 창문이 침대 머리맡에 정동쪽으로 뚫려 있어서 늦잠이라도 잘라치면 눈이 부신 햇살때문에 민망스러운 마음이 먼저 든다. 간혹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서 민기적 거리기도 하는데 갑갑함을 견디지 못하는 성격때문에 오래 버티지 못한채 결국 일어나고 만다. 오늘도 늦잠을 잤구나 싶어 황급히 일어나 시계를 보니 8시다. 얼마 남지 않은 개인전 때문에 시간에 쫓기며 작업을 하는지라 피로가 쌓여 간혹은 쉬고싶은 마음에 누장을 부려 보고 싶어도 어찌할 수가 없다. 진주에게 밥을 주고 마당에 서니 가을 바람에 자작나뭇잎 서걱이는 소리와 맑고 찬란한 아침햇살이 마당 가득히 쏟아져 있다. 개울가로 산책을 갈까 하다가 사치부릴 시간이 없다 싶어 황급히 작업실로 들어와 불을 켜다. 바닥에 어지르진 붓들을 발로 대충 밀쳐두고 보름이상의 밤낮을 씨름하고 있는 그림 앞에 서서 찬찬히 바라보며 오늘 그려 내야 할 것들을 정리해보고 머리 속으로 계획표를 짠다. 처음 시작 할 땐 아무리 그러대도 진전이 없어 보이든 화면이 이젠 여백 없이 다 매 꾸어 지긴 하였다. 전체화면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기초 작업이 이제야 끝난 것이니 아직 갈 길이 멀고 아득하기만 하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제대로 표현이나 되어 질지도 걱정이다. 평소 익숙한 그리기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이라 그리는 동안 신선한 재미를 느껴보기도 하지만 위험부담 또한 크다. 그러나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까지 와버렸으니 이젠 밀어붙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돌이켜 보면 지금까지 많은 양의 그림을 그려 왔지만 새로운 작업을 시작 할 때마다 통과의례처럼 항상 이런 불안과 고민을 같이 해 왔다. 그러니 습관화된 걱정이라 마음속으로 힘든 부담은 느끼지 않는다. 이런 습관화된 걱정이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는 본능적 대응 방식이 발전된 형태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이미 오늘의 결전을 치뤄낼 마음의 준비가 되었고 남은것은 결전의 장으로 뛰어들 일 뿐이다.

작업일기-양귀비 언덕에 꽃을 심고, 2004/09/29

이른 아침 전화 한 통을 끝으로
지금껏 말 한마디하지 못 하였다.
온 종일 환풍기 소리와
제습기 돌아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린 소리의 전부다.
파도에 부대끼며 망망 대해에
홀로 떠 있는 배처럼
캔버스와 씨름하는 동안
해도 저 버리고 시간마저 깊어진 듯 하다.
냉장고 안에서 찬 막걸리를 꺼내어
잔에 붓곤 찻잔을 단숨에 들이킨다.
차가운 냉기가 위벽을 쓸어 내리고
외로움이 밀려온다.
눈앞에 펼쳐진 양귀비 언덕을 바라보며
종일을 양귀비 언덕에서 놀았으면
이 외로움쯤이야 감수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두 번 째 잔을 천천히 비운다.
술기운과 함께 외로움도 온몸에 번진다.
작업을 할 때는 모든 감각과 감성의 문이 다 열려서
예민해 저 있는 상태라 감정의 증폭이
평소 때 보다 훨씬 크진 탓이기도 하겠지만
붓을 들었을 땐 이세상의 모든 연이 다 끊기고
어둠 속에 홀로 버려진다는 사실을
작업에 열중해 본 사람이면 다 알 것이다.
정신적 자유를 누리는 댓 가로 치러 내야만 하는
이 천형의 외로움과는 아무리
친해지고 싶어도 나는 늘 그렇지 못하다.
항상 힘들고 불편하다.
그렇지만 나를 아편처럼 중독 시켜서
쉽게 놓아주려 하질 않으니 다른 방법이 없다.
이 가혹한 형벌인 `절대 고독`이
나의 무덤 속까지 뒤 따라 올 것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래도 난 달아나고 싶다.
정말 달아나고 싶다.

‘49인의 명상’을 위한 작업단상 2004/10/01

몇 년 전 우연한 기회에 증명사진용 필름 수 백장이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수집하였다. 박스의 뚜껑을 열고 방습제와 함께 빼곡히 쌓여 있는 해 묵은 필름 들을 바라보는 순간 영감과 호기심이 내 가슴을 뛰게 하였다. 사진관의 폐업으로 버려질 뻔한 이들의 네가티브 이미지들이 마치, 심술궂은 마녀의 주술로 얹고 투명한 필름 속에 갇힌 영혼들처럼, 수 십 년이 지난 과거의 멈춰진 시간 속에서 나에게 말을 걸어온 것이다. 이 작은 상자 안의 비좁고 캄캄한 공간 속에 수 백 명의 정지된 시간들이 갇혀 있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이들의 포지티브 이미지가 궁금하기도 하였다. 필름이 든 상자를 탁자 위에 올려 둔 채 며칠을 골똘히 바라보다가 이들을 작업으로 연결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우선, 상자 안에서 손가는 대로 100장의 필름을 뽑아 들고는 사진 현상소에 가로 70 X 세로 110cm로 확대 인화를 주문하였다. 며칠이 지난 후 사진을 받아 든 순간, 조그만 증명사진용 네가티브 이미지로는 상상조차 해 볼 수 없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각양 각색인 주변부 사람들의 낯익은 얼굴들이 눈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을 예워 싸고 있는 공통된 정서 속에서 제 각각 또 다른 형태로 삶의 질곡을 어깨에 매달고 있었다. 그 박제된 시간의 느낌은 주술의 힘을 발휘하여, 무어라 꼬집어 말할 수 없이 생경한 시적 영감 속으로 나를 데려갔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를 응시하는 눈빛들은 정작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순간 카메라 렌즈 앞의 찰라 속에 멈춰있는 것이었다. 마치 눈을 뜬 채로 명상에 잠긴 듯이.....패널 위에 부착된 사진들을 작업실 벽면 가득히 기대어 펼쳐 둔 채, 바라만 보며 몇 달의 시간을 지나 보내고 바뀐 해를 맞이하였다. 작업의 머리를 잡는 데도 한참의 시간을 더 보내었다. 이유는 작업의 방향 때문에 몇 가지의 방식을 놓고 작은 고민에 빠졌기 때문이다. ... 결국, 작업 방향의 가닥은 잡혔다. 표현하고 싶었던 작업의 내용은, 이들의 실재 했던 시간들을 과거와 현재의 틈 사이에 놓아보는 것이었다. 존재와 부재의 틈, 삶과 죽음의 틈, 소멸된 시간과 현재의 틈, 언젠가 그들이 살았던 그 곳과 빛 바랜 사진 속의 박제된 과거의 틈. 작업의 방향이 잡히자 좀더 구체적인 작업방식을 메모해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 1) 사진 위에 덧칠로 영혼의 빛이 새어 나가지 못하도록 눈을 감긴다.
- 2) 입술에 붉은 색으로 온기를 불어 넣어 줌으로써 삶과 죽음의 틈을 나타낸다.
- 3) 인물 주위에 매개자 혹은 전령으로서의 나비를 날게 하거나 인체 여기저기에 가볍게 내려 앉힌다.
- 4) 빛 바래고 정지된 시간을 상징하는 투명하고 두터운 고체 속에 인물들을 잠기게 한다.
- 5) 강철로 만들어진 얇고 견고한 사각의 틀 속에 박제된 시간을 가둠으로써 작품 49인의 명상은 마감된다.

사진이 인화된 지 2년 여 만에 더위가 시작 될 무렵 작업은 완성되었다. 금년 봄, 제작 중간 단계에 부산 비엔날레 측에서 작품 출품 요청서가 날아왔다. 금년 비엔날레의 주제가 ‘틈’이었다. 내가 진행하고 있던 작업 주제의 동일한 우연 덕분에 새로 작업을 시작해야 할 부담감 없이 진행 중이던 작업을 마무리하는데 정성을 쏟을 수 있었고 결과는 흡족했다.

물푸레 나무와 월산리 김씨에 대하여, 2004/10/08

며칠전 월산리에 사는 김씨가 놀러 왔었다. 작업실옆에 붙어 서있는 물푸레 나무를 올려다 보며 ‘안씨, 이 나무를 와 물푸레 나무라 카는지 알아요?’ 하고 나에게 묻는 것이었다. 똥단지 같은 질문에 머리를 굴리다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였다. ‘정말 몰라요?’ ‘네’ ‘나무 가지를 물에 담그면 물이 파래 진다고 물푸레나무라 카는거요’ 너무 뜻밖의 신선한 답에 눈이 휘둥그레 져서 ‘정말요?’ 하고 되물어 보니 역시 같은 대답을 되풀이하는 거였다. 뜻을 알고 나니 너무나 쉽고 담백하게 의미를 담아낸 소박한 우리말 이름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 졌다. 내가 아는 김씨는 자연에대해 참 아는 것이 많다. 내가 말하는 얕이란 책에서 습득한 죽은지식을 이야기 하는것이 아니라 예리한 관찰력과 풍부한 경험의 샘에서 솟아나오는 살아있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다. 그림을 그릴때에도 그렇게 정확히 자연의 느낌을 자연보다 더욱 자연 스럽게 화폭위에 옮겨다 놓는 화가를 아직 나는 보지 못하였다. 식물이며 곤충, 동물과 광물에 이르기 까지, 그의 머리속에 들어있는 지식보따리를 풀어 놓을때면 우리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채 그의 해박함에 늘 넋을 잃고만다. 그리고 새로운 발견과 새로운 앎을 위하여 끈임없이 노력하는 그를 보고 있노라면 간혹은 나의 개으름이 부끄러워 질때도 있다. 성격 또한 얼마나 좋은지 토론을 하다 보면 직선적이고 양보없는 내성격 때문에 김씨의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을 할때가 더러 있는데 그럴때마다 항상 너털 웃음으로 마찰을 피해가는 그의 넓은 가슴이 자연을 닮았다는 생각이 언듯 언듯 들때가 있다. 이렇듯 자연과 그 이치에 해박할 뿐만 아니라 인품까지 빛나는 그를, 우리 친구들은 숲속의 관찰자라 부르며 좋아한다. 이런 사람과 가까운 동네에 산다는 것이 그를 아는 우리 들에겐 크다란 행운인 것이다.

내 생각에, 2004/10/13

그림은 삶의 경험과 나이 만큼 깊어진다.

비가 내렸다. 2004/10/14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을 틈타
또, 비가 내렸다.
현관문을 열고 캄캄한 마당에 나서자
코 끝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습기냄새가
가을비의 방문을 알려 주었다.
어제밤에도 피로와 둔한잠귀 때문에
빗님의 방문을 몰랐든 것이 아니라
내가 눈치 채지못하게
오늘 밤 처럼 소리없이 찾아왔을 것이다.

밤비 때문에 이렇게 잠을 잃고
방의 안과 밖을 서성이며,
온갖 청성을 다 떨고 있는 사이에 벌써,
창앞엔 새벽이 찾아 와 있다.
이제 곧 날은 환하게 밝아 올 것이고
나스스로 피로에 지친 나를
놓아줄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상념 때문에 잠을 못 이룬 밤은 이렇게
아무런 소득없이 아까운시간만 허비할때가 많다.
이런 밤은 그림조차 잘 풀리지 않고
글 마져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
술로 인사불성이 되든지 아니면 오늘 처럼
멍청히 벽을 바라보고 앉아 있든지
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작업일기-양귀비언덕에 꽃이 흐드러지다. 2004/10/15

오늘은 아침부터 종일을 캔버스와 씨름을 하였다.
덕분에 양귀비 언덕은,
꽃을 흐드러지게 피우고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다.
이삼일만 더 매어 달리면 완성이 될 듯하다.
그림 하나로 한 달을 넘게 끌었으니 완성된 그림도 몇 점없이
개인전을 코 앞에 둔 나로서,
지겨움과 불안함이 마음 구석에 있기도 하거니와 스스로 느끼기에,
배짱이 어지간하다 싶기도 하다.
거기다,고장난 어깨가 신경 쓰이면서도 병원가기가 싫어서
그냥 방치하였더니 기름 안친 기계처럼 움직일 때마다
덜거덕거리는 느낌에 불안감이 더하다.
`개인전 준비가 끝날 때까지 별 탈이 없어야 할 텐데...`
이러한 물리적 걱정 거리를 빼고나면 오늘의 기분은 쾌적한 편이다.
오늘밤은 제법 쌀쌀하여 전기 난로까지 켜두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완성단계에 접어든
그림을 보고 있노라니
약간의 긴장과 함께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 느껴져 온다.
양귀비 언덕이 마무리 되면 곧바로 누드 드로잉을 시작할 계획인데
개인전 때까지 몇 점이나 완성되어질 지,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 암튼 시작은 하고 볼 일이다.
아직 정하지 못한 전시 날짜도 무작정
미뤄 두고만 있을수 없는 입장이라

목빠지게 내 연락만 기다리고 있을 화랑에,
전화를 걸어 개인전 날짜를 정해주고 난 뒤
작업에 전념해보는 수 밖에 없을 듯하다..

요즈음 미술관엔, 2004/10/21

요즈음 미술관엔,
임만 살아있는 화가와 글쟁이들이 너무 많다.
그림쟁이가 그림으로 이야기하는것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할까?
웬, 촌빨 날리는 헛소리냐고 할진 모르지만
화려한 말빨로 어설픈 자기그림 치장할 시간에
차라리 그림한점 더 그려보는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선
훨씬 현명한 행동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평론가라 이들도 ,
주위 읽은 얄팍한 지식 나부랭이와
선진국이라는 곳에서 떠내려온 한물간 유행을
철이 지난 것인지 아닌지
우리 몸과 환경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
최소한의 검정조차 없이,
거렁뱅이처럼 이것 저것 무조건 좇아 입고서
종속된 사고와 걸밋에 찢은 어설픈 폼으로
여기 저기 함부로 가래침을 뱉어댄다.
편협된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할퀴고 물어뜯고 발길질 하기에만 바쁜 것이다.
열핏, 쏟아 뱉는 말만 들으면 그럴 듯한데 그네들이
찬사를 보내던지 씹어대는 작품들을 살펴 보노라면
그들의 한심한 시각적 수준에
실소가 터져 나옴을 참을 수가 없다.
기획자가 기획한 전시를 치루려 할 때에도
그 전시가 비중있고 관심을 가져야 할 전시일텐
올바른 전시 방향을 위해 서로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우려보는
성의를 보이지든지 평소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 써보지는 않고 강 건너 불구경 처럼
서로 방관하며 탄짚 하다가
가게 문을 열고 나면
일단 주위의 눈치부터 살피고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른다 싶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꺾치기처럼 인정사정 볼것없이
뒤통수를 치고 꼬시래기 제 살 뜯기 하듯이 난리를 쳐대는 것이다.

반대 상황이 벌어질 땐 서로 뒤질세라 일사분란하게
입에 침 튀기며 찬사의 미사여구를 늘어 놓는다.
그 속엔 장단점을 가려내는 이성적 판단이나
최소한의 인간적 배려조차 없음은 물론이고
막가파같은 살벌한 죽이기 본능만 남은 듯하다.
덩달아 외쳐되는 목소리의 높낮이나 시각의 방향 또한
너무 똑같아서 마치 정해진 답을 빼껴 읽는듯
누구의 목소리 인지 분간도 안갈때가 많다.
하는 짓거리들이 우리나라 정치판과 너무나 닮아있다.
전시 기획자들 또한 우여곡절 끝에 일거리를 낚아 올리면
남에게 빼앗길세라 순종형 측근들만 거느리 고선
재빨리 잠수함을 타고 사라진다.
그리곤, 전시를 위한 긍정적 도움이 될만한
외부와의 모든 정보를 차단한 채
소신과 자부심도 없이 자신의 입지를 위한 정치색만 짙게 가미된
군내나는 방식으로 은밀히 진행해 나간다.
상황이 이러하니 치뤄지는 행사는 뻔할 뻔자 아니겠는가!
피같은 국민 세금으로 치뤄지는 큰 전시일수록 더욱 그렇다.
미술잡지들은 한술 더 뜯듯, 읽고 있노라면
무뇌아들이 생각없는 말장난으로 낄낄되며
아까운 시간을 죽이는 TV오락프로를
보고있는듯한 착각에 빠진다.
세상살이를 통찰하는 진지하고 따뜻한 시선과
힘겹게 쌓아올린 삶의 경험과 지혜의 지층이 없이
알팍한 지식과 먼 나라에서 떠내려 온
철지난 유행의 돛에 몸을 의지한 채
방향도 모르고 떠내려가는 배처럼 느껴지는
이들의 행동과 미술관이 불안하고 한심 스럽다.
우리는 왜 걸핏하면 외국의 예만 들먹이며
남들이 오래 전에 해 먹은 것들을
비스무리하게 흉내라도 내야
비로소 안심하고 갈채를 보내는가?
왜 우리는 식민지 근성에서 벗어나기를 불안해 하는가?
우리는 왜 우리의 방식을 창조해 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오히려 폄하하려고만 하는가?
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방식으로
국제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는가?
세계 미술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는 유형의 유행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로 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는 희망이라도
우리가 가져보면 왜 안되는가?

아주 특별한 느낌의 아침은 경계하라! 2004/10/22

평소 보다 하루의 시작이 너무 특별히 느껴지는 날은 꼭 경계하여야 한다. 눈을 떴을 때 방안의 햇살이 유별나게 환하게 느껴지는 날, 일어났을 때 몸이 풍선처럼 가볍게 느껴지는 날, 콧노래가 나오고 세수만 하러 들어간 샤워실에서 머리감고 면도 까지하고 싶어지는 날, 마당에 섰을 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섬세한 감성으로 와 닿는 날, 작업실의 문을 여는 순간 작업이 잘 될 것 같은 기대감이 특별히 벅차 오르는 날, 그런 날은 뭔가 풀리지 않던 일들이 쉽게 풀릴것 같고 넓은 대문 가득히 행운이 밀려 들어올 것 같은 기대감으로 설레다가 종일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납덩이 같이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에 들 때가 더러 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다. 난, 경험을 통해 이런 날의 징크스를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망과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매번 해 보지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주 특별한 느낌으로 인한 기대감이 너무나 강력하여 늘 지난날의 후회와 결심을 무시해 버리고 만다. 그리곤 `설마` 라는 말 속에 불안감을 묻어두고서 기대감을 더욱 부풀린다. 그, `설마` 때문에 결국 오늘도 되풀이 되는 실수를 저질렀다. 너무 상쾌했던 아침의 기대감이 하루를 망쳐놓고 만 것이다. 해질녘엔 동네 후배와 읍내 주점에 앉아 막걸리 몇 사발로 우울함을 달래고 돌아 왔다. 오늘은 그림 그리긴 글렀다. 이제 와서 헛되이 보낸 시간을 아까워하며 후회해 본들 뭐하나. 아주 특별한 느낌의 아침은 정말 경계하여야 한다. 10월 22일의 금요일 같은 어리석음은 두 번 다시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

집착에 대하여, 2004/10/28

마음을
사슬로 묶어 두고 싶지 않커덜랑
무엇에 이든 집착 하지 말아라.
마음 속
고통의 뿌리는 바로 그 곳에 있느니.

의식의 자유를 위하여, 2004/11/08

의식을 자유스럽게 해 주고 싶거든 머릿속에 쌓인 지식의 찌꺼기들을 버려라. 지(知)적 여행의 충족과, 깨우침을 위하여 책 읽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지만 읽은 것들 중에서 자신에게 체득화되지 않은 것들까지 머릿속에 저장해 두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러한 행위는 곧 지식의 포로가 되기 위함이다.
머릿속에 잡다한 지식을 많이 저장해 둘수록 창의력의 자립도는 낮아지고, 얕은 생각과 술수에만 능해 질 것이다. 나중엔 머릿속에 저장된 먼저 생각한 자들의 논리와 지식의 그늘에서 벗어나기가 불안해 지고, 그 그들의 단맛에 취하여 급기야는 남의 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생각

하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제기랄 우리는 너무 이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서 잔피와 타성에 젖은 이런 삶의 방식을 오히려 긍정과 부러움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려거든,조금 무식하고 거칠더라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좌충우돌 살아가면서 상처가 많을수록 생각은 깊어지고,정신력은 더욱 강해진다. 섭취한 것들 중 소화되지 않은 것은 배설해 버리고,알량한 지식에다 자신의 삶의 방식까지 기대서는 안 된다. 삶의 가치와 창작은 지식으로만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과 지혜의 문은 지식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의식의 진정한 자유를 원하고 진정 나만의 향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 우리는 종종 지식과 지혜를 혼동하며 산다. 자신의 삶에 녹아 들어 체득화되지 않은 지식은 아무리 논리 정연할지라도 허공의 메아리처럼 감동의 울림이 없는 법이다.

관찰과 경험,사색을 통한 끊임없는 자기성찰의 힘겨운 자맥질을 통해서 길어 올려진 지혜의 샘물이야말로 비록 한 방울의 물이라 할지라도 범람한 지식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내가 읽은 책 중 누가 말하길..."이렇게 시작하는 지식전달자보다는 "내가 경험해 본 결과로는..."이렇게 서두를 시작하는 사람의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다. 이야기 도중에 수사나 조사가 다소 엇갈리고,말이 비록 조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귀 기울여 들어보면 분명히 그 속엔 지식만으로는 맛볼 수 없는 생생한 감동이 담겨 있는 법이다. 얼굴에 주름살이 깊게 팬 촌로가 어느 책 속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세월의 역경 속에서 쌓아온 지혜의 보따리를 풀어 놓을 땐 숙연한 느낌마저 들 정도로 감동적일 때가 있다.

지식은 지혜의 밑거름은 될 수 있을지언정 주체는 결코 될 수가 없는 법이다. 의식을 자유스럽게 해주고 싶거든 머릿속에 쌓인 지식의 찌꺼기를 버리는 일부터 먼저 시작하라.

살다보면 풍부하다 못해 넘치는 지식으로 출렁이는 머리를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간혹 경험한다.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처음엔 그럴듯하지만 점점 그 사람의 실체는 사라지고 유수한 철학자나 이론가,사상가들의 관점과 생각들만 난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령 정반대의 논리를 가진 세 사람의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중엔 관점의 방향이 세 갈래로 갈라지며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추스르지 못해 가랑이가 찢어지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식의 감옥에 자아까지 갇혀 버렸기 때문이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라. 손가락 하나로 필요한 모든 정보와 지식의 바다를 헤엄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온라인 환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고 있는가?

진정한 삶의 가치는 온라인과 창백한 지식의 간접 경험에 빌붙어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려거든 조금은 무식하고,때로

는 다소 거칠더라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좌충우돌 상처가 많을 수록 생각은 깊어지고 정신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이런날은 어떻게 해야하나? 2004/11/13

오늘은 작업실에 들어가는 것이 내키질 않아
문 앞을 몇 번이나 서성이며 종일을 보내었다.
방을 들락 그리며 TV앞에 앉았기도 하고
개(犬) 우리에 들어가 한참을 앉았기도 하였다.
집계를 들고 개들이 물어다 놓은 쓰레기를 찾아
마당을 두리 번 거리기도 하고
괜히 혼자서 툭툭대며 성질만 내다가
끝내 작업할 마음을 잡지 못하고서 저녁을 맞이 하였다.
마당이 어두워 지고 난 뒤에야 작업실에 들어가
불을 켜고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켄바스 앞에 앉았는데
마음은 마찬가지였다.
어제, 전시할 화랑사장과 통화한 전화내용이 마음에 걸려서
몇 점을 더 그려내기로 마음을 먹었으나
도살장의 소처럼 작업실에 앉아있기가 싫으니 낭패인 것이다.
전시할 작품 준비 중, 팔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린 그림이
몇 점 있지만 경험 많은 화랑사장 눈에는
그 그림들이 판매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던 것이다.
내 기분 상하지 않게 조심하는 듯이
"팔릴 만 한 그림 몇 점만 더 그려줄 수 없겠냐"고
완곡히 부탁하는 말에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
생각도 없이 선뜻 승락을 해 버리고 만 것이다.
그런데 막상 마음먹고 그려 볼 여고 하니 난감해 지는 것이다.
그동안 꽤 많은 전시를 해 왔지만 전시 때 마다
나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 이다.
난들 팔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는가?
그러나
판매의 문제는 작품질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운의 차이에 있다는 사실을,
좋은 작품과 잘 팔리는 작품이 꼭 동일하지 만은 않다는 사실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더 많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늘
판매에 대한 기대감을 접어 둔채 마음 편히 전시를 치뤄 낸다.
그래도 평생을 통해 한점밖에 팔지못한 반 고흐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
하지만 화랑 입장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나의 전시를 위해 소요된 경비도 만만 참을테고,
엄동설한의 겨울도 나야 될 터이니 더욱 큰일인 것이다.

별, 2004/11/18

어젯밤의
하늘엔
별들이
너무
찬란하였다.
아득히 흐르는
미리네 까지
나의 눈을
황홀경에
빠지게 하였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쏟아지는 별빛을
맞으며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
별빛이
너무
황홀하여서
발이
시린줄도 몰랐다.

예술은 물질과 정신의 갈등 사이에서 더욱 빛난다. 2004/11/20

쌀과 바뀌야 한다는 절실함이 없는 그림 속에서 감동을 맛 보기는 겨울 눈발에 핀 해바라기
구경하기 만큼이나 힘든 일이다. 좋은그림 그리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생활이 윤택해 지더라
도 지난 기억을 바늘처럼 심장에 꽂고 살아야 한다.

진리는... 2004/11/20

진리는 평범함속에 있다 !
특별함 속에도 있따 !!

시공창과 뚱통 속에도 있따 !!!
잘만 찾아보면
길가다가 보석을 줍듯이
형재 할 것이다.

꿈에 대하여, 2004/12/02

나는 간혹 악몽을 꾀다.
대부분의 꿈이 아침에 눈을 뜰 땐
기억나지 않거나 윤곽만 희미하게 떠오를 뿐인데
악몽일 경우는 비교적 상세하게
떠오르는 기억때문에 우울한 아침을 보낸다.
꿈의 내용은 주로 도덕적 강박으로
내가, 나에게 스스로 상처를 입히는 것들이다
꿈속 배경의 단골 메뉴는 선과 악, 정의와 배신이
이분법으로 극명하게 대치되는 전쟁터이고
그 속에서 나는 항상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리곤, 최악의 환경 속에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일들 중,
가장 비열하고 추한 꼴로 살아 남는다.
그 모습을 스크린 속의 영화를 보듯이 또 하나의 자아가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며 수치심으로 참담해 하는 것이다.,
구체적 예를 들자면 나의 배신으로 전우들이 죽는다든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투성이의 전우를 버려 둔 채
혼자 도망가는 따위의 내용들이다.
그중 나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그 와중에 갖은 수단으로 적으로 부터
목숨을 구걸하는 나의 모습을
스스로 상상하는 일이다.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생생하고 구차한 생각을
꿈속에서 태연하고 거리낌없이 상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장면을 먼빛으로 바라보는 또하나의 자아가
수치스러움으로 몸둘바를 몰라하는 것이다.
영화를 너무 많이 본 탓일까?
유아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듯이 보이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내용 이면서도
한꺼풀만 벗기고 들여다 보면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강박의 꿈.
누구나 다 삶의 선택이 순간순간 갈등의 연속 이겠지만,
평소, 불균형한 현실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위해
항상 긴장해 있는 나의 삶이 힘에 겨웠든 때문일까?

때론 낙천적이고 의연한 척, 혹은 단호한 척
호기부리는 겉모습과 달리 현실의 유혹 앞에서
갈등과 망서림으로 헛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더러는 우유 부단하기도 한 나약한 태도에 대해,
결과론 적으론 비록, 바른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선택을 위한 과정의 자책감과 후회의 질책이
나를 짓누르는 스트레스와 강박으로 변하여
무의식의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꿈 속에서까지 내가 나를 불러내어
치욕스런 수치심으로 자신을 괴롭힘으로서
흔들리기 쉬운 마음을 긴장의 끈으로
더욱 단단하게 옥 죄어 놓으려고
스스로 최면을 걸어보는 것이리라.
꿈이 또 하나의 현실이라면
난, 치킬 박사와 하이드 처럼 살고있는 것인가?
꿈은 그냥 꿈일뿐 이라면
나는 나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의 표본쯤되는 것인가?

프로정신은 아름답다. 2004/12/07

며칠 전 00화랑의 O사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서로 가볍게 안부를 묻고 시시콜콜한 잡담을 나누었다. 대화 속엔 경제적으로 힘든 시절이라 푸념섞인 말들이 많았는데 주고 받은 대화 중 O사장의 말 몇마디가 내 귓가에 여운으로 남아있다. 오늘도 그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프로정신은 아름답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문득 O사장과 길게 맺어진 인연의 지난날들을 뒤 돌아보며 우리 현실속에서의 화가와 화상의 관계와, 피폐한 미술계에서 고단한 길을 한눈 팔지않고 걸어온 O사장의 프로 정신과 굴곡 많은 인생을 겹쳐 떠올리며 감회에 젖어본다. 내 생각엔 우리나라에서의 상업화랑과 화가의 관계는, 거의 대다수가 애증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 되어진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나와 O사장 역시 지금처럼 편한 관계가 될 때까지 꽤 긴 인연이 애증의 관계였다고 볼 수 있다. 오늘의 좋은 관계로 발전하기까지 서로의 연을 잘라내지 못하고 강산이 몇 번 바뀔 오랜 세월을 고래힘줄처럼 질기게 이어온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서 프로로서의 예사롭지않음을 감지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오랜 세월을 서로 밀쳤다 당겼다 하며 살아온 터라 양쪽이 서로의 체질을 너무 잘 아는 지금이야 그럴 일이 없지만, 처음엔 화랑의 어깨 힘준듯한 접근방식과 자존심 강하고 타협 불가능한 고집불통 화가와와의 관계가 어찌 순탄할 수가 있었겠는가?

나는 세상물정 모르는 광기와 열정만이 재산인 젊고 괴팍한 화가였고 O사장 역시 OO市에서는 유일하게 서울을 오르내리며 유명작가들의 작품을 취급하는 의욕이 넘치고, 나름으로는 잘나가는 화상이었으니 서로의 팽팽함은 껏이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일. 그러니 오랜동안을 애증의 관계로 지속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금은 흐른 세월만큼 O사장도 화상으로서의 관록과 연륜으로 세상 보는눈과 작가입장 생각하고 대하는폭이 부더러워 졌고 나도 괴팍하고 모난성격이 옛날 보다는 많이 누그러 졌으니 서로의 만남에 무리가 없어진

것이다. 내가 경험한 결과로 바라본 O사장은 아마 지금 역시, 그 지역 작가들 사이에선 인기없는 찬밥 신세임이 분명 할 것이다.그 지역의 작가들 눈으로 바라볼 땐 냉소적이고 실리적인 현실주의자라는 문제외에도 그들 생각에 못마땅한 구석이 너무 많아 외면하고 싶은 사람임에 분명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에게 그가 무언가를 해 주기를 원하고 O사장은 그들이 원하는 그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져 주지 않음으로 해서 빚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O사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이기도 하다. 어떻게 보면 작가들 입장에서 추파를 던지고 구매를 해 오는 짝사랑의 형국이니 자기네들의 짝사랑에 대한 무관심에 분통을 터뜨려 대는 것이다. 그 때문에 o사장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있는 듯 하였다. 심지어는 화랑에서의 금연 문제까지 힐난꺼리로 삼았으니 오죽 헛겔는가! 그러나 무관심과 일방적인 불만때문에 평행선을 달리는 그들의 관계도 O사장의 바램이 충족될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 가까와 질수 있는 것이다. 그 방식이 약간 건조하고 차가웁긴 하지만 상업화랑이 원하는 작가와의 관계중 1차적 순위가 그것 아니겠는가 ! 그러니 인간적인 면을 따지고들 필요조차 없이 자신들이 양질의 작품을 생산해내면 그 불만은 자연스레 해결되는 것이다. 어쨌든 내가 알고있는 그는 평범하지 않은 눈과 사고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 하거니와 오랜 세월동안 국 내외를 부지런히 누비며 좋은 작가 혹은 돈 되는 그림을 수집가들에게 열심히 소개하였으며 좋은 전시 또한 유치하려 애썼다.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정도의 안목과 노력을 수도권에서 투자 했더라면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을 만들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유야 알수 없지만 수도권에서의 기회를 외면 한 채 주위가 시기할 만큼 열성적으로 힘든 환경을 개념치 않고 화랑을 꾸려 나갔다. 그 과정속에서 까탈스럽고 원만하지 못했던 인간 관계와 좁은 지역 사회의 배타성과 남잘되는 꼴을 못보는 고질적 민족근성이 겹쳐 몇몇 사건들에 휘말려 힘든 일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병마까지 겹친 선천적인 약체의 몸을 견디며 지난날들을 잘 극복한 듯 이 보였다, 인간이란 것이 태생부터가 불완전한 모순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인정한다면 굴곡 많고 힘든 인생을 살면서도 탄뎀 먹지 않고 좋을때나 껏을때나 초지일관 화상의 길만을 걸어온 한 인간의 삶이 내 눈엔 새삼스레,아름답게 느껴졌다. 과정은 무시된채 목적만이 난무 하고 결과만이 평가되는 우리 사회에서 그 화랑이 지켜온 자존심만으로도 가치있는일이 아니겠는가 ! 왜냐하면 경제의 모든 것이 편중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굴지의 화랑들 치고 그림 팔아 모은 돈을 다른 곳에 투기 안 해 본 화랑이 없음을 나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제산 불리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땅 투기에다가 증권파위의 도박성 투자까지, 그이유로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면서 그림장사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요리조리 잔머리 굴리며 화가를 호구로 아는 화랑들보다는 화랑의 격으로 보면 훨씬 위에 있는 것이다. 지금도 며칠전 통화내용 중 몇마디의 말이 내 컷가를 맴돈다.

" 안 선생 다른 것은 몰라도 두 가지는 인정 좀 해 주소"

"첫째, 그림 팔렸을 때 계산 확실하고 그림 값 신속하게 지불하는 것,"

(상식적인 이런일조차 지켜주지 않는 화랑이 꽤 많기 때문에, 내 경험으로는 맞는 말이다.)

"둘째, 지금까지 화랑하면서 다른 일로 돈벌 수 있는 듯한 유혹이 있었지만 한눈 팔지 않고 화랑의 수익금을 온전히 화랑에 제 투자, 화랑 경영에만 충실했다는 것,"

그 말은 확실히 맞는 말이기도 하거니와 프로 화상으로서의 소중한 정신이 배어있는 말이기도 했다. 화랑이라는 곳이 그림사고 팔아 이윤 챙기는 곳만이 아님은 분명하지만 발품팔아 이루어놓은 상업화랑 1세대쯤되는 이 화랑에게 거창한 문화적 사명감이나 사회적 역할 따위를 요구하지 않고 욕심 없이 바라보노라면, 지금까지 망해먹지 않은것만으로도 참 대단하

다는 생각이 든다. 열악한 지역 환경에 있으면서도 한국 화랑史의 초입에 서서 30년 화상의 고단한 길을 한눈 팔지 않고 걸어오기가 결코 쉬운일이 아님을 웬만큼 인생을 살아본 사람 이면 알수있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 화랑을 바라 보노라면 걸 모습은 조금 지쳐 보이더라도 멀고 험한 긴 여정을 헤쳐 지나온 프로의 정신이 소중한 아름다운 가치로 빛을 발하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에 부산 시립 미술관과 박물관에 애지 중지하든 많은 소장품들을 기증하였다하니 결코 쉽지 않은 이 행동이 화랑들과 미술품 애호가들에게 귀감이 될것으로 여겨진다.

셋빨간 경보기의 추억 2004/12/14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사학재단의 꽤 부유한 학교였다.
부 자학교라 국,공립학교에 비해 환경도 좋은 편이었다.
뽕뽕머리시절 부산에서는 긴 앞머리를
허용한 유일한 학교였기 때문에 다들 부러워했었다.
2학년 겨울방학을 끝내고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 등교를 하니
교실과 복도마다 천정에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어있었다.
요즘이야 건물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그때만 해도 화재경보기
구경하기가 쉽지 않았으니 호기심이 이는것이 당연한 일이라.
동그랗고 볼록한 빨간색의 이 화재 경보기를 바라볼 때마다 울리는 소리가 어떠할지
궁금증과 끓어오르는 장난기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든 어느 날, 마음먹은 일을 행동으로 옮겨 보기로 작정을 하고
수업을 땡땡이 친 후 아무도 없는 미술 실에서
거사를 치를 시간을 기다리며 텅 빈 운동장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험직전의 절대고독을 감당하고 있었는듯 하다.
그 당시 미술 실은 본관 4층 건물 중앙 시계탑 아래에 있었는데
내려다보이는 전망이 아주 좋아서 창 밖 풍경을 수채화로 즐겨 그렸었다.
잠시 후 3m 쯤 되는 높이의 천정에 손을 단게하기 위해 작업탁자위에
두 개의 의자를 포개어 놓고 그 위에 올라서서 성냥불을 켜후
경보기를 향해 망서림 없이 불꽃을 가져갔다.
희미한 기억이긴 하지만 그 시절 내 생활 신조중의 하나가
`일 저지를 땡 망설임 없이` 였든것 같다.
순간 요란한 경보 음이 울리자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경보 음에 대한 반응과 파급효과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떠나갈 듯이 요란한 경보 음이 끝나자 아주 짧은 순간 정적이 감돌더니
문 여닫는 소리와 함께 복도를 달리는 소리, 아우성치는 소리 등
후다닥, 왁자지껄 유리창 깨지는 소리까지,
학교 전체가 마치 벌집 쭈셔 놓은듯이 난리가 난 것이다.
창 밖을 내려다보니 학생, 선생님 할것 없이 운동장을 가로질러 숲 속 대피장소로
개미떼처럼 몰려갔다. 선생님들까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이 광경을 창 밖으로 내려다보
며 미쳐 깨닫지 못했던 통쾌함까지 겹쳐져서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홀로 남겨진 텅 빈 학교건물에 신속히 조사가 진행되었고
지도부 주임선생님과 체육선생님, 교련선생님 등 나와 적대적 관계에 있던
악질? 선생님들이 미술실로 들어 닥쳤을때 너무 명료하게 남겨진 증거물 때문에
오리발을 낼 생각조차 할수가 없었다 .
생각조차 못했든 뜻밖의 흔적, 아!, 나의 실수.
경보기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을음자국과 주머니에서 나온 성냥곽의 관계없음을
그 상황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둘러대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난 현장 범으로 체포? 되어 어수선했던 복도를 지나
급우들의 환호를 뒤로한채 아무런 저항없이 교무실로 끌려갔다.
그땐 주머니에 성냥개비 한알만 들어있어도 제적당하든 시절임을 감안한다면
그 뒤에 받은 수모를 어찌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랴!
그 참혹?한 고통 속에서도 나는 나의 자존심과 체면을 지키려 노력하였다.
일테면 비명을 지른다든지, 업살을 피운다든지, 뉘우치는척 한다든지 하는
따위의 행동을 결코 하지 않았든 것이다.
내가 경험한 그 통쾌함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그 가혹행위 정도쯤이야 참아내야 하는 것이었다.
나의 기질을 유일하게 이해 해 주시던 교감선생님의 헌신적인 노력과
나의 재능이 아까 와서 차마 내쳐 버리지 못하시는 마음씨 여린 미술선생님 덕분에
가까스로 제적은 면했지만 무기정학 처분을 받고 긴 기간을
도서관에서 매일 반성문 쓰기로 소일하여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나는 지난 경험을 되살려 새로운 환경에 재빨리 적응해 나갔다.
그리곤 내 방식대로 처벌을 달게 감내하면서 행복감에 젖은 나날을 보내었다.
풍부한 종류의 장서를 보유한 도서관은 거의 완벽하게 나 혼자만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었
다. 방과후 매일 제출해야 하는 반성문은 대필의 영광을 나눠 받기 위해 기다리는
미술부 하급생들에게 맡겨두고 급우들이 감옥같은 교실에 갇혀 필사의탈출을 꿈꾸고 있을
때 나는 우아하게 도서관에 앉아서 윌리엄 골딩 이나 쇼펜하우를 읽으며
소일하면 되는 것이었다.
잘 찾아보면 야한 4류 소설도 간혹 눈에 띄었다.
너무 심심할 땐 시도 몇 편 쓰보고,
도서관 창 앞에 핀 매화꽃을 찬찬히 관찰하면서 아름다움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기도 하였다.
여유롭고 한가로운 시간의 운용을 통해서 관조와 관찰의 자세를 체득한 것이다
일찍 시작한 독립생활때문에
하루하루가 필사적인 나의 삶속에서 모처럼의 휴식 기간인 셈이었다.
입시의 사슬에 묶여 느긋한 책읽기는 꿈조차 꿀수없는 각박한 환경속에서의
문화적 여유로움은 훨씬더 달콤한 것이었고 날 우쭐하게 까 지 만들었다.
타고난 반골기질과 반항심으로 일을 저지를 때 마다
구속으로 부터의 해방, 혹은 권위주의에 도전하기 짝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일을 저질러 놓고도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있었든 것이다.
지금 돌이켜 보면 `말도 안되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런 `개똥철학이
거칠고 공격적이든 고교시절의 막가는 삶의 방식속에서도

나의 삶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방법을 조금씩이나마 깨닫게 한것 이리라.

담배연기 도넛츠의 추억 2004/12/28

아무리 힘들고 우울한 기억들 일 지라도
떠 오를 땐 아련하고 애뜻한 것이 추억 아니던가!
나의 고교시절은 호기심과 장난 끼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았고
선생님들에겐 늘 경계의 대상인 문제아였다.
그러나 그렇게 라도 하지 않으면
통제와 규율의 사슬에 묶인 갑갑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아마 돌아 버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훗날 철이 들고난 후 그때의 기억들을 떠올릴때 마다
학교라는 작고 폐쇄된 사회가,
유달리 통제를 못 견뎌하는, 개악하고 호기심많은 학생을 넓은 포용력으로
다독그리기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 생각엔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 날도 미술선생님의 호출로
교무실에서 미술 부원 몇 이서, 꽤 늦은 시간까지
수업용 차 드를 그리고 있었다.
책상에 앉아 늦게까지 일에 열중 하시든
몇몇 선생님들 마 저 퇴근하시고 나자
나의 마음은 더욱 바빠졌다.
이유는 평소 궁금했든 교장실 안을 기웃거려 볼
절호의 기회가 온 때문이었다.
처음부터 차 드 만들기에는 관심이 없고
마음은 이미 교장실 안을 더듬고 있었던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뒷걸음질로 교장실을 나오시며 이마에 진땀을 뺀
선생님들을 결눈질로 본 것만도 여러 번이었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미술 선생님께서 난감해 하는 표정으로 나오실때는
마음속으로 화가 치밀기도 하였다.
그기다 늘 굳게 닫혀있어 안을 들여다 볼 수 없는 내부가
나의 호기심과 장난끼를 자극하기엔 충분하였다.
나는 손에 들고있든 매직 팬을 놓고선 텅빈 교무실을 가로질러
망 서림 없이 교장실 문 앞으로 닥 아 갔다.
일단 심호흡을 한 뒤 문을 조심스레 안쪽으로 밀어 보았다.
문은 열려있었다.
불을 켜자 교장실의 정경이 밝아진 눈 안으로 들어왔다.
교무실의 느낌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생경함.

상상 속에 있는 교장실 내부 모습과는 달랐지만
권위를 강요하는것같은 딱딱하고 어색한,
사람을 긴장시키게하는 그 무엇을 공기속에 가득 채워 놓은듯 하였다.
한마디로 사람을 주눅들게하는 끔직한 느낌이었다.
넓직한 방의 한 쪽 벽에 길다랗게 붙어선 책장 겹 장식장 속에는
같은 종류별로 여러 권씩, 한번도 펼쳐지지 않은 듯
불박이처럼 침묵하고 있는 장서들과 우승컵이며, 상패들이 빼곡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창문을 등지고 놓인 짙은 밤색의 매우 크다란 책상과,
그 위에 놓인, 멋진 봉향이 새겨진 명패.
가족으로 만들어진 회전의자,
그땐 가족으로 된 회전의자 구경하기가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와 권위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그시절 톱 가수 최희준의 노래 제목에까지 등장할 정도였으니까....
천장에 닿을 듯이 잘 자란 아열대성 식물하며,
책상 앞에는 접대용 탁자와 소파들이 양쪽으로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책상 한 쪽 옆에는 무딘창날과 빛 바랜 금빛 레이스를
주렁주렁 메어 단 유치찬란한 색의 깃발들이
마치 어깨를 늘어터린 늙은 호위병들처럼 빼곡이 서 있었다.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서있는대도 불편한 느낌.
어쨌든 그 순간엔, 불안하고 긴장한 상태였고,
참입자로서의 이유 있는 반항심을 빨리 행동으로 보여 줘야할
처지였기 때문에 마음을 진정 시키는 것이 우선이었다.
회전의자에 몸을 마 낀 후 얼마쯤의 시간이 지난 것일까?
조금 느긋해진 마음으로
영화속의 한 장면처럼, 잔뜩 과장된 폼을 잡고서
책상 위에 두 다리를 올려놓곤 지긋이 눈을 감아 보기도 하고.
다리를 꼬고 앉은 자세로 의자를 뱅그르르 돌려보기도 하였다.
책상을 등지고 앉아
길다란 등받이 아래로 등을 활처럼 휘게 하여
몸을 더욱 깊숙이 파묻고선
짧은 다리를 겨우 창문턱에 올려놓았다.
그리곤 비로소 의식을 치루듯 경건한? 마음으로
교복 안쪽 주머니에 깊이 숨겨두었던
꽂초를 꺼내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심호흡을 하듯이 천천히 연기를 들이 마셨다.
잠시 후 동그랗게 오무린 입 밖으로 뿜겨 나와
허공을 맴돌다 사라지는 연기 도넛츠,
아! 완벽하게 창조된 하얀 연기 도넛츠.
평소에 담배를 피울 때마다 열심히 연습한
결과를 만족스런 눈으로 확인하며
까만 유리 창문을 배경으로 솟아오르는

도넛츠 만들기의 재미에 빠져 자신의 현실을 망각하고
너무 느긋하게 오랜시간을 보내버린 것이다.
문득 뒤쪽에서 나는 인기척에
"금방 나갈게!"
돌아보지도 않고 한마디를 던지곤
다시 도넛츠 만들기에 열중한다.,
한참 후 이상한 예감에 허리를 힘겹게 일으켜 세우고 뒤를 돌아보니
눈앞으로 클로즈업되는 낯익은 얼굴.
나와는 악연으로 얽혀있는 악랄하기로 유명한 생물선생님께서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얼굴만 문 안쪽으로 디밀어 넣고서 한참 동안을,
작고 반들 그리는 눈알로 나의 방자한 행동을 지켜보고 계셨든 것이다.
이일을 어찌면 좋으랴?
학생들 사이에서 눈이 쥐의 똥을 닮았다하여 쥐똥이라 불리운,
악명으로 이름이 더욱 유명한 선생님의 손아귀에 걸렸으니
이 일을 어찌면 종단 말인가!
순간 머리가 텅 비는 것처럼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천천히 닥아 오셔서 능글능글 미소를 띄운채 하신 말씀 왈,
"또... 너냐?"
그리곤 끌려나간 것 같은데
지금도 마치 기억 상실증 환자처럼
그 순간의 기억은 잘 떠오르질 않는 것이다.
아마 갑자기 들이닥친 놀람의 충격때문이라라.
그리곤 수 차례에 걸쳐 비 오는 날 먼지 휘날리도록 두들겨 맞은 후
담배 소지 만 해도 제적감의 중죄 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의외로 조용히 마무리되었다.
"이 학생이, 교장선생님의자에 앉아 두 발을 책상에 올려 놓고
세치 혀와 담배 연기의 조화로 도넛츠를 신나게 만들었심미다 , 교장선생님!" 이렇게,
어떻게 감히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가 있었겠는가!
교칙에 의한 공개적인 처벌로 나를 다스리는 것도 중요했지만
교장선생님께 처벌 사유를 차마 말씀드리지 못한 듯 했다.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절대 권위를 손상시킨 이 사건은,
`차라리, 없었던 일처럼 그냥 덮어두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든 것이다.
아니면 나를 불상히 여겨 은혜를 베푸셨는지도?!

직접 물어본 일이 없으니 할수 있는 일은 추측뿐인 것이다.
어쨌든 내가 감당해야 할 육체적인 고통은 더욱 가혹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듯, 이 사건은 저지른 자가 교칙을 통해 처벌을 받음으로서
명백한증거의 기록으로 남겨져야할 중대사안 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자에 대한 깊은 충성심으로 무장한 한 인간의 잔피 때문에
`절대 권위에 대한 저항 혹은 엇먹이기` 사건이 문서화된 증거로 남겨지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그 사건을 기억하는 몇몇 사람들과
이렇게 나의 가슴속에 만 먼지 덮힌채 묻혀 있는 것이다.

비밀의 숲 2005/02/03

중,고등학교시절 학교 가까운곳에
커다란 수원지와 깊고 울창한 전나무 숲이 있었다.
이미 오래 전 그곳엔 아파트 단지와 고급 주택가가 들어섰고
아름드리 나무들 마 저 마구 잡이로 잘라내어 저서, 이젠 옛자취를
찾을길이 없으니 그 때의 비밀스럽고 행복했던 숲속에서의 시간들은
추억의 공간속에서만 부평초처럼 떠도는 기억으로 남겨져 있다.
그땐, 그곳이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식수원 보호 구역이라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었기 때문에
간혹, 숲 속에서 마주치는 동물들조차 나를 오히려 신기해하며
구경하고 쉴 정도로 도심에 있으면서도 깊고 인적이 뜸한 곳이었다.
아침 등교시간이면 항상 학교길과 숲으로 향하는 길 중,
선택을 위한 뻔한 고민을 하였지만 발길은 늘상 숲쪽으로 향했다.
산지기의 눈을 피해 두텁게 쳐진 철조망을 넘어 들어가면
인공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수원지가 눈앞에 펼쳐졌다.
그 곳을 지나 병풍처럼 둘러선 산 속으로 접어들면
주 종이 왕 벚 나무인 숲에 애 워 쌓인,
계곡을 막아서 만든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고
호수 뒤쪽으로는 하늘을 찌를 듯 한 전나무 숲이
대낮에도 어두울 정도로 울창하였다.
이 아름다운 호숫가에 앉아서
간혹 미술반 친구들과도 어울려 그림을 그리거나
기타를 치곤 하였지만 나만의 비밀스런 자유와 비교할순 없었다.
그러니 숲 속에서는 늘 혼자였다.
그렇게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숲속 구석구석을 헤집고 다닌것이다.
중학교 3학년때 첫 유화를 시작한곳도 이곳 호숫가 였다.
손에 익숙하지 않은 재료로 며칠을 씨름하며 그려낸 화폭엔
물에 어린 호수풍경과 왕벚 나무에 꽃이 만개 해 있었다.
그후로 고등학교 시절엔 제법 많은양의 호수 풍경을 그렸었다.
인적없는 호숫가에 화폭을 펴두고 그림그리기에 몰입해있는
상기된 소년의 행복한 모습을 상상해 보라 !
호수위로 봄바람이라도 불라치면 벚꽃 잎들이 하얀 눈발처럼
혹은 나비처럼 나 풀 그리며 거울 같은 수면위로 내려앉는 모습은
정말 장관 이였다.
비 오는 날의 호수 또한 비감한 아름다움으로 가득 하였다.
수면위로 떨어지는 굵은 빗줄기와 물안개,
습기 머금은 공기와 더욱 짙은 숲의 향기,
젖은 옷 속으로 파고드는 한기 마 저 그땐 싫지 않았었다.

한번은 비바람에 휩싸여 요동치는
숲과 호수의 격정적 아름다움에 이끌리어
호수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
물이 목까지 차 오른 적도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나로선,
목숨을 담보로 종아리까지 빠지는 물 속의
진흙 밟을 헤쳐 가는 아찔한 곡예를 한 것이다.
일렁이는 검녹색의 숲과 사납게 울부짖는 비바람 소리,
귀 바로 아래까지 차 올라온 수면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까지,
절망감에 빠진 자아가
엄습해 오는 죽음의 두려움과
외로움의 고통을 맞바꿔 보려 했던 것일까?
한번쯤은 다 알아 보는 청춘의 열병이 나에겐
그렇게 힘든 통과 의례 였다.
지금도 그 열병앓이가 끝나지 않았다면 정신적 미숙아인 것일까?
호숫가를 걷다 보면
간혹은 물에 나와 햇살 쬔 남생이나 자라들이
인기척에 놀라 물 속으로 뛰어 들고
별이 따가운 여름날은
물위로 늘어진 왕 벚 나뭇가지 그늘아래
팔뚝 보다 더 큰 잉어들이 모여들어
수면위로 주둥이를 꺾으며 더위를 식혔다.
이른 아침엔 아주 드물게
물 마시러 내려온 고라니나 노루와 마주치기도 하였다.
숲속으로 들어서면 하늘을 뒤덮은 울창한 전나무 가지 사이사이로
피어오르는 안개와 그 위로 직선을 그리며 내려 앉는
아침햇살의 경이로움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는가?
그 햇살 아래에서 불쑥없는 까투리 여럿을 앞에 두고
찬란한 깃털을 뽐내며 으쓱해 있는 장끼의 늙은 자태며,
새들의 둥지를 찾아내어, 알을 품은 모습부터
밤낮으로 먹이를 물어 날으는 헌신적인 새끼사랑과,
별 탈 없이 잘 자라 날개 짓을 배우고 어미의 품을 떠나는 대견함을
바라 볼땐 괜스리 흡족하고 뿌듯한 마음에 젖어들곤 하였다.
계곡의 맑은물 속 가재잡기와 도롱뇽과 곤충들 관찰도 빼놓을수 없는 즐거움이였다.
늦 가을엔 다람쥐 집을 뒤져서 겨울 양식을 살펴보는 악동 짓도 즐거움 중의 하나였다.
목구멍 까지 차오르는 숨을 헐떡이며 가파른 언덕을 기어 오르면,
산봉우리 양지 녀엔 비석 없는 무덤이 하나 있었다.
한 겨울에는 울타리처럼 무덤주위를 빙 두른 키 작은 소나무 밭을
바람막이 삼아 무덤에 등을 기대고 누우면 그렇게 따듯할 수가 없었다.
하늘위로 지나가는 거칠게 불어대는 휘파람 같은 바람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쿿 노래를 흥을 거리다 깜박 잠이 들었다가,

아래쪽, 먼데서 가물가물 꿈결처럼 들려오는
학교 종소리나 호각소리에 놀라 잠을 깨곤 하였다.
급우들이 입시와 규율의 감옥에 갇혀 숨막혀하고 있을 시간에
그곳을 탈출하여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비밀의 숲 속을
헤메여 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나에겐 크다란 행운이었다.
그 때문에 학교에서는 댕가를 감내해야 했지만
끝내 그 일을 포기하지도, 후회하지도 않았다.
어렵사리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도
몇 년을 그 동네에서 형편에 따라 작업실을 옮겨가며
그림을 그렸고 우울한 날은 그 숲 속을 헤집고 다녔다.
그때 체험한 모든 것들이 나의 예술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요즈음도 간혹 눈을 감으면 파노라마 처럼 펼쳐지는
그 숲 속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헤메이는
그 시절의 나를 발견해 내곤 즐겨워한다.

화가의 조건 2005/04/25

자기 통제에서 풀려날 것,
호기심의 샘물을 마르게 할 것,
고독을 멀리 할 것,
교만해 질 것,
개으름에 대한 변명과 구실을 만들것,
사회적 규범속에서만 생각 할 것,
보수주의자가 될것,
빼딱하지 말 것,
쾌변, 쾌식, 쾌면 할 것,

화가의 길은, 2005/05/25

화가의 길은 구도의 길보다 더 멀고 힘들다. 구도의 길은 세속의 잡스러운 거죽들을 하나씩
벗어 던지고 자기 정화와 깨달음을 통하여 영혼의 안식이라도 얻지만 그림은 속성상 안식
따위의 낱말은 사치이고 진흙탕 같은 삶의 현장을 떠나서는 존재 할 수도 없다 이유는 현실
의 유혹과 정신적 가치 사이를 갈등하며 진흙탕 속에서 짓이겨 질 수록 피어나는 꽃이 더
아름답기 때문이다. 희열과 절망감의 사이를 끊임없이 오르내려야 하는 이 짓거리가 당사자
들에겐 지긋 지긋 하면서도 떨쳐버릴 수 없는 천형(天刑)을 겪어진 것이니 화가라는 직업은
운명적인 것 이라고 표현 함이 옳겠다. 간혹 어떤이 들은 궁핍과 외로움에 지쳐서 자존심
도 내어 던지고 안방마님들이 원하는 천박한 소통의 방식 속으로 머리 조아리고 기어들어

가 보기도 하고 국제적 검정?!을 받은 먼 나라 작가의 작품 한쪽귀통이를 비스무리하게 베껴서 자기 것 인양 슬쩍 사기를 쳐 보기도 한다 우리나라처럼 천민재력가들이 사회 상층의 구조를 이루고 사대사상이 뿌리깊은 곳에서는 오히려 그 방식이 잘 먹혀들 뿐만이 아니라 운이 좋으면 횡재한 부(富)와 명예?를 끌어 안기도 한다. 미(美)의식까지도 어디엔가 종속되어있어야 안심하면서 받아들이고 수집가들의 천박한 입맛에 맞추어 줘야만 작가대접 받으며 때론 지폐 쪼가리라도 만져 볼 수 있는 우리 사회에서 자존심 하나로 고집스럽게 자기 길만을 가는 외톨수들은 작품이 아무리 좋아도 여전히 궁핍하고 외롭다. 내 생각엔 그래도 그게 바른길이다.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내고 그들의 작품을 사회화 시켜야 할 평론가들도 국제적 추세의 틀에 잘 끼워 맞춰지는 미술이 아니면 관심도 없고 자기네들이 배우고 습득한 지식의 범위 안에서 해독이 되어지는 작품이 아닐 땐 외면해 버리고 만다 확신감과 자기신념이 없는 것이다 사지선다형 세대의 어린 부류들은 더 하다. 폭넓은 삶의 경험없이 얇은 지식만으로 무장한 경직된 의식 속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낼 혜안(慧眼)도 없고 자기성찰에도 인색하다. 지혜의 연륜이 쌓인 통찰력과 섬세함을 겸비한 사회적 역할 자로서의 중층 구조는 붕괴 된지 이미 오래이고 애써 잘못을 바로 잡을 자도 대안을 제시할 자도 없이 책임감없이 핏대세운 큰목소리들만 난무한다. 사려깊은 연륜과 독선적이지 않는 젊음의 신선함이 서로 머리를 맞대는 유기적 관계가 이루어지지못한 때문일 것이다. 미술판 까지 대중문화의 영향권 안에서 노는 것일까? 주축을 이루는 연령층이 TV코메디 프로 처럼 하향 조정된듯 이들이 무대뿐 의식을 무기삼아 휘 젖고 설쳐대는 환경 속에서 화가들 또한 소외될새라 민감하게 반응하며 빌려온 옷 속에 몸을 끼워 맞추어 보려고 허겁지급 애를 쓴다. 작품들도 상품을 찍어내듯이 규모만 뻗 켜 지 근 한 비엔날레 형의 작품들만 쏟아낸다 나 역시 어느 쪽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상황이 이러하니 아이디어만 난무하는 작품들 속에선 아무런 감동도 열정도 느껴볼 수 가 없다 이런 환경 속에서 국제적 유행에 편성하지 않고 상업주의와도 결탁하지 않은 자신만의 목소리를 가진 소수의 화가들에게는 이, 길 없는 길을 가야 하는 가혹한 현실이 너무 외롭고 힘든 것이다. 내 생각엔 올바른 의식을 가진 화가의 삶은 예나 지금이나 구도의길 보다 더 멀고 험하다. 미술계는 이런 화가들을 발굴해 내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갈채 또한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서 만이 우리미술의 가치를 공고히 할 미래와 희망이 보이기 때문이다.

나비의 추억 2005/10/05

나비가 사랑사랑 떠내려 왔서요
얼핏 보면 아무것도 아닌 듯이
나비가 사랑사랑 떠내려 갔서요

물 속에서만 놀던 나비는 문득
날개가 너무 젖어 있단 걸 깨다랴서요
이미 너무, 혹은 매우,
날개가 연약해 젖 있다는 걸 아랴서요
물의 사악한 속임수를
너무 재빨리 아랴든지

너무 늦게 깨다른 것이지요

여린 뼈만 남은 날개
그것을 가지고 딱딱한 공기 속을
해쳐 오르기엔 무리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잠시의 시간이었다지만 실은
꽤 오래 걸린 것 일 수 도 잇서요
시간의 의미는 주관적인 것이니까요
암튼 나비에겐
애시당초 물과 공기에 대해서 정보가 너무 업섯서요
왜냐면
태어난 곳이 어림 반푼어치의 헛점도 업시 정확한
물과 공기의 사이 엇거든요
그러니 시작부터 잘못 될 수 밖예요.

굼주린 피라미한 마리가 다가 왔서요
염탐꾼 처럼 콧 콧 콧 입질만 해보곤 갓서요
곧 때로 몰려 왔서요
거미줄 같이 가녀린 날개의 뼈를 물고서
상하좌우로 흔들어대도
나비는 어찌해볼 수가 업섯서요
숨털같이 날카로운 이빨들로 뼈를 바스라 터려도
나비는 어찌 해볼 수가 업섯서요
미립자 보다도 더 미세한 뼈가루가 흐트져
피라미떼의 주위를 하얗게 물 들어도
나비 스스로 움직여 보는일은 결코 업섯서요
너무 무서워서 이미 양쪽 더듬이를
태엽처럼 동그랗게 말아버린 상태엿거든요.

나비가 떠나려 갓서요
얼핏 보면 아까보다 더 아무것도 아닌듯
약간 흐릿한 물 얼룩 처럼 녹다 만 가래침 처럼
호미하게 나비가 떠나려 갓서요

한국 현대미술전 출품작품 철거요청서 2005/10/07

안녕하십니까?

나, 안 창홍은 한국 현대미술전에 출품된 본인의 작품을 철거하여 반
출한 장소로 빠른 시일 내에 정히 보내주실 것을 부산시립미술관 장 김
용대님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철거사유

한국 현대미술전 전시기획자 이상수님으로 부터 이번 전시에 출품해 줄 것을 요청 받고 출품을 승낙한 이유 속에는 기획의도에 대한 공감과 전시될 작품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기 때문이며 여러 차례의 전화 통화와 작업실에서의 만남으로 출품작들을 신중히 선정하였나 님의 도를 넘는 월권적인 간섭으로 인하여 전시기획자가 계획한 본래의 뜻에 어긋난 전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한국 현대미술전에 출품을 승낙한 이유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그 사유가 전적으로 님에게 있는바 원래는 전시기획자에게 철거요청서를 보내는 것이 바른 일이나 부득이 님에게 보낼 수밖에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끝으로 님이 본인에게 저지른 무례한 행동은 어떠한 형태로든 본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하고 공식적인 사과 또한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5.10.7 안창홍 드림

위의 내용은 어제(0월11일)단월면 우체국에서 약간의 절차를 거쳐 거금 4800원의 배달비를 물고 내용증명우편물로 김용대관장에게 보내어졌다.

오늘(10월 12일 오후3시경) 부산 시립미술관의 L씨가 전화를 걸어왔다. "샘예! 관장님이 그때 개막식날 오늘은 복잡하니 다음날 못건 그림들 걸자고 했다면서예?" 이런 씨발놈이 학예연구사 불러 놓고 또 거짓말을 해 된것이다.내가 몇몇 그림을 걸지않은 이유를 물었을때 인쌍곽 쓰면서" 아니 그런것을 왜 내한테 물어요 학예사(아랫것)한테 물어야지" 학예연구원을 툼마니처럼 말하더니 당장 들킬 거짓말을 해대는것을 보니 급하긴 급했든 모양이다.빙신! 내가 보낸 내용증명서를 받아 보고 순식간에 꼬리를 내린것이다."샘이 원하면 처음 계획한대로 그림을 걸이라 카는데 우짜까예?, 그라고 그날일은 뭔가 오해가 있었든것 같다며 제 보고 잘 처리하가 카는데예?" 이런 씨발놈이 또 가증스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것이다.맘 같아선 몽땅 싸들고 오고싶지만 부산사람들에게서 명화 감상의 기회마저 빼앗아 버릴수는 없는 것이다.

난 그런놈들의 속성을 너무 잘 안다. 상대방 우습게 깔보고 함부로 하다가 상대가 자기보다 강하게 느껴지면 언제 그랬냐는듯 한없이 꼬리내f리는.."그림은 처음 L씨 계획대로 다시 걸고 관장실수는 관여하지마소, 관장 이 나에게 사과 하기는 이미 너무 시간이 지났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게 있으니까 ! 알겠지요?'왜냐면 그날의 사건을 부산일보에 한달에 한번씩 내 글을 올리는 칼럼란의 원고로 준비 되어

저 있기 때문이다. 사과 받고 나면 애써 적은 그 원고는 우짜라고!

내가"야이 씨발노마!"라고 세번 외친 까닭. 2005/10/15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8월초 어느 날 부산의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원 L씨에게서 한통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에 저희 미술관에서 APEC 기념 축하 행사로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 출품의사를 타진해 볼라고 연락을 드렸심더”

“무슨 전신데? 출품 작가가 누구 누구고?”

“ 아? 예! 샘하고, 박고석,유영국,하인두씨인데 하인두씨는 우째 될지 아직 결정 못했심더”

“언제 부더고?”

“9월28일부터 임미더!”

“날짜가 와이리 촉박하노? 내년 초 개인전도 있고 해서 바빠서 않되겠다”

“샘 예! 갑자기 기획된 전시라 그러니 이해 좀 해 주이소, 그라고 기획 성격상 옛날 작품들만으로 전시 할 꺼니까 작품없어 못낸다는 핑계대지 마시고 이번만은 좀 내주이소!”

몇 해전 두어번의 전시를 거절한 미안함도 있는데다 구작들로만 전시한다니, 거기다 팔려나간 그림은 소장처만 알려주면 다 알아서 빌려 오겠다고 하니 거절할 명분이 없어 잠시 망설였지요

”계획 좀 미리 해놓고 작가들에게 일찍 연락을 하마 어디 덧 나냐? 늘 허급지급, 작가들에게도 숨 돌릴 시간 좀 주라 이 말이다 알젠나?”

몇 안 되는 인력으로 큰 덩치의 미술관 일들을 이끌어 나가는 학예 연구사들의 고생스러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못 대먹은 성격상 괜히 몇마디 찢러 준 것이지요.

“근데 현존 작가는 나 혼자뿐이고 모두 작고 작가들이네?”

“전시방향 때문에 그리 됐심더!”

“전시의도는 뭐꼬?”

“예@#\$\$^&*^%\$ 임미더!”

“음! 그래, 나쁘지 았쿠만, 참여하께””

.“곧 전시 요청서에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 드리끼예”

“오냐,, 빨리 보내주라”

그 후 출품작들의 결정을 위해 여러 차례의 연락을 주고 받는 동안 출품작가들이 두 배로 늘어났고 처음 계획의 의미가 희석되는 것 같아서 계획이 변경된 이유를 묻자

“관장님의 간섭 때문에 너무 힘이 든다”며 자신에게 처한 고충을 우회적으로 표현해 왔지요.

난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런 관료주의의 구태가 아직도 공공미술관에 존

재한다는 사실이 너무 한심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염려스럽기도 하였습니다. 왜냐면 다른 곳도 아닌 자유와 창의성이 존중 되어야 할 미술관에서 학예 연구사들이 주관하는 전시 기획에 자율성이 보장 되지 않는다면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전시는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관람자인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 너무나 뻔한 일 아니까요.

사실 화랑도 아닌 시민의 혈세로 꾸려 나가는 공공 미술관일 경우엔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이지요. 시립미술관이 대외적으로 부산 미술의 얼굴 마담역할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기도하고요.

관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알 순 없지만 관장은 수평적 사고로 실무진들의 창의적 기획을 격려하고 정신적 후원을 해야 하는 것이지 권위의식으로 짓누르며 간섭하고 학예연구사들을 마치 뜯 마니 다루듯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암튼 애초의 성격이 탈색 되어버린 전시라 참여하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지요 늘 좋은 전시를 치르고 싶은 것이 작가의 욕심이니까요 그런데 기획자의 전시에 대한 애착과 정성을 저버릴 수가 없어 마음을 돌려 먹었지요.

며칠 후 전시할 작품들은 운반 되어 갔고 나도 개막식에 참여할 겸 고향 바다보고 싶은 마음에 평소 가까이 지내는 불뚱과 희석,두사람을 바다 보러 가자고 꼬드겨 부산 행 열차에 함께 몸을 실었습니다. 싱싱한 회가 있어도 술잔을 서로 부딪혀야 맛이 나는 법이니까요 마음 선한 두사람이 선배의 청을 거절못해 따라나선거지요.

열차 안에서 우리는 여행으로 들뜬 마음을 약간의 낯설로 더욱 불을 지폈지요 그리곤 이야기의 꽃을 피웠답니다.이번 전시이야기를 하다가 불뚱이 나보고 거물급들과 같이 전시를 하니 그 자체만 해도 고무될만 하다고 말했어요. 난 가만히 듣고 있었지요 사실 거물인지 거머린진 나에겐 관심 밖의 일이지만 남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자연스레 이야기 주제의 방향이 바뀌면서 홍대와 거머리들의 계보를 쭉욱 사실감 있게 이야기 했어요 불뚱 답게 치밀하고 친절하게朴 머시기가 어떻고 누 머시기가 어떻고 누 머시기는 목소리가 너무 크고 우렁차서 짜장면 배달부가 배달 왔다가 “누구냐?”는 목소리에 놀라 철 가방을 떨어터리고 어찌고 저찌고 대학시절 혹은 오며 가며 바라본 거물들의 일거수 일 투족을 세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지요. 또 거물급 후계자 키우기랑 그기에 얹힌 에피소드랑 거물들의 자격조건 등을 쥼나게 이야기 해줬어요

난 가만히 들으며 생각했지요. 쓰발! 난 일단 거물 되기는 걸룻구냥, 2m에서 좀 모지래는 160cm 키에서 밀리고, 몸통에 비해서 머리가 너무 크서 앓대고, 배도 볼록하고, 목소리에는 칼잇쓰마?가 업꼬. ...강 건너

불구경 같았지만 이야기 자체는 흥미로웠어요.

사실 난 거물급들의 위력을 전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조직에 있어 본적 업꼬 대학에 당기본적 없고 오오까미(외로운 늑대)라고 일본말 잘하는 친구가 붙여준 별명처럼 늘 혼자 노는 체질인데다가 불편해서 어깨와 목에 힘 못 주는 천성이라 그딴 것에는 아예 관심조차 없었거든요 투수는 공잘 던지면 되고 엿장수는 엿 잘 팔면 되고 씹쟁이는 씹질 잘하면 되고 씹쟁이는 맛짱 잘뜨면 되고 화가는 그림 잘 그리면 땡이라는 지론을 변함없이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물급과 좋은 화가의 연관관계가 어떤 것인지 쉽게 밀착되어서 와 단지를 안거든요 그러니 불똥이 말한 거물급과 전시하는 자체 만으로도 고무될 만 하다지만 난 고무될일이 없는거지요 내가 고무되는 조건은 좋은작가와 전시하는것뿐이거등요. 그런데 내 머리로 그 쪽 거물들의 그림들을 아직도 잘 모르겠거든요.그래도 내속 표현은 앓고 듣기만 했지요, 어찌나 이야길 실감나고 마싯게 하는지 입 열면 수습불능인 채씨도 멀둥 멀둥 듣고 있었어요 호시탐탐 입 열 기회를 노리면서요. 그러는 사이 열차는 부산에 도착한 것이지요. 역 플랫폼에서 바로 보이는 항구를 바라보며 일제히야! 하고 탄성을 질렀어요.갯내음도 밀려오는 듯 했어요

전시장에 들어서니 조명마저 어두운 방에 몇몇 중요한 작품들이 빠져있고 마치 걸다만 듯 썰렁한 분위기에 놀라 L씨에게 영문을 따져 물으니 자신이 계획대로 걸어놓은 그림들을 관장이 몇 번이나 자신의 의지대로 빼어내고 몇몇 그림을 걸지 못하게 하고 위치까지 바꿔 버렸다는 것이있었어요 작가 입장에선 아연 실색 할 수 밖에요. 전시기획자의 면밀한 계획을 통해 보여지는 한 작가의 작품 세계를 고의적으로 망치고 싶지 않은 답에야 어찌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어요. 관장의 무지함에서 비롯된 일이든, 어떤 목적을 가진 사심에 의해 행해진 일이든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일인 것이지요. 학예연구사 L씨의 입장도 있고 해서 내가 직접 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마음으로 기다렸지요

불똥은 농담인지 진담인지 우리 셋이서 관장뒤로 닥아가 일제히 오줌을 갈기자는 제안을 해 왔어요 사실 그러고 싶기도 했지만 자칫하면 경솔한 행동을 후회해야할 수도 있기때문에 그일은 실행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상황으론 무언가 단정 내리기엔 불확실한 상태였거든요.

개막식 시간이 되자 식당에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고 마이크 실험도 막 끝난 상태였지요.식이 시작되기 직전, 마치 느린 동영상을 보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게슴츠레 뜯 실눈으로 주위를 둘러 보면서 입가에 잔잔한 웃음까지 머금고서, 아주 아주 천천히, 치질수술을 막 끝낸 환자처럼 느린 걸음으로 관장이 등장하였어요. 난 생각해 보았지요. 요즘도 저런 얼빠한 품에 감동 먹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요. 그 생각도 잠시, 내가 뜻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느리디 느린 걸음의

앞을 가로막았지요.

순간 뜻밖의 방해자 땀에 품이 구겨졌는지 걸음을 멈칫하며 양미간이 지프리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좀더 가까이서 말하기위해 한쪽 손으로 그의 등을 내 쪽으로 당겨 안으며 재빨리 이야기했지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중요한 그림이 몇점 빠졌던데 우째된 일임니까?”

나 보다 나이가 몇살 아래긴 하지만 자기 땀엔 높은 벼슬?한다고 걸음 걸이까지 거들먹되니 인정하고 깍듯한 존칭으로 대할 수 밖에요.

“그런걸 왜 내한테 물어요 학예 사한테 이야길 하시잖고……”불쾌한 듯 콧김 빠지는 소리가 거칠게 들리긴 했지만 난 못들은 척 했어요. 미안해 할까바서요, 세심한 배려를 한 것이지요. 감정의 평정을 찾으려는 듯 목소리 차분했어요. 빨리 이 거머리를 떨쳐 버리고 싶은 마음이 얼굴에도 내 비쳤어요.

"아니 니가 내 그림 다 땀으니 니 한테 이야기해야지 누구한테 하꼬?"

이렇게 맞받아 치는 것이 정상이었으나 난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귀 가까이 입을 갔다 대고 아무래도 관장님이 떼어낸 그림들을 원위치 시켜야 되겠노라고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이야기했지요.

그러자 김 팍 샌 얼굴로 재빨리 날 피해 저만큼 걸어갔어요 거기서 부턴 다시 중증 치질환자 같은 걸음걸이로 아주 아주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사람들의 벽이 갈라지고 길이 뚫렸어요.마술처럼요.

내 눈엔 관장의 그런 행동들이 너무 유치 찬란하게 보였지만 어찌해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타인의 취향을 난들 어찌했어요, 심지어는 실무진이 담당해야 할 작가들의 숙소를 관장 임의로 정해놓고 오야붕? 작가들 모시고 먼저 떠나버리는 바람에 뒤에 학예연구사 L 씨가 가까스로 숙소를 알아내어 우리 일행을 안내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답니다. 제법 많은 전시를 경험해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보았지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관장의 행태가 수습될만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관장의 파행적 꼴은 멈출줄 몰랐든것이지요

호텔 입구에서 마주친 관장이 악수를 청해오며 객실번호를 알고 있으니 나중에 놀러 오겠다는 관례적인 인사말을 남기곤 오야붕 혹은 거물급 작가들을 모시고 자신은 정확히 두 걸음 반 뒤에 물러서서 결코 앞으로 나서는 법 없이 앞쪽, 거물급 혹은 원로작가의 보폭에 맞추어 중절모에 하얀 바바리자락 휘날리며 총총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상전을 제대로 모실 줄 아는 모범된 자세와 인내심을 나는 인상 깊게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근데 왜 인내심이나고요? 생각들 해 보세요, 그날의 부산 기온이 무척 더웠거든요. 근데 양복에다, 룡 바바리에다, 중절모 까지 쓰고서, 미술관의 뜨거운 조명등아래서도 그랬고 이곳 호

텔 앞에서도 흐트르짐없는 자세를 보며 안내심이 남달리 출중?할 것이라는 생각은 쉽게 떠 올려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아주 천천히 걷는 것에 대한 이유도 생각해 보았지요. 혹시 더위 때문이 아닐까 하고요, 빨리 걸으면 땀이 쏟아질까바서요.

물끄러미 사라져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든 우리 일행들은 바닷가 방파제에 앉아 동심에 젖어 별과 파도와 갯내음속으로 노랫소리를 멀리 멀리 띄워 보냈지요.

테너 채의 동심초는 감동적이었습니다. 넘실대는 검은 파도를 타고 퍼져가는 노랫소리에 잠깐 갈매기도 가슴을 벌렁거리고, 멍게, 해삼, 말미잘,꼬시래기까지, 심지어는 살 오른 전어수컷들이 이 로맨틱한 목소리에 감동 먹고 하얀 정액들을 쏟아내었지요 아마.

우리는 점점 달아오르는 흥을 주체할 길이 없어 호텔 2층 노래방으로 무대를 옮겨 창 밖으로 보이는 검은 바다를 등지고서 오직 티비 화면속 가사읽기와 노래 부르기에만 열중했습니다.

우 이 씨! 화가들은 노래까지 왜 다들 너무 잘 부르는 걸까요?

카수 박도 마이크를 기도하듯 두 손으로 움켜쥐고서 상체를 아래위로 흔들흔들 흔들며 , 발 한쪽을 톡톡! 신중하게 박자를 맞추며 이름처럼 뜨겁게 불렀지요,똥또르똥똥!!!

나역시 부르고 부르고 또 불렀지요. 분위기에 취해 목청껏 노래 부르는 사이 시간은 썰물처럼 흘러갔고 피로한 몸을 뉘러 불루비치의 프런트 데스크에서 객실 열쇠를 달라하니 아니 글썄 방이 취소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에이, 이사람 농담하나! 했더니 진짜래요, 착오겠거니 생각하고 정황을 물어보니 중절모에 흰 바바리맨이 카드로 숙박비를 계산했는데 다시 돌아 와서 현금으로 바꿔 지불하며 우리들의 방을 취소 했다는 것이었어요.

술취한 머리론 영문을 알 수 없어 갑갑했는데 관찰력, 수사력, 집중력 모두 뛰어난 우리의 불똥씨는 불똥 튀는 예리함으로 프런트의 하얀와 이스처 사나이와 몇마디 주고 받고 확인 하더니 정황을 순식간에 짐작하는 듯 했어요.

그랬으니까 내가 관장과 통화하기 직전 “형 절대 욕은 하지마소”라고 몇번이나 당부 했겠지요,

나도 화가 나긴 했지만 그 말하는 영문을 참엔 몰랐거든요.

어렵사리 관장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전화를 걸었지요

잠들 갓 저음의 관장목소리가 천천히 수화가로 흘러나왔어요

“여보세요 나, 안장홍인데 느즈시간에 죄송한데요 우리 방이 없어졌어요 관장님이 취소 시켰다면서요, 우째된 일입니까?”

“난...모르는 일 입니다, 아까 계산 다하고 끝이에요” 웬 끝?!

“프런트에서는 중절모에 흰 바바리 입은 분이 취소 시켰다는데 관장님 말고 누구니까?”

끌어 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공손해 지려고 아랫도리에 힘을 주니 똥꼬가 다 땡겼지만 꾸욱 참았어요 정말 똥꼬가 땡겼어요. 그래도 정말 참았어요.

이놈의 지랄 같은 성격 때문에 낭패 본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난... 모르는 일이고요, 그 때문에 잠 깨우려고 이 깊은 밤에 전화했어요?”

다시 저음으로 천천히 들려오는 이 목소리가 너무 야속했어요
아니 아무리 늦은 밤에 잠을 깨웠기로서니 졸지에 잠 잘곳을 잃은 초대 손님에게관장이 할 소리가 아니었거든요.

당연히,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으니 확인해 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노라고,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이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갑자기 뿔파구가 치솟으며 도저히 참을수가 없었어요.

순간적으로 아찔해 지는 것이

머리 속에서 굉음이 일어나며 분통이 입으로 확 터져 나와뿌러서요

“야이 씨발노마!”

“이말 녹음합니다”

“그래, 녹음해라 씨발노마”

“전화 끊습니다’

"끊어라 씨발노마”

그리고 전화가 딸깍 끊겼지요

그 순간 비로소 설마 하든 관장의 유치 찬란한 음모를 알아챈 것이지요,

김용대의 짓거리 때문에 박 불똥씨와 채희석씨에겐 얼굴 조차 들수없는 부끄러움이 밀려왔지요.

다음날 이 기막힌 사연을 전해 들은 L씨가 송구스러워 몸돌바를 몰라하며 마침 휴일이라 관장에게 전화로 자초지종을 따져 물으니 참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 때다가 나중엔 “내돈주고 내 맘대로 하는데 왜 말이 많냐”며 밥 먹고 있으니 전화 끊겠다며 통화가 딸깍 끊겼답니다.

지금도 정말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관장한테 절대 잊지 못할 만큼 지독한 욕을 못해준 것이지요. 일 테면 야이 씹도 못할 노마!,아이 고자새끼야!,야이 좆도 안 서는 노마! 따위의 욕들 말입니다.

잠자고 쳐먹으며 자신의 둔한 몸뚱어리 보양하며 챙기고 있는 사이에

필요에 의해 초대 받고도 밖으로 내몰린 한 화가의 자존심이 여지없이 짓밟히고 부산의 문화체면 또한 땅바닥에 쳐 박히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공공미술관의 대표님께서 공적인 전시에 초대 받은 작가에게 취해야 할 적절한 언행이었을까요? 조 폭 두목 모시는 뜰마니처럼 자신이 모셔야 할 작가의 똥꼬엔 맨대加里 디밀며 굽실거리고 자기 취향에 맞지 않는 작가라고 공적 책임과 의무도 잊은 채 고의적으로 무시하려고 더는 이런 저급한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후 아무런 해명도 사과도 없는, 기본적인 상식조차 갖추지 못한 이런 사람을 부산을 대표하는 미술관의 장으로 그냥 뒀도 괜찮은 것일까요?

지금껏 나는 화가의 긍지만으로 살아온 대한민국의 몇 안 되는 전업화가입니다.

오직 한길, 화가로서의 자존심만으로 내 삶을 꾸려온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생각들 해 보세요. 사회적 지명도가 구축된 화가가 이런 꼴을 당했다면 신념 하나만으로 외롭게 악전 고투하는 무명의 후배 화가들이 이런 인간들로부터 당해야 할 수모를 한번 짐작해 보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더욱 묵과할 수 없는 것이지요.

나의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일이기도 한 것이니까요.

고작 3~5년의 임용직으로 그것도 우리 세금으로 월급받는 나부랭이가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 내야 할 예술을 위해 가시밭 길 조차

마다 앓는 전업 화가에게 경의는 못 표할 지언정 감히 그렇게 하고도 무사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어디 모자라지 않고서야 가능한 일 이겠습니까?

지금은 김용대의 무지와 폭력에 대한 죄값을 어떤 방식으로 치르게 해야 할지 생각중입니다.

화가가 없다면 미술관과 관장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니까요

다시 보내는 한국 현대 미술전 출품 작품 철거 요청서 2005/10/17

안녕하십니까?

본인, 안창홍은 한국현대 미술전에 출품된 본인 작품을 철거하여 본래의 반출장소로 정히 보내주시고 님이 저지른 무례한 행동을 어떠한 형태로든 본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하고 사과하라는 요구를(2005년 10월 7일 띄워 보낸 내용 증명서) 정중히 하였으나

11일이 지난 지금(10월 18일)까지 묵묵부답인 것은 님이, 자신이 저지른 과렴치한 잘못을 반성치 않고 있거나 얄잡아 보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으므로 본인은 손상된 자존심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설령 여론에 밀려 억지 사과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과로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결코 받아 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님의 고의성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훼손 된 전시방식과 지성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무례하기 짝이 없이 저급한 행동으로 저지른 님의 태러에 가해를 당한 심적 상태로는 님의 통제하에 있는 부산 시립 미술관에 나의 소중한 작품을 전시한다는 것 자체가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이 느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단순히 개인에게 행해진 가해가 아니라 그날 같이 동행했던 동료들(박 불뚱, 채 희석)에게 까지 지울 수 없는 모욕을 준 것으로 보아 대한민국 전업화가들 전체에 가한 테러로 확대 해석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때문에 거듭, 본인의 작품을 철거 후 반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오니님께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가지고 계시다면 파렴치한 오리발 내기와 침묵으로 사태를 피해가려 하지 마시고

본인과 관계없이 잘못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증명을 읽어봄과 동시에 본래의 반출 장소로 신속히 나의 소중한 작품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철거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통보가 지켜지지 않을 시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불상사에 대한 책임도 김용대씨 본인이 저야 마땅할 것입니다.

2005, 10,17 안창홍.

받는 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13 시립미술관 관장 김용대.

보내는 이: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삼가리 49 안창홍.

*2005,10,17일 보낸 내용증명서에 기입된 작품 반출 날짜가 오기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기된 `반출일 10월 15일까지`를 `내용증명을 읽는 동시에`로 고침.

이참에, 할말좀 함씨다! 2005/10/19

불뚱 ! 고마버!

사실 난, 살아온 경험에 이 싸움을 시작하면 외로운 싸움이 될 거라고 애초부터 생각 했었거든. 나 홀로의 싸움이 되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한 것이거든.그래서 처음엔 갈등하며 망서렸든 것이지.

모든걸 거의 혼자서 해결해 왔지만,이번만은 도움이 필요한 싸움이니까.

남들은 지나가는 말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있냐고 쉽게들 말할진 모르겠으나 미술 판의 생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이 승산이 있을 것인지 아닌지 가늠해보는데 시간이 좀 걸렸든거지.

여자 들이 하는 생리야 생산을 위한 월례행사로 정직하게 찾아 오는거
지만 미술관의 생리는 시시때때로 변화 무쌍 허잔은가. 술집, 난상 토
론 장에서야 옳은일이라면 입에 침튀기며 난리들을 쳐 대 다가도, 막
상 일이 터지면 아래 위,사방 좌우, 왔다 갔다 눈치 보며, 의협심이고,
정의고, 정도고, 나발이고, 모든 것이 손익관계, 수지타산으로 다 귀결
되니까!. 안그런감?

정의감에 두팔 걷어 부치고 싸움 시작했다가 나중엔 가까운 사람들 마
져 어정쩡 발을 디밀까 말까 망설이다가 핫바지에 방귀 새듯 슬그머니
언제 그런 일이 기나 했냐는 듯 빠져나가 버리면, 나만 존나게 피 흘리
며 사생결단으로 박치기 하다가 그냥 나자빠 지는 것이지. 그리고 막
내리는 것이지.이번 일은 홀로 응징하기에는 좀 버겁다는걸 잘 알고
있잖아.그렇다고 그게 가치없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외롭잔은
가! 이런일에서 까지 외로워지면 너무 힘이 들거등.그라고 이왕에 싸우
는거 승리하면 조차나.

가령 내가 배경 좋고 탱실뽕뽕하고 뭔가 나중에 돌아올게 생기겠다 시
퍼면 지금같이 시큰둥,모른척들 하지는 않겠지. 순식간에 정의가 살아
나고 명분이 살아나고, 여론이 일고, 바빠 바빠 뭔가가 돌아가기 시작
하면서 문화 권력 타도를 외치면서, 서로 힘을 합쳐서 없는일도 땀글
어 뒤집어 씌우고, 보무도 당당하게 두주먹 불끈쥐고, 나가자 앞으로!
뭐 이러케 되겠지.근데 난, 화가인 것 외에 그런 쪽으론 개털 이자나! 전
리품 나눠 줄게 있어야지 원! 일반인들 생각처럼 미술관이 꾸정 물 넘치
는 사회와 다르게 특별히 맑고, 순수하지는 았타! 이 말씀이지.

생각을 해 보라고, 이노브 사회는 화가로서의 자긍심과 열정 하나로
쫓 빠지게 열씨미 그려대는 전업화가보다 겸업하는 화가를 더 쳐주
는 곳이 아닌감! 그러니 사회 정서상 그런 혜택 받고 사는 뽕뽕한 사람
들이야 절 때로 이런 일 당할 리 업서니 강건너 불구경이고, 남는 건 실
력이 있어도 사회 정서상 뽕뽕하지 못한 전업화가와, 겸업해도 혜택 받
는 급수에서 밀려난 힘없고 삶에 지친 화가들이 다수이니 목소리 죽이
고 이리저리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처지라 마음은 꿀 떡 같아도 못 나
서고 시간을 못내는 것이지.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어찌겠나!.사람 차별
하는 우리 사회정서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고 하는 문제는 답에 시간
날적에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고, 암튼,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
들 충분히 이해 한다고, 난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다고, 과부 맘 홀아비
가 아는 것이니까!

뽕뽕 하게 잘 나가는 겸업 화가는 오히려 나 같은 전업 화가가 불편할
수도 있겠지. 왜냐면 다들 머리 좋으니까. 한때는 누릴 수 있으나 먼
미래의 서로를 내다보면 뭔가 심기가 뒤틀리는 게 있을 테지.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눈
에 보이는 현실이 그렇다는 이야기지. 그래도 우리 사회가 건강해 질려
든 그래서는 았되는거지. 이럴 땐 뽕뽕 하고 능력조차 넘쳐 나면서 우

리 곁에 있는, 다소 어정쩡하긴 해도 동지 비스무리하게 느껴지는, 또 다른 문화권력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좀 거들어 줘야지. 술집에서 풀린 눈으로 골백번 문화 권력타도를 외치든 뭐하나! 누리는 혜택에 상체가 좀 나더라도 조금은 동조해 줘야지, 서로 같이 가는 인생인데 동지는 못 대더라도 평소 안면 봐서라도 이런 화가도 자존심 좀 지키고 살도록 협조 좀 해줘야지. 펜 칼 휘두르는 날카로운 문장가도 너무 손익 계산 따지지 말고, 옳은 일이니까 좀 거들어 줘야지, 현실적 빵빵이들과 쫓 빠지게 성실해도 사회 구조상 균등한 페어 플레이가 안되는, 현실적 사지가 잘린 전업화가가 이렇게 여론의 힘이 필요할 땐 힘들음을 좀 보태줘야 외간상 보기라도 좋지. 안 그런강?! 그라고 조금은 공평해지는것 아닌강?!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현실 자체가 그러치 못하니 어쩔것나. 대한민국에 내 가튼 전업화가가 몇명이나 된다고! 주절대다 보니 너무 멀리 꺼정 와 부렸네, 지금까지 이야그는 괜히 해본 소리니 다들 이자뽀소. 다른소리 한번 씨부리 볼라고 지금꺼정 투정 한번 부리 본 것잉께 퍼뜩 이자뽀소!

사실, 내 주위에는 제자들에게 존경받고 작업까지 좋은 친구들이 대부분 이거등. 식당일 열시미 하면서 작업하는 후배도 있고, 그 이름도 유명한 목수 겸업화가 김 을도 있꼬, 택시 운전하며 작업하는 사진가도 있꼬, 농사와 겸업하는 화가도 있을게 전업이든 겸업이든 직업의 구분이 중요한거는 아니거든요. 중요한것은 좋은 작업을 생산해 내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지요. 그라고 `빵빵하다`, `잘나간다`라는 말이 화가로서의 능력과 정신적인 것이 우위에 있다는 말은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두요. 또한가지 내가 전업 작가입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것이 아님도 분명 밝혀두요. 이 문제는 미술인 대다수의 일이자나요. 그러니 이왕지사 시작한거 이번 기회에 힘을 합쳐서 경각심 이라도 알려주자 이말이지요. 국공립 미술관이 문화 권력으로 화가들의 위에서 군림하는것이 아니라 서비스 정신으로 다정하게 화가들의 곁에 있어야 된다는걸 가르쳐주자는 이야기지요.

썰매 엮는 소리 지껄이다가 주제를 휘익 빼겨 갔꾸만. 다시 처음 시작으로 돌아가면 나는 그래서 이번 싸움을 시작해야 할지 말아야 할찌를 며칠 동안을 고민했다 이말이지. 일단 싸움을 시작되고 손상된 자존심 찾으려든 많은 시간을, 어금니 악물고 독기와 오기로 버텨 내야 하는데 쓰발! 코앞에 닥친 개인전이 문제이거든. 그림 못 팔면 입에 거미줄 쳐야 하는 직업이라, 개인전 망치면 내 술값하고 우리 가족의 생계비가 황이거든. 더 중요한 것은 그림에 존심 걸은 화가가 좋은 그림이 없어 개인전을 망치면 대처

할 명예가 없으니 더욱 고민이 될 수밖에.

정의감이고 나발이고, 짓밟힌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문화권력의 횡포를 바로잡고 나발이고, 민생고 보다 더 고결할 순 없고, 화가로서의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으니까! 그렇다고 정의로운 삶이 중요치 않다는것은 절때로 아니고 ...우쭐든,그래서 한없이 갈등을 때리고 있었지. 사실 이것은 핑계고 한 순간 나 자신도 모르게 나약한 인간이 되어있었던 것이지 부끄러운 일이지.체대로 살지 못하든 화가가 무슨 소용이 있간디

화가이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뭔가를 잠시 잊어뻘것이지.

근데 추운 겨울날 손 난로처럼, 엄동설한에 따뜻한 물 한 방울처럼 용기와 신뢰의 느낌으로 뭔가가 몽클하게 나에게로 다가오는 게 있었지. 그것이 내 속에서 느껴졌지.

사실 난, 너무 어린 나이에 스스로 정글속으로 들어갔고, 그 속에서 생존을 위한 더러운 법칙을 너무 일찍 보았기 때문에 외로운 늑대처럼 먹이를 찾아서 그 속을 해 매이면서도,오염되지 안으려고 무진 애를 썼거든. 오염되기에는 자아와 자존심이 너무 강했었거든.

그때문에 일찍부터 애 어른이 되어 현실적인 뽕뽕함의 기초 다지기마저도 거부한 것이거등.

오직 화가로서만의 긍지와 자존에 매어 달려 정글을 홀로 헤쳐 나온 것이지, 앞으로도 가야할 것이고.

그 때문에 오래전 부터 굶은 사포처럼 강박해진 가슴을 안고 살았지. 근데 강박한 내 가슴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뭔가가 닥아 온 것이지. 아니 나도 모르게 벌써부터 다가와 있었든 거지.

나의 결심에 힘을 실어주기위한 말 한마디 “ 형!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면 절대로 않되웁!”

그 뒷말은 없었지만 내 골통 속을 꿰뚫어 보는 듯이, 마치 “결에 내가 있잖아요!”하는 것 같았거든. “형은 혼자가 아니예요” 하는것 같았거든. 지 자신도 해결해야 할 것들이 무지 많을텐데,

친구,불똥의 바둑알같이 까맣고 동그란 눈 동자를 보면서 신뢰의 몽클함과 동지애의 따뜻함을

우리집 바둑이들에게서 미약하게나마 느껴본것 외엔 참으로 오랜만에, 사람에게서 느껴 보는 것이었거든..”형! 이 일은 형 개인의 일이 아니라 우리 미술인 전체의 일이요!”

“암 알지 알아! 꾸물대서 미안허이”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속으로만 중얼뵈쥘.

허풍선 천군 만마 있으면 뭐하나.그것으로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믿음의 힘!

난 속으로 그래 해보자! 못된 놈 호통쳐서 버러장머리 고쳐 놓차! 이렇게 외친 것이지.

그날은 참으로 오랜만에 강박해진 가슴이 온기의 따스함에 젖어 드는 날이었지,

삶의 가치는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으로 가기위한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삶의 긴 여정 속에서 힘이 들어 갈등하며 한 부분을 없었던일 처럼 건너 뛰고 싶을 때
“건너뛰면 안돼! 힘들면 내 손을 잡아! 놓치면 안돼! 미안해도 절 때 노치지마!, 알겠제!”
눈빛 만으로도 전해져 오는 이 말들.
난 이번 일로 응징의 결과 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은 것이지. 그것도 공짜로!!! 불똥 ! 고마버!

김용대의 답변서를 읽고. 2005/10/22

님의 답변서를 읽으면서 참 한심하던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인가 하고요. 요즈음 초등학생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해도 이렇게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린 학생 같으면 몇 차례의 꿀밤이라도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본인이 처음 보낸 내용증명서 속엔 해명과 사과의 기회를 충분히 주었었지요.
그러나 묵묵 부답. 백 번 양보하여 뒤 늦게나마 님의 사과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니지요.
뻔한 거짓말들로 일관해오다 들끓는 여론에 밀려 반성 없는 사과 몇 마디로 위기를 모면해보려는 기회주의 적이고 비겁한 님의 수작에 연민이 일 지경입니다.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답변서 내용을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한가지, “조금 더 신중하게 처리하려 했던 의도가 오히려 답신이 늦어지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하! 웬 우? 님은 병적인 권위 욕으로 진실과 정의를 깔보는 우를 범한 것입니다. 답변이 늦어진 이유 또한 대충 민 기적 그리며 넘어가 보려 한 수작 때문이겠지요.
사실, 지금까지 뻔뻔스런 거짓말로 버텨 온 것처럼, 님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직시하면서도 무시해 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님은 정말 구제불능인 듯 합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공공미술 관의 장이 미술관의 공적 행사에 초대 받은 손님에게 저급한 사적 감정을 노출시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혀 놓고도 뻔한 거짓말로 일관 해 오다가 알량한 사과문 몇 줄로 대충 넘어가려 해서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님의 의식 속엔 내가 누구인데! 문화권력자인 자신이 이까짓 화가 나부랭이 두셋쯤이야!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님의 생활 철학이야 어떻든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에게 봉사하는 대가로 녹을 먹는 국가 공무원의 행동과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새삼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혹시 공무원 지침서에 적혀있지는 않은지요?

공공미술관이 님이 장악한 점령 물이 아님을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공공 미술 기관의 장으로 있다는 것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님의 취임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든 것으로 알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까지 님의 이성적 판단력이 심각할 줄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반성을 위한 기본 마음가짐 조차 되어있지 않은 님의 자세는 결코 받아 들일 수 없음을 거듭 밝혀 둡니다.

끝으로 공개 사과문 속에 님이 분명히 납득이 가도록 해명해야 할 몇 가지의 사안들을 지적해 둡니다

아래 내용은 .10월21일 부산일보 기사-누구의 말이 진실인가?`를 참고한 것임을 밝혀 둡니다.

첫째: 기획전 개막당일 숙소 앞에서 2명의 증인 (채희석, 박 불똥) 앞에서 “안 선생님 방 예약 해 뒀습니다”.라며 "호수를 알고 있으니 나중에 잠시 들리겠다"는 말 까지 해놓고 두 시간 남짓 후 돌아와 처음엔 카드로 지불한 방값을 현금으로 다시 지불하며 내방만 대실취소 해놓고도 내가 전화로 영문을 따져 물었을 때 “난 모르는 일이라며 그말하려고 잠못자게 전화 했냐”라고 했다가 다음날 학예 연구사가 물었을때에도 처음엔 “모르는 일이라며”이라고 발뺌 했다가 나중에 “내돈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웬 말이 많냐!”며 역정까지 내어놓고, 부산일보 김건수기자의 사건 취재 시엔 "나는 숙소를 예약한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

둘째:개막당일 주요작품 몇점이 님이 행한 수차례의 지나친 간섭으로 누락된 사실을 알고 내가 다시 걸어줄 것을 정중히 요구 했을 때 분명히 “그걸 왜 나한테 그러느냐,학예사에게 물어야지...”라며 매우 불쾌해 해놓고

기자 의 취재시엔 ”지금은 오픈 행사 이니까 나중에 이야기 하고 빠진 작품은 학예사와 의논해서 걸도록 합시다’라고 이야기 했다고 주장한 것.

위의 사실에대한 해명이 사과문 속에 구체적으로 언급 되지 않을땐 사과를 받아 들일수 없음을 밝혀 둡니다.

또한,님의 잘못은 공적인 행사에 공적으로 초대 받은 공인에게 저지른 것이므로 사과문 자체가 공적인 방식이어야 할 것입니다.사과의 형식은 일간지를 통한 공개적 사과의 형식이 되어야 마땅하고 내용 또한 진실을 왜곡해서는 결코용서 받지 못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뒤늦게나마 이번 일의 책임을 지고 겸허히 물러나십시오.

2005년 10월 23일 안창홍

동네에 불이 났습니다. 2005/10/27

동네에 불이 났습니다. 처음엔 실 연기가 피어 오르는 듯 하더니 점점 연기가 굵어지며 불꽃 마저 지붕위로 언뜻 언뜻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핏 봐도 큰 불인 듯싶습니다. 불이 난 곳이 숨 공장이라 불길의 오래 전부터 속에서 번지고 있었든 것입니다. 소방서에선 출동 대기조가 불 철 주야로 두 눈 부릅떠고 전화통을 지키고 앉아있습니다. 소방관 한 사람이 평소 사용하지도 않는 낡은 전망대 위에 우연히 올라 갔다가 동네 저 멀리서 피어 오르는 실 연기를 발견 합니다. 첫눈에 불이 난 것을 알아 차립니다. 황급히 내려와 신고 전화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119 화재 신고 전화가 걸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 참 큰일 났습니다. 화재신고 전화가 걸려와야 출동을 할텐데...다른 소방대원들과 함께 전화통만 뚜러지게 바라 보고 있습니다.화재신고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불을 발견한 소방관이 입을 다문채 신고 전화를 기다리는것일까요?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암튼 전화오기를기다립니다.. 불이 난 동네에선 맨 처음 불을 발견한 사람이 불이야! 라고 외치며 동네사람들을 깨웁니다. 골목을 뛰어 다니며 문을 두드리고 사람들을 깨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전화기 가진 사람들이 자기일 처럼 앞다투어 119에 신고 해줄 것으로 믿고 소방차들이 출동하기 전, 힘을 모아 우선 불길이라도 잡아 두고 싶었던 때문이랍니다. 산동네라 길이 좁고 험하여 소방차가 오는데 시간이 걸릴거라는 걸 미리 예감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산동네 사람이면서 또한 소방관이었거든요.

한편에선 일찌감치 불 난 곳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기를 코 앞에 두고도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일 먼저 불을 본 사람이 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불을 본 사람은 지금 정신이 없이 이웃을 깨우고 있는데도 그 원칙을 고집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나 먼저 신고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요. 또 한편에선 불이 난 숨 공장을 늘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전화기를 옆에 두고 신고를 해? 말어? 잠시 갈등하다가 그만 돕니다. 평소 못마땅하긴 해도 잠시 망설였던 이유는 그 공장에다 겨울 이불에 넣을 솜을 주문해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따뜻한 히터를 새로 장만했기 때문에 솜 이불이 필요치 않게 된 때문입니다. 이 참에 싸악! 다 타 버리면 공장 소음도 사라지고 출퇴근 때마다 공돌이 공순이들의 왁자지껄하든 소리도 동네에서 사라질 것이고 조용한 동네에 널널한 공터마저 생길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갈등은 사라지고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갑자기 즐거워지기 시작 했습니다. 불꽃아! 불꽃아! 휘얼훨 휘얼훨 타올라라!

그 동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솜이불로 추운 겨울을 나는데도 말이지요.
그 동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숨 공장에서 생존 비를 버는데도 말이지요.
내 알바가 아닌 것이지요.

불 난 집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들도 입장에 따라 이렇게 다양합니다

“야이 씨발놈아!” 사건도 보는 사람들의 눈에 따라 이처럼 다양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

한 것은 본인을 포함해 힘겨운 싸움을 시작한 사람들의 머릿속은 복잡한 개인적 계산이 없습니다 .

결국에는 본인들이 만신창이 낭마가 될줄 알면서도 옳은 일이니까 부딪친 것이고 옳은 일이니까 힘든 일들을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예고된 사건인 것입니다. 내 짐작으론 우리가 모르는 사이 지금까지 철옹성의 음습한 그늘 속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수없이 저질러져 왔지만 피해 당사자들이 어쩔 수 없는 자의에 의해 가해를 덮어 버림으로써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정말 이번 사건을 부시미에 만 국한된 사건으로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으면서 침묵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사건을 직시하고 결단코 응징해야 만 하는 이유는 우리세대를 포함한 우리의 후배들, 그 후배들의 후배들을 위해서라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이 땅에서 권력과의 싸움에서 자기희생 없이 옳은 일을 이루어낸 선례가 있었습니까?

80년대의 미술운동 탄압과 무엇이 다른니까? 부탁하건대 우리의 옳음이 너무나 명징한 이 기회를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뭔 그까짓 것 가지고 라는 식의 용기 없는 자기변명을 그럴듯하게 미화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은근슬쩍 호도하고 사적인 일로 축소 하려 들지 마십시오.

진실은 너무나 명확한데 몇몇 미술인들의 머릿속이 왜 그리 복잡합니까? 점점 이 판에도 악취가 느껴지는 듯 합니다.

궁시령거림 혹은, 독백. 2005/11/04

왜! 우리는 이 싸움을 포기하지 못하는가?

싸움이라는 것의 생리는 치르고 나면 승자와 패자 구분할 것 없이

양쪽 다 몸과 마음이 황폐해 지기는 마찬가지다.

승자의 경우 상대에게 안겨준 패배의 상처가 깊을수록

반대 급부의 허무와 황폐함은 더 하다.

상대방이 받았을 상처나 절망감,그 마지막 맺음에 이르게 하기까지

소중한 시간을 나쁜 생각들로 허비한 댓가를 치르는것이다.

이렇게 고약한 싸움이라는 것을,

세상을 살다 보면 자의에 의해서건 타의에 의해서이건 피해갈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자존심 때문에, 명분 때문에, 우정 때문에, 사명감으로, 경제적 손익 관계로,

드물게는 사랑의 쟁취를 위한 연적과의 싸움까지, 싸움의 종류는 참으로 복잡하고 다양하다.

어린 시절 싸움은 주로 방과후 학교 화장실 뒤쪽에서 주먹다짐을 통한

일대 일의 대결형태로 이루어지고 결과는 깨끗하다.

승복의 관계가 분명하다는 뜻이다.

먼저 코피가 난다든지 넘어지면 거의 진 싸움이라고 봄이 옳다.

청소년 시절도 주로 비슷하지만 싸움이 있은 후 오히려 서로가 더 가까워 지기도 한다.

복잡한 이해타산이 얹혀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성인들 세계에서의 싸움은 그렇지 않다.

혼탁한 세속에 몸을 담고 부터는 싸움의 양상이 달라진다.

권선징악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이유와 구실이 매우 복잡해지는 것이다.

세 확장을 위한 양아치들의 주먹다짐 외에는

대부분 말로 싸우거나 법정싸움이 많고 승리를 위한 계략과 술수까지 난무한다.

승리를 위해선 못할 짓이 없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제기 불능의 상태로까지 몰아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선 죽음에 이르게 까지 한다.

잔인해 지는 것이다. 생존의 절박함 때문일까?

인간이라는 종의 역사라는 것 자체가 크고 작은 싸움의 기록이 아니든가.

동물의 세계나 인간의 세계나 먹이사슬이 있는 곳에는

투쟁본능과 싸움이 있기 마련인 것이다.

몇 해전 손상된 자존심이 나를 결전의 장으로 내 몬 사건이 있었다.

그순간엔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사건 이었으나 지금은 세월의

풍화작용이 감정의 모난 부분들을 두리뭉실하게 만들어 졌는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더 많다.

작업실 동네에 서울생활을 적응치 못하고 들어와 사는 내 나이 또래의 사람이 있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새로 집을 짓고 카페라는 것을 해 보았으나 경영이 여의치 않아

문을 닫아놓고 있는 상태였다. 한편으론 국내 최고 매상의 모 홈쇼핑 회사 사장인 후배가

갑자기 사표를 내곤 못다한 그림과 음악을 다시 하겠다며 나의 작업실 곁으로 들어오고 싶

어했다.

나는 후배를 카페사장을 소개했다. 그 사장은 카페 옆 빈집을 세로 주었고

그곳에 둥지를 튼 후배는 작업에 열중했는데 어느 날 그 카페사장이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꼬더긴 것이다. 그 후배는 경영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서로 계약을 맺고

후배는 경영 아이디어를, 그 사장은 자본 투자로 동업이 시작 되었다.

신생 홈쇼핑을 거대기업으로 끌어올린 경험으로 작은 카페는 생각보다 빨리 정상궤도에 오
른 것이다.

그러자 사장이란 사람이 마음이 변하여 이 동업자 후배를 갖은 구실로 내 쫓기에 이른 것이
다.

난 서로를 소개해준 책임감에 두 사람을 불러놓고 일을 원만히 풀어 보려고 노력하였다.

그 사장에게 잘못된 행동이니 그러지 말라고 충고도 했다.
오랫동안을 좋은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실망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다.

결국 후배는 계약 위반에 따른 약간의 위약금을 받은 후 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손님들의 발길이 순식간에 뜸해져 버린 것이다.
이 사람은 민망해 진데다 열까지 받았는지 나에게 찾아와 그 후배에게 준
위약금을 되돌려 받아달라고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라 일축해 버리고 대꾸도 안 했는데 그 무반응에 화가 났든지
어느날 방으로 들어가는 나의 뒤에서 무지막지한 손으로 오른쪽 귀 언저리를 후려쳐서
고막이 터지는 충상을 입히곤 도망가 버린 것이다.
큰 덩치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말에 따르면 미군부대에서
태권도 교관을 한 사람이니 힘이 오죽했겠는가?

동네에 사는 선배 한분과 후배가 놀라서 달려왔고 근처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
경찰서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는데 놀랍게도 그 사장 역시
나와 같은 치료기간의 진단서를 들고 와 제출하는 것이 아닌가!

그 순간 잠시 나는 충격에 휩싸였었다.

진단서를 손에 들고 온 가해자의 끔찍하고 기발한 양심과
멸절한 사람에게 상해진단서를 끊어주는 병원의 양심에
충격을 먹고 며칠 동안 살맛을 잃은 채 멍하니 보냈든 것이다.
대한민국이 정말 싫어지는 순간이었다.
주위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 문제가 되어온 일이니 억울해도 어찌겠냐고
날 위로 하였지만 참으로 분통터지는 노릇이었다.
결국 서로 가해자가 되어 법원에 벌금을 무는 일로 사건이 마감되어 버린 것이다.
귀 치료를 위해 병원을 들락 거리며, 난생 처음 당해보는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이 억울함에 몇 날 몇 밤을 뜯눈으로 지새며 가슴을 쥐어 박고 괴로워하다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변호사는 평소 나와 막역히 지내는 사이라 억울한 이야기를
자분자분 다 들어주며 꼼꼼히 메모까지 하고 나더니
“어허! 그 놈 참, 고약한 놈이 긴 한데... 어찌실래요? 정말 싸워 볼래요?” 하는 거였다.
나에게 일생 일대의 사건이었으나 변호사에게 하잘것없는 일이었을 수도 있었으리라!
소송을 위해 자신을 찾아간 이유를 잘 알고 있을 터인데도
너무 당연한 나의 입장을 제차 확인 해 물어오는 이유가,
혹, 내 생각과 달리 이길 승산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다시 되물었다.
“혹시 이길 승산이 없습니까?” 하고, 그러자 한 손을 내 저으며
“아니요. 이 소송 건은 안 화백께서 100%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렇지만 며칠 더 생각해보신 후에 결정하세요.”하는 거였다.

그날은, 사건을 맡아 주지 않고 그냥 돌려 보내는 변호사가 못내 야속했었다.

작업실에 돌아와서는 밤새도록 마음 속으로 결전을 치러낼 다짐을 더욱 굳게 하였다.
다음날 다시 전화를 하니 꺾꺾 웃으며
“안 화백님 맘이 정 그러시면 한번 붙어보지요 뭐!”하고 승낙을 하는 거였다.
그 후 길고 지루한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다.

민사 소송이라 긴 싸움이 될 것이라는 변호사의 말도 처음엔
가해자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까짓 것 몇 년 걸리면 언제 고약한 놈 버릇만 고쳐줄 수 있다면
그만이지! 이렇게 마음먹고 나니 건딜 만 하였다.
나와의 법정 싸움 말고도 몇건이 더 있었는데 다 폐소했다는 소문이 들려 오면서 부턴
"이 친구 상습범아잔아!"하면서 고소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나의 마음 또한 메마르고 황폐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다.
1년 반 동안의 지루한 법정싸움 끝에 고약한 가해자의 버릇을
고쳐 놓긴 했지만
재판장을 돌아서 나오는 승자인 나 역시 초라하긴 마찬가지였다.
판사 앞에 서있는 그를 결눈으로 얼핏 보면서 1년 반의 시간 동안
날 괴롭혔든 증오와 후회의 회환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변호사를 찾았을 때 처음엔 왜 소송을 맡렸는지 그때서야
그 이유가 실감으로 와 닿는 것 이었다.
그 후 몇 년의 시간이 지나갔건만 가슴속엔 그때의
우울한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싸움은 그런 것이다.
이번 싸움 또한 분명한 명분과 사명감이 나를 전장으로 내 몬 것이지만
승패와 관계없이 결국 또 한번 만신창이가 된 자신의 끔찍한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미 마음과 몸뚱어리의 절반은 찢기 운 곪레가 되어있는 것이다.
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결심에 이르게 한 명분은
무소불위의 권력에 강탈당한 약자들의 존재의미를
평등의 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
나 자신, 혹은 우리들의 회생을 통해서 거두어 들일 전리품의
소중한 가치와 상징적 의미 때문일 것이다.
내 마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것은 이 싸움이
우리들이 삶과 의식을 변화 시킬수 있다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세대는 젊은 시절의 많은 날 들을 투쟁과 혼란 속에서 살아 왔다.
치욕의 역사를 바꿔놓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과 청춘을 송두리체
던졌고 그 결과로 겨우 이루어낸 절름발이의 민주화!
그 힘겨운 투쟁의 세월 속을 부대끼고 갈등하며 살아온 세대,

민주화 운동과 투쟁이라면 직 간접적으로 이력이 난 몸뚱어리들,
그 혁명의 물결 속에서 의식있는 화가들 또한 비록 작은 힘이나마
사명감을 불태우며 불의와 마주섰잖은가!

나 역시 중앙정보부 요원에게 회유 당하고
화실 옆 파출소에 전담 형사가 상주하며 수시로 작업실을
들락 그리고, 전화까지 도청 당하는 위협과 수모를 겪으면서도
눈 하나 깜박하지 않고 당당했었다.
그런 전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괴물 같은 문화권력의 철옹성
벽에는 돌 팔매질 한번 해볼 엄두조차도 왜 내지 못한 것일까?
왜 그랬을까? 정말 왜 그랬을까?
짐작컨데 이 권력의 괴물은 세상을 뒤집어 놓은 민주화의 함성과 평등을 외치며 흐르는 도
도한 물결엔
관심조차 없이 완벽한 치외법권의 울타리 속에서 예술지상주의와 순수미술의 꿈을 훑으며
세련되고 우아한 자들만의 은밀한 소통과 나눠먹기로 노른자위 단맛을 누려왔기 때문에
그네들의 세계 밖에 있는 거칠고 땀냄새 나는 작가들은 아예 접근조차 차단되어 있었든 것
이다.
그러니 그 철옹성안쪽에서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늠조차 해 볼수가 없었든것이다.
완벽한 금단의 땅이었든 것이다.
자기정화 없이 누려온 태평성세의 단맛으로 썩어 문드러진 고름덩이의 아주 작은 부분이
우연히 나에게 발견된 것이고 크기를 가늠할 수조차 없는 썩은 덩어리의 한 부위를
도려내려고 지금 우리는 첫 수술칼을 들이대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수술은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수술할 시간을 자칫 놓쳐 버리면
그사이 비집고 나온 고름 부위를 감쪽같이 뺏길해 버릴 것이고
또다시 수술의 시기는 요원해 지고 말 것이다.

이번 싸움의 주체, 고름덩이의 작은 숙주일지 모를 김용대에 대한 응징은
지금까지 자행되어 왔든 문화권력자들의 자세를 바꿔 놓는데
크다란 전환점을 만들어 놓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 싸움에서 완승을 거둔다면 권력의 철옹성 벽을
말 그대로 계란으로 쳐서 때려 부수는 기적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기적은 갈구하는 자들의 것이며 승리는 신념과 용기 있는 자들만의 것이다.
승리의 전리품인 자신감과 당당함의 기운은 미술관을 긍정적으로 변화 시킬 것임을 난 확신
한다.
변화는 원하고 행하는 자들의 것이니까!
이 일이 몰고 올 긍정적 변화가 비단 미술 판 뿐이겠는가?
우리의 이 싸움을 통해 문화 권력이라는 방자하고 가소로운 것들이 그렇게 오랜 동안
자빠질 듯이 뒤로 젖혔든 목의 김스를 풀고 나긋나긋하고
예의 바르게 화가들의 곁으로 다가오는
공존의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임을 나는 자신한다,
분명코 편견과 차별 없는 동등한 협력자의 위치로 거듭나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확신하는 것이다.

생각을 해 보라! 이 얼마나 바람직하고 유쾌한 일인가!

이 얼마나 통쾌한 서로의 승리인가!

이 통쾌함을 위해 만신창이의 힘겨움 마다 않고 기꺼이 온몸 내어 던진 전사들
이젠 눈앞에 보이는 마지막 고지를 향해 전열을 가다듬고 힘을 모아 더 늦기 전에
고름덩이를 향해 “돌격 앞으로!” 를 다같이 외칠 때 인 것이다.

민주화 이후 정말 오랜만에 맛보는

시대동감의 우정과 일에 대한 보람.

막강한 인터넷 파워의 긍정적 실감.,

개인전을 코앞에 둔 작가로서의 절박한 긴장감,

이 모든 것들이 내 몸과 모세혈관들을 자극하며

나를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비록, 변화된 삶의 승리를 위해 희생될 수 밖에 없는

패자에 대한 동정의 자책이 나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황폐하게 갈라진 가슴을 쓸어 내려야 할

힘겨움이 두렵다 하더라도

그만한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는 일이지 안은가!

우리 서로 새 시대를 열기 위한 희생양으로

이 숙명의 대결을 받아들이자.

다가올 새 시대를 위한 사명감으로

서로의 희생양으로서 맡은 배역에 충실해야 할,

너! 용대야!

이제 이미 정해진 각본대로

시퍼렇게 날선 나의 칼을, 우리의 칼을 받아라!

이별은, 2005/11/30

하품후에 글썽이는 눈물 한방울.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2005/12/13

문화칼럼] /안창홍 화가

일기예보대로 밤 사이에 많은 눈이 내렸다. 얼음처럼 차가운 아침 햇살에 산천을 뒤덮은 흰
빛이 눈부시다. 대자연의 경이를 바라보며 감탄한다. 어제까지만 해도 마른 낙엽들이 뒹구
는 작업실 앞 마당이 을씨년스럽고 스산하더니 하룻밤 사이에 그 스산함마저도 흔적없이,눈
이 시리도록 깨끗한 흰눈 속에 묻혀버린 것이다. 하늘마저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하니 겨울

햇살에 내리비치는 눈 덮인 산천은 정말 아름답다.

그 아름다운 흰빛 속에서 작은 새들이 때로 몰려 날아다니며 부산스럽다. 눈 구경도 할 겸 운동 삼아 마실 나온 것일까? 분명코 아니다. 이 가지 저 가지를 옮겨 다니며 먹이를 찾아서 난리가 난 것이다. 작업실 옆 쥐똥나무 마른 가지 사이를 옮겨 날며 몇 알 낳지 않은 씨앗을 찾아 헤매느라 결사적이다. 주목나무 속에서도 몇 마리가 들어앉아 열매를 찾느라 푸드득댄다. 마당에 내려서니 토끼 발자국들도 여기저기 눈에 띈다. 어젯밤 갑자기 내린 폭설에 먹이를 찾아서 위험 천만인 사람 사는 곳까지 내려온 것이다. 모든 것들을 뒤덮어 버린 눈밭에서 먹이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자연의 찬란한 아름다움 속에는 이렇듯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도 있다. 이럴 땐 범씨 몇 줌이 작은 생명 여럿의 허기를 채워주고 목숨을 구해 줄 것임을 이제 나도 안다. 이들의 움직임을 그냥 무심히 바라만 보아서는 그 사투의 몸짓들을 알아채지 못한다. 나도 시골 생활을 처음 시작할 즈음엔 그랬다. 눈꽃이 만발한 나뭇가지 사이를 떼지어 몰려다니며 재잘대는 겨울새들이 그저 예쁘고 신기해 보이기만 했다. 이른 새벽, 눈 덮인 논바닥을 폴짝폴짝 뛰는 고라니를 발견할 땐 더욱 그랬다. 산길을 걷다가 눈 속에 갇혀 웅크리고 있는 솜뭉치처럼 작고 어린 산토끼라도 발견할 땐 즐거움이 배가되어 탄성마저 질러댔다. 자연에 대한 무지로 가려한 생명의 절박함을 눈치조차 채지 못하고서 즐기곤 있었던 것이다. 냉엄한 자연의 법칙을 이 미약한 것들이 어찌하겠는가! 인간들이 삶의 터마저 매몰차게 빼앗아가는 형국이니 생명줄의 위협은 더할 것이다.

지금 내 나이 또래에 속한 세대는 어린 시절 대부분, 개구리나 새를 보면 땅바닥에서 돌맹이부터 집어드는 환경 속에서 자랐다. 그때 사회의 보편적 정서 속에서는 자연이 사랑과 공존의 대상이 아닌 먹이사슬의 수직 구조에 속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먹을거리가 풍족하다 못해 넘쳐나는 최근까지 우리들의 의식이 그 시절에서부터 크게 변하지 않은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제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미로 돌을 집어드는 것이다. 재미로 죽이는 것이다. 우리 사회 깊숙이 도사리고 있는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와 자연에 대한 무관심이 이기심과 보태어져서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활 속에 녹아있는 것이다.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공존해야 할 의무감을 환기해야 한다. 요즘 유행어처럼 "그때그때 달라요!" 식의 편리에 따라 변하는 분리된 사고의 이중적인 사랑이 아닌, 책임감 있고 변함없는 참사랑으로 자연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의식 속에서 사유화된 자연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것이다. 하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생명들조차도 함께 공존해야 할 이웃들임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사람들 마다 말과 행동이 불일치한, 이중적 정서로 가득하다. 비록 작은 몸짓일지라도 실천하는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정서가 필요한 것이다. 축구 응원을 위해선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결속력, 생명을 중히 여기는 따뜻한 가슴의 체온들도 멀리 멀리 번져 나가서 이런 사랑도 하나로 결속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작업일지 2005/12/14

벌써 며칠째 불안할 만큼 작업이 잘 풀린다.

마음은 평화롭고 컨디션은 최상이다.

집중도 잘되고 진도도 빠르다.
양금의 찌꺼기들을 버렸더니
마음속은 잔잔한 바다가 된다
그렇다고 나른하고 느슨해진단 것이 아니라
작업을 위한 칼날 같은 긴장감 조차도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분노도, 기억도, 애달픔도,
끓어야 할 연은 단호히 끓어야 하고
잊어야 할 것은 모질게 잊어야 한다.
흔들리는 자신을 추스르고 일으켜 세우기 위해
채찍질이 필요 할 때에는
간혹 분노도, 배신감도, 실망도,
역겨움 조차도 약이 된다.
뽕뽕 얼어붙은 날씨 마저 상쾌하다.
이렇게 쨍 하게 찬 공기가 난 좋다!
노동을 끝내고 작업실의 문을 나서면
새벽하늘의 별빛이 눈이 시리게 영롱하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굳은 허리를 펴고
깊은 심호흡을 한다.
콧속으로 밀려드는 서릿발 같은 공기가
폐벽을 냉각시키고
혈관을 따라 온몸을 번지며 온기를 앗아간다.
순간 나는 얼음인간이 되어 바스러질 듯한
불안감으로 조심스레 걸음을 옮긴다.
방에 불을 켜고
맥주잔에 소주를 가득 따르고
얼음을 몇 알 띄운다.
수면제 대응으로 잠들 준비를 하는 것이다.
잠 때를 놓친 이른 새벽이라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뜬눈으로 아침노을을
지켜봐야 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침대에 누워서 는 알콜기운이 번지며
온 몸이 나른해 저 잠이 찾아 올 때까지
종일을 씨름한 작업들을
하나하나 떠올려본다.
가능하면 그림 생각만 한다.
외로움이야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일이니
그림생각만 하려 애쓰며
청해 놓은 잠이 빨리 찾아와 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이다.

크리스마스 이브 2005/12/25

월 사이 없이 핸드폰에서 문자 메시지가 올린다.

제자들, 후배들, 친구들, 펜들의 성탄절과 새해 맞이 안부 인사다. 처음엔 한둘 확인 하다가 작업의 리듬이 깨어져서 아예 전화길 멀찌감치 던져둔다. 나중에 한꺼번에 확인할 생각 때문이다. 세상이 편리해진 만큼 잃는 것도 많다. 우체국 소인이 찍힌 연하장이나 카드를 받아 보긴 하지만 예전처럼 곁 봉투에서 까지 사람냄새가 풍기진 않는다. 이유는 주소가 거의 활자프린트 테이프로 붙어져 있기 때문이다. 옛날엔 곁 봉투에 쓰인 글씨 모양만 봐도 보낸이의 정성이나 성격까지 떠올랐잖은가! 오후에 운동하러 읍내 체육관에 갔더니. 성탄절 전날이라 넓은 체육관이 텅 비었다. 후배와 땀을 뻘뻘 흘리며 평소보다 더욱 열심히 운동을 한다. 차를 세워둔 면사무소 앞 소나무에도 깨알같이 작은 전구들이 반짝인다. 작은 먼 소재지이지만 가게들 마다 제법 성탄절기분을 내었다. 돌아오는 길에 동네 어귀에 있는 후배 집에 들러 따뜻한 아랫목에 술상 차려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막걸리 몇 잔을 들이킨다. 돌아와선 작업실 불을 켜고 며칠째 씨름하고 있는 그림 앞에 앉아 물끄러미 바라본다.오늘따라 새삼스래 작업실이 너무 적막하구나 하고 생각한다. 오디오를 켜다.파가니니의 애절한 바이올린 음률이 잔잔한 물결처럼 때론 흐느낌 처럼 때론 이른봄 철독길에 피어오르는 아지랑이 처럼 가슴속에 파고든다. 눈을 감으면 검은 동공 가득 노랑나비들이 팔랑이기 시작한다.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있는 외로움을 뭉서리치며 떨쳐버리고 싶다가도 금방 이렇게 익숙해 지는것이다.이제 곧 붓을 잡고 작업에 몰두하기 시작하면 자아는 숨막히는 절대고독과 대결구도로 마주하고 서 있게 될 것이다. 가장 악랄한 이 공포와의 피할수없는 만성적 싸움을 수십 년간이나 되풀이하여 지금까지 버티어온 내가 오히려 더 악랄하고 지독한지도 모를일이다.

길고 지루했던 싸움을 끝내며... 2006/01/08

부산 시립 미술관에서 학예연구사L씨가 오랜만에 전화가 걸어왔다.

“샘,소식하나 전하께예!”

“무슨 소식?”

“시립미술관장 공개 채용한다고 공문 왔심더!”

“.....그.... 참말 이가?”

“예! 오늘 연락 왔심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 공명현상처럼 잠시 귓속에서 웅웅거리며

말의 뜻이 현실로 와 단질 않고 희미하게 들리는 메아리같았다.

지난 가을 관장 김용대를 내 쫓기 위해서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웠건만

기다리든 결과를 접어두고 개인전 준비를 위한 작업에 몰입하면서
격렬했던 공방과 싸움을 아득하게 잊고 지냈든 것이다.
막바지엔 싸움이 나의 손을 떠나 `미술인 회의`와
`부시미 대책위원회`로 바톤이 넘어갔기 때문에
제1선에서 물러날수 있었고 그때문에
개인전 준비를 위한 작업에 몰두할 수 있었기도 하다.
사람들과 저녁식사 중에 받은 전화라 내가 다시 하마 하고 끊고는
만 하루가 지난 다음날 늦은 밤에야 내가 다시 걸기로 한 약속을
기억해 내곤 전화를 했다.
아무리 술을 먹었기로서니 그 중요한 일을 잊고 있었다니??
분명 기뻐할 줄 알고 연락을 해 왔을 터인데
처음 소식을 접했을때에도 스스로가 이해 되지 않을 정도로
정신적 반응이 담담하였든 것이다.
다음날 다시 통화를 할 때에도 몇 마디 확인을 하곤
전화를 끊고 난 후에야 비로소
개인전 준비에 몰혀 그 동안 까맣게 잊고 있던,
아니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려 애썼든 지난 가을의
악몽들이 하나 둘 되 살아남을 느낄 수가 있었다.
거만한 그의 얼굴과 고개를 떨군 채 암흑속으로
사라져가는 초라한 뒷모습이 동시에 겹쳐서 떠올랐다.
후회와 갈등속에서도 옳은 일을 해냈다는 자부심과
구제불능의 인간에 대한 연민이
밀물 처럼 밀려오며 맘을 착잡하게 하였다.
마지막 항의를 위한 그림 철거때 관장실에서 잠시 보았던
애써 태연한척하면서도 까칠해 보이든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잘못한 것이 없다` `그렇게 행동한적 조차 없다`면서도
사건을 저지르기전의 시간으로 자신을 되돌려 놓고 싶은 심정인듯
정신 파탄자처럼 결사적으로 오리발 내어 밀기에 급급하든
그의 두꺼운 얼굴을 바라보며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던 기억도 다시 떠올랐다.
너무나 악질적이고 비겁한 사람이라 그와의 싸움은
더욱 치열했었고 감당해야 할 정신적 부담과
밀려오는 후회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컸었다.
겉으론 의연한척 강한척 싸움을 이끌어 갔지만
사실은 날마다 후회를 하지 않은날이 없을만큼 힘든 시간들이었다.
승리를 위해선 어쩔수 없는 일이라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가해를 가하는일이 아무리 명분을 앞세우더라도
어찌 맘 편히 행할 수있는 일이겠는가!
꿈적않고 버티고 앓은 무소불위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그가 저지른 야비한 행위를 들추어내고,
부각시키고 하는일이 어디 사람이 할 짓인가.

어쨌든 싸움을 통해 우리가 원했던 목적이 이제 막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기다렸든 김용대의 `제 임면 불가`라는 결실을 보는 순간이고
또한 당연히 기뻐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금의 내 마음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처음 싸움을 앞에 두고서
심각하게 망설였던 두려움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승자나 패자나 상처의 고통은 매 한가지라는 삶의 이치!
이제, 패자에게 입힌 상처 만큼 피할 수 없는 대가의 무게를
감내해야만 하는 것이다.
옳은 일이든 그른 일이든, 정당하든 그렇지 않든,
싸움이라는 것은 서로가 고통의 상처를 떠 안기 마련인 것이다.
옳은 일을 한다는 명분 때문에
그 고통을 충분히 감당해 내리라 다짐 하였건만
막상 닥쳐 왔을때의 그 무게는 정말 피해가고 싶은
결코 가볍지않은 끔찍한 나만의 몫이었든 것이다.
전화를 걸어온 L씨도 사건의 피해 당사자라 특별한 감회가 있었으리라.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 말과 감정의 표현이 자유롭지가 못할 터이니
기분을 물어보진 않았지만 짐작은 할 수가 있었다.
고약하고 천박한 루머와 미술관의 무관심을 견디며
정의를 위해 투쟁한 약 두달의 시간들.
지금은 그때를 보상 받는 승리의 순간이고
고락을 같이한 대책위원들과 자축이라도 해야 할 일인 것이다.
또한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한 것이다.
미술계 안밖으로든 미친영향과 얻은 것 또한 많은 싸움이였다.
미술 공권력도 남용할 때에는 감시와 제제를 받아야 하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본보기의 선례를 남겼고
미술 공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미술인들의
피해사례들을 모우고 해결방법을 강구하는
창구의 필요성을 환기 시켰으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쪽으로
중지가 모아지고 있기도 하다.
`미술인 회의`와 `부시미` 대책위를 중심으로
곧 발족되어 형태가 갖추어질 조짐이다.
이번 승리의 의미 속에 담겨 있는 내용 중
가장 가치있는일로 평가 받아야 할 것은
사건의 실체를 호도하고 음해하며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려는 부정적인 시각,
냉소와 의도된 침묵,
궁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동참할 수 없었던
사회적 약자일수밖에 없는 미술인들의 정치적 입장들,,
이 모두가 우리를 외롭게 하였지만 애써 견디며 이 일을 이루어 낸

용기와 신념을 굽히지 않은 정신들 일 것이다.
물론 실명으로 지지를 보내준 몇몇 작가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를 본격적인 기사로 다루어 여론을 환기 시켜준 동아일보와
부산일보, 프레시안, 컬쳐 뉴스의 관심에도 감사의 마음이다.
뒤 늦게나마 공개질의서와 성명서 발표로 우리의 일에 힘을 실어준
미술인회의도 고맙기 그지없다.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용단을 내려준 부산 시청의 관련 부처도
너무 늦고 미약한 반응이긴 하지만 당연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특수성을 감안 한다면 박수쳐 줄 만하다.
김용대의 `관장 제임용불가`를 의미하는 `부시미관장 공채 발표`로
이제 “야이 씨발노마!” 사건의 길고 격렬했던 공방은
지난해의 무덤속으로 묻혀들 듯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값비싼 대가를 치루고 얻은 결론은
우리의 권익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하고 신념이 있는 곳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한 것이다.
개인적 생각으론 그만 원한다면 어느 자리에서건
서로 술잔이라도 기우리며,
변화를 위한 시대의 부름에 충실한 역할 자로서의 희생양이었던
지난 일들의 앙금을 틀어 버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다.
그 또한 이 오욕의 시대가 만들어놓은 희생물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벽 2006/01/16

벽이 있습니다
그때 까진
있는듯 없는듯
벽이 있었읍니다.
누구하나
관심 기우리는 이
없었기 때문에
벽은 있으나
없는듯 했읍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누군가 가
벽을 마주하고
서 있습니다
그리곤
벽을 바라 봅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오늘도
벽을 바라봅니다.
벽은
존재감에
벽차 오르긴 했지만
간혹
아주 간혹 반응을 보입니다
변덕 많은
인간들의 습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아주 간혹 마음의 문을 엽니다
누군가는
아주 아-아-주 간혹 열리는
벽의 문 틈을 엿보기 위해
오늘도 벽을 바라봅니다
내일도 바라봅니다
다음날도
다 다음날도
다다다다음날도 바라봅니다
말 더듬이처럼
다다다다다다음날도
문이 열리기를 기다립니다
순식간에 열렸다 닫히는
마음의 틈새를
엿보는 것 만으로도
끝없이 기다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음날의
기나긴 시간과 인내를
보상 받는 것이니까요
그 기다림 때문에
아무것 할 수 없어도
급기야는
아무것 하 지 않아도
개념 치 않습니다
눈 깜박할 새 닫혀버리는 순간을
놓쳐버리기 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편이 나은 것 이지요
벽의 틈새를 볼 수 있다는 것

벽의 마음을 읽을수 있다는것
그것만으로도 행운인 것이지요
이미 냇을 앗겨버린
누군가에겐
길고긴 기다림과
찰라의 시간성마저도
신선하고 숭고한 것이기 때문에
끝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모든것들이 멀어지고
모든것들이 사라지고
모든것들이 사그라들고
꿈도 열정도
지저기든 새들마저 떠나가고
솟아 오르든 샘물마저 말라버려도
오직
벽만을 바라봅니다
벽은 벽대로
그가 처한
이런일을 개념치 않습니다
간혹 아주 간혹
벽 자신도 모르는 사이
문이 열리면 깜작 놀라
황급히 닫아버립니다
술한 시간들이 쌓여
세월의 산을 이루고
이제 벽앞엔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때 너무나 당당하고
한때 너무나 진지했든
맑게 빛나든 동공 마저
건포도 처럼 말라버린
벽의 숭배자만이
바람에 서격이는
마른 풀잎처럼
있는듯 없는듯
벽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다음날도

다다다다음날도
다다다다음날도
보이지도 않는
벽을바라 봅니다
이미
떠날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
보이지도 않는 벽을
기억의 눈으로만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때 부턴
마음 내킬때면 늘
벽의 안쪽을 바라볼수도 있고
벽의 틈새로 스며나오는
두근거림의 진동 까지도
느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세심하게
귀를 기우려야 하지만 요
오래전 처음
이 당당하고 활기 넘치는 숭배자가
찾아와 벽을 바라다 볼 때부터
벽은 벽대로
생각이 있었든 것입니다
두번다시 몇 억광년을
있어도 없는듯
홀로 외롭기는
끔찍했던 것이랍니다
벽차오르는 설레임을
처음
느껴본 때문이지요
그러니 이 찬란한 추종자를
차마 떠나 보낼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를 붙들수 있는 방법은
그를 빛나게 하는 주위의 모든것
떠나 가게 하고
눈 동자 마저 건포도 처럼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것도 볼수없게
마음의 눈과 귀로
오직 벽과의 교감만이
존재감을 느끼게 하는것

그것 밖엔
방법이 없었든 것이지요
승배자 또한
벽의 계락을 알면서도
그 계략까지도 승배한 것이지요
진정한 승배는
자기 희생을 동반 한다는것을
일찍 부터
깨닫고 있었든 것이지요

안개와 우울에 대하여 2006/01/17

밤안개는 희거나 검다.
밤안개는 오래된 나의 우울처럼 가늠할 수 없이 깊다.
오늘 밤의 안개는 땅에 떨어진 뭉개구름처럼 여기저기 흩어져서
길을 삼키고, 어둠을 삼키고, 빛을 삼키고, 희거나 검게 대지를 뒤덮는다.
무쏘를 마치 작은 성냥곽 처럼 집어 삼키고 그 속에든 나 마저
삼켰다가, 토약질 했다가, 다시 집어 삼켰다가, 다시 내뱉는다.
마치 터널을 들락 거리듯 뛰쳐 나오면 집어 삼키고 뛰쳐 나오면
다시 하얀 내장속으로 집어삼킨다.
비상등을 켜고 전속력으로 희거나 검은 안개 속을 정면 질주 한다.
안개에게 포위 당해 빛도 채 발하지 못하는 겁먹은 가로등의 흐미한 불빛들이
휘익 휘익 뒤로 달아나고 무쏘의 심장마저 숨이 가파 울부짖는다.
아무리 힘껏 악세레다를 밟아도 아무런 저항의 느낌도 없이 부드럽게 부드럽게
안개는 희거나 검은 입 속으로 삼키고 또 삼킨다.
저 깊은 곳에서 고개 쳐 드는 우울의 아가리처럼 나를 집어삼킨다.
눈에 보이는 모든걸 삼켜버리는 안개는 차라리 두렵지 않다.
두려운 것은 내 속에서 고개 쳐드는 우울이다.
그 두려움을 떨쳐 버리기 위해 먹먹해지도록 고막을 때리는 음악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으스스리 지도록 운동을 해도, 안개속을 달리고 또 달려도,
서두러는법 없이 천천히 천천히 두려움과 강박으로 고개 쳐 드는 우울.
그래서 더욱 두렵다!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에 더 더욱 두렵다.

작품 `봄날은 간다3`을 끝내며 2006/01/22

작업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한달 반, 어제 늦은 밤 작업을 끝내었다. 오랜 시간을 생각하고
구상을 한 만큼 애착도 큰 작품이었고 밀도 있는 완성에 만족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남들의 눈에 어떻게 읽혀질지에 대한 문제는
아직 숙제로 남아있다.

--제작 동기와 과정 --

16년 전 어느 날 모처럼 집에서 밤을 보낸 아침, 세수를 하고 얼굴에 로션이라도 바를까 하고 아내의 화장대를 기웃 거리다가 호기심에 설함을 열어보았더니 작은 유리병들과 화장품들 사이에서 손바닥 만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화장대 옆 창문을 통해 환하게 밀려드는 아침햇살 속에서 손에든 사진을 한참 동안 찬찬히 들여다 보았다. 사진첩 속에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오랜 세월을 험하게 굴러다녔는지 표면엔 많은 균열이 있고 모서리마저 낡고 찢어진 이 불행한 흑백사진은 나를 매료시켰고 특별한 감흥에 빠져들게 했다. 커다란 무덤을 뒷배경삼아 여자 아이들만 가로로 올망졸망 모여 앉아 찍은 단체 사진인데 아내에게 물었더니 국민학교 4학년 봄소풍 때 김수로왕릉 앞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했다. 커다란 왕릉이 상징하는 죽음과 권력의 허망한 종말, 찬란한 봄의 기운을 다 흡수해 버린 듯 빛바랜 흑백의 우울함, 덧없는 세월의 풍랑을 이미 예감을 한 것일까? 아직 어린 여자아이들의 애 어린 같은 무표정한 침묵, 굵직한 상징들이 서로 대비,마찰하면서 나의 호기심과 시선을 끌어 당겼다.

나에겐 국민학교시절 사진은 단 한 장도 없다. 심지어는 졸업앨범 조차도 없다. 나에게 그 시절은 상실감과 서릿발같은 기억만이 존재하는, 저주 받은 시절이었다. 나의 생애에서 완벽하게 추억의 물증조차 남기지 못한 시절, 바꾸어 말하면 한 장의 사진 조차 없을 만큼 삶이 유기된 시절이었다. 그러니 설함 속에서 주워 든 그 남루한 사진을 바라보는 감흥이 특별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그렇게 그 사진은 아내의 허락을 받고 책갈피에 꽂혀 16년 전에 나의 작업실로 옮겨졌다. 그 후 작업실 벽에 달라붙어 5년을 더 보내었다. 그 이유는 개으름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진의 느낌을 캔버스에 그릴 것인가 아니면 확대된 사진 위에 작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쉽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두가지의 방식이 가지고 있는 시각적 효과와 의미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선택과 결정에 상당한 고민이 따랐다. 결국 사진은 전문가의 손에서 슬라이드 필름으로 재 촬영 되었고 다시 인화되어 가로400cm x 세로207cm 크기의 패넬에 부착되어 작업실로 운반되어 왔다. 그리곤 다시 벽에 세워놓은 지 8,9년...

오며 가며 틈 날 때마다 바라보고, 때론 사진 앞에 아예 퍼질러 앉아 오랜 시간을 생각에 잠겼었다. 사진 속의 아이들은 카메라를 응시하듯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 또한 그들을 바라보며 사진 속의 아이들에게 친숙해져 갔다. 낮이 익어갈수록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고 저마다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나중엔 희미하게 웃기도 하고 간간이 흐느끼기도 하였다. 그 소리는 마치 물속에서 듣는 소리처럼 웅얼거리며 불분명했기 때문에 더욱 비밀스러웠고 이따금씩 비밀들은 종류에 따라 색종이 조각 들을 흠뻑리는 듯, 색 색깔로 눈앞에 흩어지기도 하였다. 때론 아주 혼란스럽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44명의 아이들이 말문을 한꺼번에 열기 때문이었다. 간혹은 침묵하던 담임선생과 손녀를 따라온 할머니까지 40여 년 전 그날의 봄별에 대하여 말을 걸어왔다. 우리는 마치 복화술로 대화를 하는듯 안면 근육조차 움직이지 않고 입술마저 움직이지 않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겉보기론 긴침묵의 상태였고 나 또한 긴 침묵으로 그들을 바라다 보았다. 소리라고는 들리지 않는 적막한 작업실에서의 내밀한 소통은 침묵하는 듯이 보이는 복화술 만이 현명한 선택이었다.

사진 속에서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할 때 까진 사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는 사이 아이들의 얼굴 속에서 중첩되어 쌓이는 시간의 변화를 발견해 내기도 했다. 아이들은, 자신들 미래의 빛 바랜 얼굴들도 보여줬고 눈밑에 패인 주름도 보여 주었다. 난 관찰자가 되어 천진한 얼굴들 위에 드리워지는 구름 그림자와 이미 예정된 삶의 얼룩도 보았다. 쉼 없이 왔다가는 세월의 덧없음과 쏜살같이 지나가는 시간의 꿈무늬에 달랑달랑 매어 달린 슬픔의 덩어리를 보았고 행복에 겨워 까르륵대는 어지러운 웃음소리도 들었다. 아이들이 웃어대기 시작하자 터져나갈 듯이 시끄럽기도 하였다. 활기 넘치는 아이들의 소리 속에서 간간히 풍금소리와 종소리도 들렸다. 가난한 부모님들의 한숨 소리도 섞여있었다. 아주 멀리서 군화 발자국 소리와 총소리도 들려왔다. 얼핏 보면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대한 역사 속, 그 시대의 진실이며 가공되지 않은 참 역사의 조각인 것이다. 이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권력자들에 의해 기록된 피의 역사와 그 그늘에 가리워진 그 시대의 우울과 통증을 보는 것이다. 가위눌림과 공포에 자지러지는 상처 받은 시간의 고통을 보는 것이다. 그 아이들에게 머지않아 닥쳐올 암울한 미래, 피로 얼룩진 우리의 현대사를 보는 것이고, 그 어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어머니들의 서러운 수난사를 보는 것이다.

사진이라는 1차원의 공간속에 이런 상징들의 느낌을 어떻게 집어 넣느냐가 관건이었다.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느릿느릿 지혜가 스며쳐 나올 때를 기다리며 여러 해의 봄을 지내 보냈다. 마냥 바라다 보고만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8,9년의 시간이 흘렀다. 어느 날 불현듯 이제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한달 반의 노력 끝에 드디어 어젯밤 작업을 마무리 한 것이다.

밤길을 달린다. 2006/01/25

허파에 바람이 든듯 밤길을 횡 하니 한 바퀴 돌고 왔다. 속이 답답하고 마음에 안정이 안될 때에는 속력이 붙은 드라이브가 아주 간혹 약이 될 때가 있다. 어젠 정겨운 친구와 새벽까지 고주망태가 되도록 퍼 마셨고 오늘은 영 마음이 잡히질 않아서 종일 서성대다가 박쥐처럼 어둠 속을 헤매다 돌아왔다. 한 작품이 끝날 때마다 밀려오는 고독감은 늘 힘이 든다. 나뿐만이 아니라 작업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같은 심정일 것이다. 절대고독의 대결구도로 몇 날 몇 밤을 지새워 하나의 작품을 완성시키고 나면 그 뒤엔 다시 허무와 외로움이 밀려와 심장을 갇는다. 작품이 마음에 흡족하게 완성 되었을 땐 더 하다. 이렇게우울증이 고개를 쳐들땐 더욱 힘이든다.벌써 며칠을 술과 방황으로 보내었다. 이럴 땐 약속이나 한 듯이 이따금 걸려오는 안부전화들마저 뚝 끊어지고 사람구경조차 귀해진다. 사람이 그리우면 서도 몸은 오히려 꿈쩍을 않는다. 헬스 클럽에 운동하러 도 며칠 가지않았다. 작업실에도 이틀째 들어가지조차 않았다. 변덕마저 죽 끝뚫히고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는 것이다 .하루가 너무 더디 지나가서 며칠처럼 느껴진다. 이럴 땐 고독하고 우울한 음악을 크게 털어놓고 호젓하고 고요한 밤길을 쏜살같이 달리다보면 마음이 후련하고 안정되어 질때가 있다.그 원인을 곰곰히 생각해 보니 추위에 얼어붙은 가로등과 어둠 속으로빠진 아스팔트의 적막하고 쓸쓸한 겨울밤 풍경과 스피커를 통해서 흘러 나와 가슴을 찌르는 절절한 곡이 내가 처한 상황보다 더 비감하게 느껴져서 오히려 반대급부의 안정감이 찾아오는것이다. `마음이 힘에겨울 때면 오히려 더 힘들게 하라 그것만이 너를 우울에서 건져내는 유일한 길이지니` 다

소 감상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효과가 확실히 있음을 나는 알고 있고 지금이 아까보다 정서적으로 훨씬 안정되어 있음이 스스로 느껴진다.. 이럴 때 재빨리 잠자리에 더는 것이 상책임 또한 경험을 통해 알고있다. 근데 대책이 안서는 말뚱말뚱한 눈을 어찌해야 좋을지는 아직 모르겠다.

이대로만 있게 해줘! 2006/01/27

내가 조울증인가?

며칠째 등짝이 바윗덩이 같고 컨디션 또한 바닥으로 갈아안자 허우적 되더니 어제 밤부터 오늘은 종일 가벼워진 기분에 취해서 대마초 라도 피운듯이 해롱된다. 짧은 했지만 잠도 깊고 달게 잤다. 오늘은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든 아침안개 마저 달라 보였다. 사과를 한입 베어 물곤 침샘을 자극하는 새콤 달콤한 육즙과 코끝으로 번지는 향긋한 향을 즐겼다. 일찍부터 부산을떠며 어제밤 계획한 새로운 작업을 위해 액자 집이며 화방에 전화를 걸어 재료들을 주문하고 한술 더 떠서 겨울내내 닫혀만있든 창문을 활짝 열어제끼고 어지러운 방을 정리한답시고 물건을 끄집어 내어 들쭉서 발디딜틈도 없이 만들어 놓고도 마냥 기분이 좋다. 책상을 옮기고 책들을 정리하며 왔다 갔다 콧노래 마저 흥을 그렸다.

아주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도 하였다.런닝 머신 위에선 구름위를 걷듯 사뿐 사뿐 달렸다. 식욕이 당겨 저녁도 푸짐하고 마식게 많이 많이 먹었다. 어제부터 갑자기 왜 이렇게 마음이 흐물 흐물, 야들야들 해 지는것일까? 간사한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더니 촛촛!. 옛말에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던데.....그러면 어떠랴! 우리의 삶 자체가 `순간` 아니든가

설날 기행. 2006/01/29

설이라 아침 일찍부터 분주했다. 가족들과 함께 인천에 있는 큰집으로 가 아버지께 차례를 올렸다. 차례상위에 놓여있는 흐릿한 당신사진을 바라다 보며 영정사진 조차 마련해 두지 못해 신분증 사진을 확대해야할 만큼 말년을 외롭게 살다 가신 기구한 인생 역정이 내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몽골 여행 중에 돌아가신 바람에 임종 마저도 지켜 드리지 못한 불효를 저 질렀으니 절을 올릴 때 마다 마음한 구석이 편칠 않다. 차례를 지낸 후 잠시 앉았다가 형님께 작별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 왔다. 집에선 늘 익숙치 않은 모양새로 앉아있다. 그 와중에도 모처럼 가족들과 같이 길게 보내는 시간이라 이야기도 주고 받으며 마음만은 따뜻했지만 한구석으론 어두워 지는 창 밖을 결눈질하며 불안하기도 하였다. 작업실에서 종일 굶고있을 개들이 자꾸만 눈에 밝히는 것이다. 결국 주섬주섬 외투를 입고 챙겨놓은 찬거리를 손에 들곤 황급히 집을 나섰다.아파트 건물을 나서자 습기를 머금은 찬 공기가 콧속으로 스며든다. 난 비 냄새가 좋다. 얼굴을 간질이며 달라붙는 안개비를 향해 잠시 서있다가 차에 올라 시동을 건다.그리곤 안경을 끼지 않고 나온 것을 발견 하곤 둘째 놈에게 가지고 내려 오라고 전화를 한다. 그 후 한참을 가고 있는 중에 다시 전화가 걸려 온다. 가방을 놓고 갔다는 것이다. 다시 돌아가 둘째 놈에게 가방을 받아 든다.”지하야! 건강 챙겨라.” “네, 아버지 조심해서 가세요” 한곳에 정신을 빼앗기면 다른 생각이 끼어 들지를 못하는지라 갑자기 밀려오는 생각 땀에 내 몸과 둘째 놈이 고생을 한 것이다.그렇게 집을 나선 밤거

리는 비에 젖어 불빛에 반들거린다.아스팔트에 어룡대는 자동차 후미 등 빨간빛들이 아름답다. 돌아가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무거운 피로와 저 마다의 사연보따리를 가득 실은 행렬이 천천히 천천히 침묵으로 길게 꼬리를 문다. 침묵? 그렇다. 침묵이다. 이렇게 많은 차들이 밀려가고 밀려오는데도 창밖은 너무 고요롭다. 앞창에 브러시 돌아가는 소리와 간간히 들리는 구급차 소리, 이따금 창에 떨어지는 빗소리 외엔 마치 진공상태에 있는 듯하다. 나도 침묵의 긴 행렬 사이로 끼어 들어 느린 속도에 아무런 불만 없이 동참 한다.

주위의 풍경에 눈을 돌릴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다. 비에 젖은 한강의 밤 풍경이 새삼 아름답다. 멀리 잔잔한 물결에 비추이는 작은 불빛들이 영롱하다. 교각들 마다 신경쓰듯한 조명들도 다른 불빛들과 어울려서 아름답다. 음악을 틀곤 생각에 잠긴다.비에 젖은 버즘나무들이 무리 지어 차창 옆을 천천히 스쳐간다.초록 이정표가 머리위로 지나가고 벚나무들이 무리 지어 차창 옆을 지나간다. 앞에서 차 한대가 끼여들면서 감사의 뜻으로 비상등을 잠시 깜박인다. 한동안 느닷없는 이 의사표시에 어리둥절해 한적이 있는데 요즘은 나도 곧잘 써먹는다. 크다란 에니콜 광고판이 지나가고 무인 카메라가 지나간다. 삶에 대하여, 그리움에 대하여, 축복에 대하여, 할머니에 대하여 생각한다. 아버지의 슬픈 삶을 생각한다. 인순이의 크다란 사진이 어둠 속에서 환하게 나를 바라본다.사랑에 대하여,행복의 의미에 대하여 생각한다. 나의 예술에 대하여 생각한다. 갑자기 바이올린 소리가 격해지고 생각들과 바이올린 소리가 뒤섞여 한덩어리가 된다. 느릿느릿 도심을 벗어나자 시야가 넓어지고 차들이 속력을 내기 시작한다.나도 빠른 속력에 동참한다.. 잠궜든 대문을 열고 개들이 무사한지 둘러보고 방문을 열고 불을 켜고 보일러를 켜고 책상 앞에 앉는다. 한참후 방이 데워지길 않아 렌튼을 들고 보일러실에 가보니 기름이 바닥났다.오늘밤은 냉방으로 밤을지새워야 할 판이다.그러나 이미 따뜻하게 데워진 가슴 때문에 방안의 찬 공기따위는 충분히 견딜수 있을 것이다.

삶은.. 2006/01/30

삶은 고통스럽지만 아름답다.

삶은 비밀스런 방들로 가득하다.

마치, 미로 처럼 퍼즐 맞추기 처럼,

우리앞에 펼쳐진 수수께끼의 삶.

그 속에 숨겨진,

보석보다 더 빛나는 생의 의미들.

모험심과 열정에

몸을 던진이들의 삶은

열병을 앓듯 고통스럽지만

인생은, 아름다움으로 충만 하리라.

잠시.. 2006/01/31

잠든 사이 마당에 내린 눈은 때이른 봄비의 습격에 반쯤은 점령 당했다.
밀려나지 않으려는 겨울의 마지막 몸부림이 느껴진다.
그렇게 가혹하든 추위도 이제는 쇠락하는 기력을 슬퍼할 수 밖에 없으리라..
대문 너머 큰손씨집에서는 바람한점 없는 새벽 공기속을 하얀 연기가 수직으로 피어 오른다. 부지런한 이들의 위는 항상 허기져 있을테니 열심히 곡기로 채워줘야 다시 몸이 활기를 찾으리라. 흑백 사진 처럼 정지된 풍경사이로 밀려가는 어둠을 바라본다.
계절과 계절의 모호한 경계 사이에 긴 하늘은 비와 눈, 둘중 뭘 내려 보내야 할지몰라 고민이라도 하는듯 , 잔뜩 지푸리기만 해 있다.나도 작업실로 건너갈까, 이대로 눌러 앉아 책이나 읽을까 고민한다. 속으로 슬쩍 흥정도 해 본다. 눈이 오면 작업실,비가 오면 그냥 민기적거리기. 이런날은 술맛이 땡기는 날이라 좀 기다렸다가 청을 거절 못하는 월산리 김씨 꼬드겨서 낫술이나 한잔할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이미 날은 밝은지 오래 되었으나 의자에 껌처럼 눌러 붙어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서 시간만 죽인다. 그래 아예 늘어지게 개를 러져 버리자. 누구 눈치볼 것 없이 실천만 남았으니 얼마나 좋으냐. 늘 같은 생각이지만 이보다 더 좋은 직업이, 이렇게 축복받은 직업이 화가 말곤 없을 것이다.

그림은" 2006/02/01

그림은 통속(通俗)의 일상을 흔들고
파문을 일으키며 사고하게 만들고
일탈의 희열과 자유를 맛보게 한다.
그림은 저항이고 모험이며
새로움의 발견이다.
모든 것들은 나를 통해 다시 잉태되고
새롭게 태어난다.
그림은 지각과 논리 이전의 것이고
가슴에서 가슴으로 연결되는 파장이 중요하다.
서양 사람은 서양의 사고로,
우리는 우리의 사고와
생태를 발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것은
사고의 한계가 있으며 그 선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

어떤 책에서 2006/02/03

‘집은 인간을 말해준다.
집은 물질로 나타난 인간의 분신과 같다.
집은 심리학과 동시에 어떤 사회학을 구체화하여 보여준다.’
"옳은 이야기 이다.

우리의 건축 문화를 생각해 보게하는 글이다"

진실과 타자에게 다가가기. 2006/02/03

저녁 무렵 읍내 체육관에 갔다 온 것 외에는 진종일 창 앞에 앉아 이런 저런 공상만 하며 시간을 보내었다. 아침나절엔 밤사이 내린 서리가 하얗게 마당을 덮고 있더니 해가 떠 오르자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햇살이 내려 앉은 마른 풀밭엔 새들이 때로 몰려 와선 무언가를 쪼아대다간 떠나갔다. 자작나무 그림자도 길게 드리워 졌다간 사라지고 아랫집 강아지 두 마리도 마당을 쿵쿵 되며 돌아다니더니 볼일을 보곤 사라진다. 그때까진 창을 통해 내다 보는 밖의 풍경이 나른한 봄볕 속의 한가롭고 평범한 전원 풍경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돌변한 것이다.

연일 포근했던 날씨 때문에 무심결에 내어다 본 창 밖 풍경으로론 혹한을 상상조차 못하다가 문밖을 나서며 매서운 추위에 그만놀란 것이다. 투명하고 얇은 유리한장을 사이에 두고 뻘뻘 쳐다 보면 서도 이렇듯 오해와 착각이 일어난 것이다. 방밖에 나설 기회가 없었다면 오늘의 풍경은 나른하고 포근한 봄날 느낌의 비껴간 진실로 머릿속에 기억되든지 잊혀져 갔을 것이다. 생각이 비약되어 이처럼 우리가 무관심한 사이 얼마나 슬한 진실들이 왜곡 되어 억울함과 앓타까움속에 묻혀 들까? 하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는듯 하였다 .

진실의 실체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가능한 한 상황을 직시하기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한 것이다. 모든 것이 그렇다. 세상살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직접 겪어 보지 않고선 강 건너 불구경처럼 절박하지도, 절실하지도, 가슴 뛰지도 않은 밋밋한 오해 속에서 잊혀지고 묻혀지든지 뺄뺄기되어 기억되기도 하거니와 계획된 음모와 목적에 의해서 본질이 전도되어 세뇌되기도 하는 것이다.

꿇주려 보지 않고선 배고픔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고, 약자가 되어보지 않고선 약자의 서러움을 모른다. 콤플렉스를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콤플렉스를 가진 자의 열등의식을 모른다.. 이처럼 타자의 입장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진심 어린 수평적 공감대가 필요한데 각기 자기방식의 환경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도덕책의 가르침 처럼 당연한 결과로 다가가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다. 많은 사람이 사는곳이라 큰 해악이 안되는 적당한 오염은 오히려 일탈의 자극제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 도가 넘쳐 심각하게 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배타적인 이기심은 정정 당당한 타자의 승리조차도 인정하려 들지 않고 오히려 시기와 질투심에 물어뜯을듯 달려들기도 한다. 자신들 보다 아래쪽 서열로 보일땐 관용과 선심을 배풀다가도 자신들보다 사회적 우위에 선다든지 자신들이 하위 계급으로 밀려난다고 느낄땐 오로지 그 이유 때문에 참을수 없는 분노에 휘말리는 것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수직구조로만 존재 하는것이다. 난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다. 이 모든것들이 객관적인 진실과 실체를 외면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들이다.

우리 사회처럼 도덕이 미성숙한 속에서는 가치의 순서가 바뀌기 일수 고 실제로 악이 선으로 둔갑하는 일이 비일비재함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은가..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파하는

속담이 당연스레 받아들여지는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정신이 올바르게 균형 잡히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몸과 가슴으로 직접 부딪치며 앞뒤 좌우세심하게 살펴보고 생각하고 느껴야 한다. 평형 감각을 잃지 않으려 노력해야 한다. 때론 이해와 양보를, 때론 대립과 언쟁이 오가더라도 피해가선 안되며 타자의 삶도 나의 삶처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진실의 실체는 물어버리고 옳고 그름됨을 자신들의 편익에 의해서 왜곡시키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 큰 맥락에서 보면 우리의 누더기 현대사가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우리들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판단하고 혹은 자신들의 부류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속해있는 울타리 안에 틀린 작은 구멍으로 만 밖을 내다본다. 좁은 시야를 통해 과정이 잘려나간 결과만을 응시하는것이다. 그 속에는 타자들에 대한 배려는 철저히 배제 된다. 대의는 아예 존재하지 않든지 왜곡되고 진실은 묻혀 든다. 그리곤 너무 쉽게 속단하고 마녀사냥처럼 심판하고 단죄하려 든다.

견고해진 이기심과 편협 된 지식과 정보만 잔뜩 채워진 머리를 이리 저리 굴리며 필요에 따라 진실인양 꺼 집어내어 놓고는 스스로 착각에 빠져드는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다. 나중엔 가슴이 온기를 잃어가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이다. 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것이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오늘 한나절을 두 눈으로 창 밖을 내다 보면서도 진경을 바라보지 못한 나처럼 정작 쳐다 보면서도 바르게 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이 되고 마는 것이다.

루윈의 마지막 유언. 2006/02/05

"장례식을 위해서 누구에게든지 단 한푼이라도 받아서는 않된다.
서둘러 입관하여 파묻어 치워 버려라.
어떤 일이든지 기념 행사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나에게 관한 일은 깨끗이 잊어 버리고 자기 생활 쪽으로 정신을 돌려라.
그렇지 않으면 바보다. 아이들은 커서 , 만약 재능이 보이지 않거든 자기가 아는 일을 구하여 세상을 살도록 하라. 절대로 생소한 문학자나 미술가가 되지는 말아라 .
타인이 너희에게 준다고 약속한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이나 눈을 상처 입히면서도 보복에 반대하여 관용을 주장하는 사람,
이런 남자와는 결코 가까이 하지 말이라."

* 어떤 현란한 수사도 존재하지 않는
유언 속에서 죽음앞에선 루윈의
정직하고 솔직한 내면이 느껴진다.
혁명의 수단으로 자신이 활용했던 미술과 문학을
자식들에게 권하지 않음은 다소 의외이다.

그림자 2006/02/07

앞을 보면
뒤에 있고
돌아서면
달라붙는
엇갈린 인연

孤嶋 雪國에서 2006/02/07

밖을 나선다.
눈은 머리며 어깨 위에 자릴 잡더니 금새 쌓이기 시작한다.
새벽, 잠자리에 들기 전 우울을 핑계로 며칠씩 작업실을 외면한 자신을
반성하며 일어나면 곧장 작업실을 향하리라 작정을 하였으나
이미 그 결심이 어긋나 있음을 예감한다.
빌어먹을 눈이, 겨우 겨우 달래 눈 마음을 뒤흔들어 버린 것이다.
밤사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지금도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온통 새 하얗다.
이 고립된 설국을 까만 점처럼 헤매며 진저리를 친다.
속으론 연신 빌어먹을 빌어먹을 하고 구시렁된다.
흰빛을 누가 순결의 빛이라 하였든 가?
이럴 땐 차라리 검은 어둠의 아가리 속이 훨씬 낫다. 백색 헤로인처럼
눈빛은 대뇌 속의 자율신경을 마비시키고 흰개미떼처럼 스물 스물 가슴을 파고들어
자아와 이성을 갉아먹고 대동맥에 구멍을 내고 선혈을 내 뿜게 하여 날 쓰러뜨린다.
`영화의 한 장면`
`눈이 쌓인 뜰, 사료 분쇄기에 시체를 밀어 넣자 으깨어져서
분수처럼 치솟는 핏빛 살점들. 하얀 눈밭을 물들이든 피에 저민 뼈와 살.`
그 살점들이 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 씨팔 !
너무 환 하여 숨을 곳 조차 없어"
이 지독한 고도 설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울이 흰빛이 개미 떼처럼 달려 들어 날 완전히 갉아먹기 전에 재빨리,
독주를 연거푸 들이키고 스스로 스러지는 것이다.

백일몽 2006/02/11

뽕얀 먼지를 뒤집어쓰고 고비사막으로 향해가는 중이었다. 오래된 기억이었으나 풍경이 너무도 생생하였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중 바람언덕이라 이름 지어진 곳에 잠시 머물렀다.
정말 그곳엔 지명 처럼 , 모래 먼지와 거친 바람소리 뿐이었다. 끝없이 펼쳐진 매마른 구릉

들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엔 쓰러질 듯 주막이 하나 있었다. 양치기나 여행자들이 쉬어가는 곳이었다. 바람에 덜컹대는 문을 열고 실내에 들어서면 벽과 천정이 온통 파랑 색으로 칠해져서 신비로웠다. 나는 방안의 푸른 공기속을, 날으는듯 헤엄 치는듯,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초현실적으로 공간이동을 하여 방 한 켠에 놓인 낡은 나무탁자 앞, 낡은 나무의자에 앉아서 낡은 창틀을 바라보았다. 햇볕 속에서 먼지가루가 피어 오르며 반짝였다.

마유주(馬乳酒)를 마시고 있던 때물은 얼굴의 몇몇 부시시한 사람들이 몸은 미동도 않고서 머리만 등뒤로 휘익 돌리더니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이방인인 나를 바라다 보았다. 맑고 순박한 눈동자 속에는 몽골의 푸른 하늘과 가이없는 지평선이 어른거렸다. 깊은 외로움도 묻어났다. 주방에서 주모 `보르마`가 뛰쳐 나와선 친숙하게 날 반겼다. 눈웃음 속엔 색기가 가득하였다. 난 말없이 천천히 주위를 둘러 보았다. 그 순간 내 얼굴이 연속 촬영한 사진 낱장처럼 여러 개로 중첩되며 움직이는 쪽으로 반원을 그리더니 다시 포개어 지며 하나로 변했다. 모든 것들은 옛날 그대로였다. 실내의 푸른빛도 그대로였고 보르마의 교태스런 웃음도 그대로였다. 탁 자위의 뽀얀 먼지도 그대로였고 유리 대신 붙여 놓은 낡은 비닐이 바스락 되는 작은 창도 그대로였고 그 속을 들락거리는 바람도 그대로 였다.

창을 통해 들어온 햇볕이 푸른 벽에 은근슬쩍 사각 모양의 햇살을 물혀둔것도 똑 같았다. 누린내와 시큼한맛의 마유주도 그대로였다. 때물은 양은쟁반에 담긴 빨랫비누 같이 생긴 치즈도 그대로였다. 나에게 잠시 관심을 보이든 사람들은 머리를 몸의 앞 방향으로 병 뚜껑 닫듯 뱅그르 돌리더니 이내 자기들 일에 열중했다. 보르마도 마치 내가 그곳에 없는 듯이 행동하거나 내 몸을 관통해 지나가기도 했다. 그러다 갑자기 모든 움직임들과 소리가 정지되었다.

바람마저 일시적으로 멎은 듯 하였다. 예외로 미세하고 하얀 먼지가루들만 푸른 방안에 가득 떠다녔다. 태풍전야 같은 고요 때문에 불안한 생각이 밀려왔다. 예상대로 억 겹의 우물이 방안으로 침입해 들어왔다. 날 괴롭히기위해 머나먼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감당하기엔 너무 크고 무거웠으나 투명하게 나를 깃눌러 대었기 때문에 아무도 나의 공포와 고통을 눈치채지 못하였다. 어금니를 악물고 빼뚫한 창문의 비닐 틈을 통해, 눈을 찌를듯 쏟아지는 펄약별과, 구름들을 할퀴며 지나가는 포악한 바람의 완고하고 고독한 뒤통수를 바라보았다. 대적할 수도 빠져 나올수도 없으니 판전 피우듯이 참아내어 볼 수 밖에 없는노릇인 것이다. 기어코 눈물 샘에서 눈물이 솟아 오르기 시작했다. 고통이 몸 밖으로 밀려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어깨도 들먹거리지기 시작했다. 눈물이 흘러내려 강을 이루었다. 강물이 불어나는 만큼, 고통이 몸을 빠져 나가는 양 만큼, 내 몸은 조금씩 조금씩 쪼그라 들면서 작아져 갔다. 점처럼 작아지더니 급기야 는 없어져 버리고 어깨 들먹이는소리와 넘쳐 흐르는 고통만이 푸른 방에 메아리처럼 가득차 올랐다. 고통은 쌓이고 쌓여서 물결이 되어 파도처럼 출렁거렸다. 공활한 들판에 어깨 들먹이는 소리와 물결 출렁이는 소리가 울부짖는 바람 소리에 섞여 비통한 음악처럼 번져갔다.

눈을 떠니 꿈이었다. 잠들기 전 비스듬한 자세 그대로 였다. 꿈 마저 우울에 침범 당한 것이다. 무릎 위엔 먹다 남은 새우깡 담긴 그릇. 밖은 이미 어둑어둑 해져 있었다.

섹스와 사랑에 대한 평범한 생각 2006/02/13

섹스는 사랑과 불가분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서로 분리되면 전혀 다른 성격을 띠운다.
섹스는 사랑을 완성시키는 매개체이기도 하면서
쾌락만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기도 한다.
또한, 섹스는 완성된 사랑을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렇다면 육체의 정상적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환경이나 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해
욕정이 억제된 사랑만 나눈다면 그것 만으로도
서로가 충만해 질 수 있을까?

사랑의 형태이긴 하나 보다 깊고 완성된 사랑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
사랑의 과정속에서 일어나는 성애의 감정을
강제로 분리, 억제하려 마음 먹을 때 이미
사랑의 한 부분이 계산된 의지에 의해 훼손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원론적이고 진부한 형태를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갖는다.
사랑의 중요한자인 본능적 욕구를 억제하고 숨겨야 하는
이중성의 스트레스로 인해 결국은 파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만남이 섹스 자체만을 목적으로 할 때는
쾌락적이면서 허무와 망각을 동반하며 중독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섹스의 중독에 빠져들면 한 사람에게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성적 대상을 찾아 방황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사랑이 결여된 섹스의 중독 증상은 자신에게서,
혹은 번민으로부터 달아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일시적이긴 하지만 `망각`의 세계를 제공하여 일종의 도피효과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망각의 순간들을 연속시키기 위해 더욱 깊이 중독에 빠져드는 것이다.
그러나 망각은 탈출인 동시에 덧 입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경우에 따라 예술가 들에게 섹스의 탐닉은
자학과 고통을 동반한 악마적 에너지로 화하여
어둠과 광기에 사로잡힌 예술의 형태로 표출되기도 한다.
그 때문에 많은 예술가들이 섹스의 중독과 탐닉에 불나방처럼
몸을 던지고 빠져들어 몸과 영혼을 쇠잔시키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파지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중독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중독을 통한 결과물의 가치가 사회에 긍정적 성과물로
평가되어 받아들여 질때 오히려 미화되고 환영 받기도 하는것이다
이러한 위선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회에 대한 저항의 몸짓으로

간혹 탈 도덕적 섹스가 자유를 상징하는 무기로 이용되기도 한다
사랑의 감정으로부터 일어나는 욕정과 섹스의 경험은
섹스만을 목적으로 할때와 달리 정신적 희열과
성취감의 충만을 가져다 준다.
물론, 창조와 예술적 에너지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예술적 영감과 술한 창조물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잉태되고
생산되며 그 이유 때문에 예술가들은 열정적 사랑과 성애를 위해
죽음에 이르는 상처와 모험 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격정적 사랑과 성애의 쾌락 또한 중독증상을 띄기도 한다.

사랑과 섹스의 의미는 사람들 마다 제각각 다르다.
섹스만을 목적으로 할때에는 가슴뛰는 만남이나
헤어짐에 동반되는 아픔이 없으나
사랑에 빠져 있을때에는 경우에 따라 이별을 위한
혹독한 고통의 대가를 치루어내야 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대가를 치루더라도
사랑은 인생과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꽃이며
사랑을 동반한 성애의 감정과 섹스는
그 사랑을 더욱 결속 시키고
아름답게 하는 사랑의 열매라는 사실이다.

절망 혹은 희망에 관한 짧은생각 2006/02/15

절망은 희망의 피로 산다.
희망 또한, 절망의 피로 산다.
그 피의 공급 처는 가련한 인간의 정신이다.
깊은 절망감으로 정신이 황폐해 질수록,
희망에 차올라 정신이 충만해 질수록,
공급을 위한 피의 양은 풍부해 진다.
그래서 희망과 절망은 인간의 넋을 부추기고
찢어놓으며 희롱하고 저울질 한다.
희망에 한껏 부풀려 질수록 무의식 속에는
반대항(抗)의 절망에 대한 공포가 자리하게 만들고
절망의 골이 깊어질수록 희망에 대한 집착은 강해지도록 유도한다.
희망과 절망은 서로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업치릭 뒤틀리락 하면서도 등뒤론,
은밀한 거래의 손을 맞잡고 있다. 서로의 공존을 위해서.
절망은 인간을 나락으로 밀어 넣고도 삶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고,
강제한 용기를 불어넣어 희망을 꿈꾸도록, 갈구하도록 중독 시킨다.
희망이 없는 삶을 무의미하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인간이 삶 자체를 포기해 버리면 그 순간
모든 것들이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이다.
간혹 삶을 포기하고 희망과 절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이들도 있긴 하지만
여간 한 용기로 얻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다.
그 뒤에 가해질 신의 보복은 예측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나약한 인간의 삶은
신의 악랄한 저주에 의한
인내와 기다림의 고통이고
지쳐도 포기할 수 없는 용기의 일어섬이다.

인간은... 2006/02/15

인간은 건망증을 편리하게 사용하는 이기적 동물이다.
자신이 한번 당한 일은 기억해도
자신이 남에게 수도 없이 저지른 일은 기억하지 못한다.

이천육년이월십육일 2006/02/16

네시 이십사분 새벽의 안개.
너무 희어서 폐벽에 회칠이 될것같은.....
너무 짙어서 모호한 천국의 입구가튼.....

살다보면 2006/02/17

살다 보면 본인의 실수나 잘못 없이 상처 받고 피해를 보는 일들을
의외로 자주 보고 직접 경험하기도 한다.
상대에게 분명 상처를 입혀 놓고도
본인의 잘못을 아예 느끼지 조차 못한다든지 느낀다 하더라도
하찮은 일로 치부해 버리는 이기심 때문이다.
오히려, “왜 저 난리일까?” 하고 되려 화를 낸다면 참 난감해지는 것이다.
그럴 땐 피해나 상처를 입은 당사자는 느닷없는 봉변에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서로의 사고 방식과 문화가 달라서 정서적 오해로 인한 실수일수도 있으니
그럴 땐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대화를 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으니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원인을 분석해보고
서로의 생각과 처한 입장을 이해하고난뒤 사과와 화해를 하는 것이 좋다.

“이까짓 것도 이해 못해줘!”

“꼭 말로 해야만 사과냐!”

“안 만나면 그만이지 뭐!”

위험 천만의 사고방식, 바른 인생을 사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서와 체질이 서로 달라서 만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사과이고 결별은 다음의 문제인 것이다.

쉽게 결정한 작은 일에 평생을 후회할 일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고 만다.

상대를 잃는 것도 손실이지만 자신의 소중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욱 큰 손실인 것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사과 때문에 자존심이 손상된다면

그 자존심은 쓰레기통 속에 처박는 것이 좋다.

왜냐면 그것은 자존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존심은 못난 자신을 이기심의 늪에서 구해내는 일 말고 또 무엇이겠는가!

사과는 상대방에게 저지른 실수에 대한 용서를 비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에게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는 의미가 더 소중한 것이다.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피해준 것 없으니 본인이 입은 상처 하나로 족하지만

가해자는 이기심과 변명으로 점점 더 자신을 무장시킬 것이고

성찰 없는 삶을 살 것이니 미래는 뻔한노릇인것이다.

난 이런 사람들의 말로를 간혹 보아왔다.

결국은 이기심에 지친 사람들은 결을 떠나가고

올바른 충고해 줄 사람 하나없고 현명한 지혜 나눌 이 하나없는 외로운삶,

자기발전 없고 생기 없는 진부한 삶속에 묻혀서

아무 자극도 고민도 없는 개으른 나날을 살다가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잊혀져 가는것이다.

사람은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아름다워지고 존재가치의 빛을 발한다.

아름답고 빛을 발하는 사람의 주위에는 항상 동격인 사람들이 머문다.

서로를 통해서 깨우치고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그런 소중한 만남의 지탱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것이 있다면 그것은,

먼저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전자오락 1993 2006/02/19

백원짜리 동전 하나로 비행기 세대를 산다.

사격개시,별빛 흩어진 검은 하늘에서 살육전이 시작된다.

파리, 혹은 벌떼들이 수도없이 죽어간다.

"건방지게 곤충들이 반란을 일으키다니"

어린이들의 틈에 섞여 오직 죽이는 일에만 열중한다.

"죽어라! 또 죽어라!"

골목 어귀에는 아이놈들이 전쟁놀이를 한다.

내 아들놈도 한테 섞여서 결사적으로 논다.
 초록색 플라스틱 총으로, 은빛나는 칼로,
 스파이드 맨 가면을 쓴놈은 내 아들놈, 키크가면은 앞집아이.
 "원수여 내 칼을 받으라!"
 "으윽!"
 어른들 처럼 잘도 죽인다.
 해가지면 술집을 기웃거리며 공짜술 얻어먹을 궁리를 한다.
 술 취하면 허 꼬부라진 소리로 애국할 것을 다짐한다.
 분노하지 말것을 다짐한다.
 무엇이든 생각하지 말 것을 다짐한다.
 길거리에 오줌누지 않을것을, 침뱉지않을것을 다짐한다.
 술 구렁내 풍기며 방문을 열면 마누라는 돌아눕는다.
 그림이나 그럴까?
 그림이 뭐 심심풀이 땅콩인가?
 그냥잘까?
 아침에 속은 얼마나 쓰릴까?
 꼭 낮에본 길거리의 그런 얼굴들 처럼
 거울속에서 바보 하나가 웃는다.

*空間지 1993년 8월호에 수록된글, 옮김.
 그땐 참으로 서슬 시퍼런 시절이었다.

자작나무와 전업화가 2006/02/19

금년 늦봄에 마당이 잘 보이는 창문 앞에다 자작 나무 몇그루를 구해다 심었다.
 자연 스럽게 뻗어 올라간 하얀 줄기와 가지에 매달린 연록색 잎들이 실 바람이라도 불라치면 하늘하늘 흔들리며 햇살에 반짝이는 모양새가 어찌나 한가롭고 보기 좋든지, 간혹 시간가는것조차 잊어버리고서 하염없이 바라보곤 한다.
 거기다 마당 가득한 녹색풀밭(비록 온갖 종의 잡풀들이긴 하지만)위에서 뒹구는 강아지들을 보고 있노라면 문득 화가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건지 하는 반문과 함께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작년 11월과 12월 사이 나름으로론 땀흘려 작업한 그림들로 서울의 두곳 화랑과 부산의 한 화랑에서 초대 개인전을 치루고난뒤, 1월 한달은 습기찬 파리 뒹굴목을 어슬렁거리며 와인에 취하여 보내었다.
 돌아와선 지금까지 약 7개월을 산에 오르거나 여행을 하거나 책을 뒤적이거나 비디오 가게를 기웃거리며 소일 하였다..`출, 퇴근` 없이 스스로 자신을 관리해야하는 강박때문에 늘상, 팍팍하게 시간을 통제해온 나로서는 난 생 처음, 편안하고 한가로운 휴식으로만 이렇게 긴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불안한 생각이 드는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그런 한편으론 이렇게 시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내 직업에 대한 고마움에 감사하며 안도한다. 물론 사회의 편견과, 사대주의, 패거리 문화까지 팽배한 미술 판에서 학맥과 연줄없는 나같은 화가의 삶이 불리한 입장임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전업 작가만이 누릴수 있는 온

전한 시간의 넉넉함과 자유로움에 비한다면 현실적인 불리함이야 오히려 긴장의 끈을 더욱
동여매게 하는 자극제가 아닐까?

주변환경에 방해받지 않고 눈치 볼것없이 스스로 정한 자율적인 환경 속에서 자신을 통제
하고 격려하며, 내가 원치않는 한 어느 곳에도 구속이나 예속 되지 않는, 간혹 전날의 과음
으로 조금 늦게 자리에서 일어나도 별탈이 없는 직업.

물론 칠혹같은 고독의 중압감에서 자유로울 순 없지만 그것은 정신적인 자유를 누리는 작
가라면 ,누구나 치뤄내야 할 당연한 댓가가 아니겠는가!

댓가없는 인생이 어디있든가?

그러나 우리가 해내는일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의 일부이며 ,경고이고 예언 이잖은가?

우리의 짧은 인생속에 주어진 고귀한 시간을, 이 가치있는 일을 위해 바칠 수 있는 화가임
은 행운이고 에너지 낭비없이 온전히 작품을 위해서만 전념할 수 있는 `전업` 화가임은
더 큰 행운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나 쏠 살같이 지나 가는가를 일찍부터 알
고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행운에 더 더욱 감사하는 것이다.

*2000년 봄 코리아아트 紙에 실린글 몇자 보완,수정하여 옮김.

밤을 지새우고, 2006/02/27

잘익은 보리수 酒.

짭조름한 조기구이,

김치조금,밥 몇술,

된장찌개 푹고추,

간장 빛깔의 어둠,

-새벽술 예찬-

밤을 지새고 난 새벽, 먼동 터길 기다리며 마시는 술은 짜릿하다.

주종은 독주 일수록 좋고 술의 향이 짙으면 더욱 좋다.

노곤한 육체와 텅빈내장이 합심을 하여 술을 갈망하면

손은 못이기는 채 빈 술잔을 채운다.

술 향기가 목젖 뒤쪽 통로를 통해 후각을 깨우고

사랑니와 마른 혀 바닥을 적시며 불덩이를 삼키듯 화끈한 열기가

목구멍을 타고 텅빈 위속으로 쏘아 내려갈 때의 짜릿한 기분이란,

혈관을 타고 번져가는 알콜기운을 느끼며

짭조름한 안주 한것같 이라도 곁들이면 행복감은 배가된다.

하루 일과의 마감과 시작의 경계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이 술버릇은 이미 오래된 나의 습관 중에 하나이다.

부산 텍사스

2006/02/28

사지 잘린 애비
골방에 두고
양 놓
털복숭이 가슴팍에
눈물 쏟는다
오늘은
얼굴 모르는 오라비
제삿날.

*1984, 현실과 발언, 6,25 주제전 카달록에 실린글 옮김.

오래된 낙서장을 읽고, 2006/03/02

며칠 전 오래된 팜플렛 박스를 정리하다가 낡은 일기장 한 권을 발견하였다.
세월의 덧없음이라니,
일기장 속의 그 시절에서 30년 남짓의 세월을 달려 온 것이다.
곰팡내 나는 낱장을 넘기며 궁핍하고 고독한 젊은 화가의 광기 어린 초상을 보았다.
5년 여에 걸쳐 토약질하듯 갈겨놓은 글들 속엔 자신에 대한 연민과
세상에 대한 저주와 고통의 울부짖음이 넘쳐났다
추위와 굶주림에 떨면서도 오직 화가로서의 자존과 오기만으로 견디었던 시절,
기억의 저편, 어둠 속에서 광기 어린 젊은 날의 모습이 떠 오르자 가슴이 먹먹하여 졌다.
추운 겨울의 긴 밤들을 냉기뿐인 화실 벽에 그려놓은 붉은 색의 난로를 바라보며 지새워야
했든,
광포한 겨울을 맨발로 지나 보내야만 했든 그 시절,
마른 건빵 한 봉지로 하루의 허기를 채워야 했든 궁핍 속에서도
그림에 대한 열망은 더욱 불타올랐든 시절,
그 때를 내가 잊고 있었던 말인가?
정녕 세월은 망각의 높이든가?
아니다!
나에겐 결단코 아니다.
차마, 잊을 수가 없어서 억지로 라도 묻어두려 했든 것이다.
오늘은 아예 작정을 하고 그 시절을 해매 보기 위해 일기장 앞에 정좌를 하였다.
지금은, 크게 넉넉하진 않지만 끼니 걱정하지 않고
맘 먹으면 웬만한 곳은 여행할 수 있고 물감 걱정 없으니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를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유 때문에 자칫, 자만에 빠져서 이기심과 변명으로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나름으로는 부단히 노력해 왔으나

30년 전의 일기장 앞에 앉은 지금의 나는 부끄럽다..

백수 일기 2006/03/03

어제, 오늘은 하릴없는 백수가 되어 빈 둥 되기만 한다.
이제 작품은 쌓여있고 진행 과정에 있든 개인전 주제의 윤곽이 애초 계획한대로
확연히 드러났으니 피로에 찼은몸을 모처럼 이리저리 여유롭게 굴러 보는 것이다.
몇 달 전 개인전 준비를 시작할 즈음엔 부산 시립미술관 사건과 맞물려
정신 집중이 되질 않아 한동안 괴로워한 것을 생각하면 짧은 시일에
기적처럼 작품을 쏟아낸 것이다.물론 마지막 마무리가 남아있긴 하지만 작업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며칠째 꿈도 없는 깊은 잠을 자고 지금은 평온한 마음으로
창문 앞 자작 나무의 검은 실루엣 건너편, 머 얼 리 희미한 능선과 여명을 바라본다.
빛과 어둠이 교차되는 이 시간에 깨어있는 것이 나는 좋다.
이제, 자작나무의 흰빛이 점점 들어나고 방 창문 앞까지 새벽빛이 밀려왔다.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은 마당으로 순식간에 아침이 몰려오고 가로등의 빛은 힘을 잃는다.
늘, 반복 교차하는 익숙한 풍경과 시간, 그런데
이 시간에 깨어있는 감흥이 어제까지 완 사뭇 다르다.
그 이유는 잠자리에 들며 늘 뒤로하든 새벽을,
오늘은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이 맞이하기 때문 일 것이다.
그리고, 건너편 한잔의 술과 안정된 마음일 것이다.

자연의 정해진 이치대로 아침은 열리고 먼산 능선 아랜 안개가 자욱하다.
이제 찬 아침공기로 폐를 씻으며 산책을 하거나 어제처럼 방 안에서 빈둥되거나,
맘 먹은 대로 결정하고 움직일 일만 남아있다.

아지는... 2006/03/06

넓은 마당의 한낮은 쏟아지는 봄볕의 따사로움으로 설렌다.
눈과 삭풍으로 완강히 버티든 겨울은 결국 밀려나고
힘에 겨웁든 우울증도 몸을 빠져나가 달아났다.
이젠 정녕 만물이 소생하는 봄인 것이다.
나도 봄을 맛보느라 마당에 서서 심호흡을 한다.
유리창에 뺨을 대듯 얼굴에 단는 공기는 아직 차가웁지만 신선하다.
어슬렁거리며 새순이 돋는 가지들을 관찰하기도 하고
먼산과 청명한 하늘을 바라보기도 한다.
지쳐 있든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은 일탈의 편안함에 빠져 든다.
이따금씩 불어와 머리카락을 헤집으며 장난을 거는 바람은 부드럽고 달콤하다.
투명한 공기 속으로 흐르는 한낮의 적막감이 내 몸을 감싸 안는다.
문득 외로움이 밀려 왔다.

충만 된 외로움에 걸맞은 생각의 파편들이 몇몇 떠 올랐다.
상념은 나래를 펴고 아련한 기억 속을 달려갔고
마음은 애련 하면서도 행복하였다.
그 기분은, 뭐랄까, 슬픔과 기쁨, 고통과 희열이,
서로 섞인듯한, 좀더 본질적인. 사전적 의미론 번역 불가능한 행복감.
마당을 서성거리며 꽤 오랫동안 외로움과 애련한 감정에 젖어있었다.
햇살이 열어지자 체온이 내려갔고 한기에 콧물을 흘쩍이며 추위를 피해 작업실로 들어갔다.
그리곤 어질러진 물건들과 바닥을 느릿 느릿 정리하였다.
전쟁을 치르듯 씨름해온 몇 달간의 작업때문에 누적된 어질러짐이라
청소와 정리에 시간이 많이 걸릴 듯 하여 서두르지 말고
며칠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해치우리라 생각하니 맘이 편해졌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 마무리는 새로운 시작의 첫 머리이니
청소와 정리가 이미 새로운 시작의 첫발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일손을 놓으며 더욱 개울러지고 싶어졌다.
작업대에 발을 포개어 올려 놓고는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서 음악을 들었다.
어둑어둑해진 작업실 천창으로 붉은빛 저녁햇살이 길게 밀려 들더니 점점 흥미해졌다.
열은 어둠 속에서 첼로의 음률만이 바닥에서부터 차 오르더니
더 넓은 작업실의 천정까지 가득 채웠다..
이미 캄캄해진 어둠속을 하염없이 앉아 있었다.
가슴속에서 찰랑대는 외로움이 쏟아질까 두려워
한참 동안 움직임도 없이 앉아있었다.

난, 2006/03/08

난 아프다.
어제 밤, 잠자리에선 숙웃이 젖고, 겉웃도 젖고, 이불까지 적셨다.
꾸꾸 앓는 소리를 내기까지 하였다.
오늘도 콧속에서 더운 열기가 확확 나오고 뜨거워진 향문에선 설사 똥을 쏟아낸다.
정신이 몽롱하고 온몸을 바늘로 찌르는 듯 하고
식은땀이 흐르는 것이 몸에 병이 단단히 난 모양이다.
몇 달간 하나뿐인 몸뚱어리를 잠도 재워주지 않고 몰아붙이며
술까지 괴롭혀 뒀으니 탈이 나도 단단히 난 것이나 원망할 곳 조차 없다.
개인전 준비를 치르고 난 뒤에는 통과 의례처럼 거의 아파 누웠었다.
이번도 역시 비껴가지를 못한 것이다.
무당이 굿을 하고난뒤 쓰러져 눕듯이 개인전 준비 끝 무렵이면
기진해서 스러지는 것이다.
기억해 보면 앓아 눕기 전에는 며칠 전에 몸이 스스로 경고성 징후를 보내어 온다.
들뜨고 출렁이든 가슴과 머릿속이 태풍전야처럼 차분히 가라앉고
외로움과 쓸쓸함을 동반한 숙연함이 찾아온다.
생각은 사색적으로 변하며 자기 성찰의 자세로 바뀐다.

심장은 불안한 듯이 약간 불규칙하고 여려진다.
몸엔 미열이 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징후의 경고를 감지하고 받아들여서
미리 서둘러 예방하면 피해를 줄일 수도 있으련만
늘상 그러듯 별다른 대비책 없이 멍하니 무방비 상태로 “어서 오십 시요” 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소연 할 곳이 없음은 당연하고 약간 세디스틱한 면까지 잇는 것이다.
옛날 어른들의 “아프면 칠든다”는 말씀! 경험상 그것은 사실이다.
병이란 것은 무의식 속에서는 죽음의 문턱에 서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죽음을 앞둔 환자가 지나온 삶을 정리하고 용서를 비는 자연스러운 수순과는 다른,
혈기 왕성하고 건강하기까지 하여 자칫,
오만 방자해질 수 있는 자신에게 겸손하라고 스스로 가하는 강제성 경고인 것이다.
육체에 고통을 불러와 자만과 아집으로 완강한 정신에게 일침을 가하기 위함인 것이다.
물리적으로 강제한 육체의 아픔을 통해서라도
자학적 성찰에 다가가게 하기 위한 정신과 몸뚱어리의 싸움인 것이다.
그래서 난 앓는다.
정신이 완강할수록 더욱 앓을 것이고 앓음의 고통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자만한 삶의 댕가로 고통과 쓴맛을 볼 것이고
결국엔 정신적인 약간의 성숙까지 맛볼 것이다.

한의원을 다녀오다. 2006/03/12

몸 아픈 건 견딜 만 한데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발바닥의 통증이
마음에 걸리고 까닭 또한 궁금하다.
이참에 차라리 날아다닐까 하고 생각하다가
그전에 일단 발바닥이 아픈 이유라도 알아보자 싶어서
용하다는 한의원을 소개 받고 찾아갔다.
의사는 의외로 젊었다. 찬찬히 진맥을 하더니
기력이 쇠하여 몸을 지탱할 수가 없어서 발바닥이 아프다는 거 였다.
의외의 원인이었다.
애잉? 이 나이에 기력이 쇠 하다니??
의사 선생 왈 `신`과`정`이 허하고 열이 위로 뻗쳐서 조바심이 일고 등등....
설명을 듣고 나니 수궁이 갔다.
몇 달을, 아니 몇 년을 밀어 부치듯이 살아왔으니
한편으론 이만하길 다행이다 싶기도 하였다.
신은 신장이고 정은 정력과 활력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아랫도리까지 부실한,
한마디로 중고의 몸이 돼버린 것이다.
기계부속처럼 다시 새것으로 바꿔 끼워 넣을 수도 없는 일이라 잠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우짜까요?” 하고 물었더니
밤에 잠 안자는 것이 제일 나쁘니 생활방식을 바꿔보고
치료 받으면서 형편이 되면 보약을 몇 첩 드셔 보라고 하였다.

보약이라? 먹어본 일이 없는 생소한 약이라 생각해 보마 하곤
 침을 몇 군데 말고 돌아왔다.
 생소한 약이란 핑계이고 사실은 자존심이 상한 것이다.
 이 나이에 보약이라니!
 보약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또 하나 있었다.
 보약의 효과로 빚어질수 있는 일인데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의문이 있기 때문이었다.
 저녁 무렵 궁금증도 풀어볼겸 하여 친한 한의사에게 전화를 하였다.
 정상과 진맥 결과를 자초지종 전했다니 옹한 의사 같으니 믿고 치료를 받아보라고 하였다.
 덧붙여 평소 가지고 있든 궁금증을 지나가는 말처럼 물어보았다.
 “근데 보약 먹으면 죽을 때 숨이 잘 안 끊어져서 고생한다 카는데……괜찮으니까요??”
 어디선가 들은 이 이야기가 언제부터인가 증명된 사실처럼 머릿속에 박혀있고
 보약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오래전에 실제로
 임종을 힘들게 맞이하는 사람을 본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느닷없고 똥판지 같은 물음에 당황 스러웠는지 대화 도중 잠시 침표를 찍더니
 “우하하 안전생님!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세요” 짧은 대답한마디.
 그리곤 몇 마디 더 나누고 전화를 끊었다.
 그래, 그 말이 맞따! 별 걸다 걱정하고 있다.
 이제 이루어 내야할 일에 겨우 첫발을 디딘 사람이
 죽을 때 숨이 잘 안 끊어질까 조바심하고 있으니 스스로 근심꺼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근데 밤잠 안 자는 것을 고치라고 하니 어떡하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이야 해 봐야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리 길지가 않고
 해야 할 일들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결국 어느 한쪽은 희생될 수 밖에 없는 노릇인 것이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평생을 강박 증에 시달렸고
 몽크도 평생을 죽음의 공포와 신경쇠약에 시달리지 않았는가.
 요 며칠, 앞서간 선배화가들의 삶을 위안 삼으며
 이것이나, 저것이나, 결론도 없는 고민에 빠져
 괜히 갈등하고 있는 것이다.

청춘, 2006/03/14

불 태울때 청춘은 더욱 아름답다.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수 없는것.
 청춘은 소멸을 위해 존재하는것.
 후회는 망설임으로 낭비된 시간을 먹고 산다.
 후회의 아가리에 먹히기전에
 조바심과 두려움을 버리고 청춘일때 불태워라.
 그러면 아름다움은 더욱 빛날 것이다.

門 2006/03/14

천국과 지옥은 하나의 문으로 통한다.

봄 나들이를 하다. 2006/03/21

그저께 오후엔 제법 멀리 나들이를 갔다가 어제 새벽에 돌아왔다
개인전 준비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기분 전환도 하고,
외로운 후배, 위로도 겸해서 충청도 금왕(무극)까지 달려갔다 온 것이다.
가는 도중 차창 밖으로 스치는 산천이 아직 을씨년스럽긴 했으나
쏟아지는 햇살에서 봄의 느낌을 감지할 수 있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반갑게 마중 나온 후배C의 뒤를 따라 걸으며 낮선 거리를 두리번 그렸다.
C의 작업실은 촘촘이 들어선 상가들 사이, 낡은건물 2층에 자리잡고 있었다.
컴컴한 복도, 철계단을 밟고 오르자 위쪽에서 C가 "머리조심해요" 하고 외친다.
불현듯 부산 시절 적산가옥 2층 화실로 오르듯 낡은 나무계단이 떠올랐다.
작업실로 들어서자 오랜만에 보는 연탄난로와 소박하고 잘 정돈된 물건들,
반들거리는 시멘트 바닥이 눈에 들어왔다.
정리할 줄 모르는 내 작업실과는 딴 세상이었다.
책꽂이에 꽂힌 하나같이빋바랜 책들과 비디오 테잎들은
읽고 보기위한 것이라기 보단 오래된 시공간의 연출을 위한 소품들 처럼 느껴졌다.
화가C는, 환경에 예민하고, 마음의 빗장 안, 지나가 버린 시간속에서만 사는듯 했다.
안으로만 침잠할수 밖에없는 C의 마음을 어렴풋이나마 읽을수 있을것도 같았다.
좋아하는 장난감을 손에 쥐어주면 웬종일 방안에서 시간 가는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바깥 세상에대한 두려움과 스스로 선택한 자폐적 의식,
치유될수 없으나 치유해야만 하는 상처나 그늘을 가지고 있는것 같았다.
어린아이 처럼 들떠서 수집해 온 희귀한 인형이랑 장난감들을 일일이 보여주며
설명을 늘어놓을 땐 진귀함에 감탄하고 높은 가격에놀랐다 .
이미 오래전에 수집해논것들 이라지만
가난한 C가 얼마나 인형 수집에 정성을 쏟았는지 알만 하였다.
포장조차 뜯지 않고 모셔 놓은채 십수년이 된 것들도 있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인형하나 하나가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다,
의미부여까지 하며 마치 사람다루듯 하는 C의 행동이었다.
나중엔 C의 생각이 전염된듯 내눈에도 인형이 사람으로 착각될 정도였다.
취미라곤 술먹는것밖에 없는 나로선 어리둥절 하기까지 하였다.
서울서 버스로 내려온 후배P와 합류한 일행들에게
밖으로 나가 거리를 구경하자고 제안 하였다
우리는 느릿느릿 거리를 걸었다.
낮선 길을 걸을 때는 설래이고 즐겁다.
혼자였다면 이곳 저곳을 기웃 그리며 한없이 걸었을 것이다.
조악한 양장점 원도우와 구멍가게, 이발소 간판,오래된 양조장.

양조장 건물은 하도 이빠서 들어가 기웃그리다 사무실을 들여다보며
말을 거니 주인이 환한 얼굴로 오래된 물건들을 자랑한다,
"저기 저 책상은 60년 된 것이라요, 할아버지때부터 쓰든것이라요"
막걸리 몇통을 사들고 나오며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기 시작했다.
주막집에 앉아 생굴과 갯 부쳐낸 굴전을 안주 삼아
들고온 막걸리로 목을 축이며 이야기의 꽃을 피우기 작하였다.
저녁 늦게는 공주에서 강의를 마친 평론가 S선생께서 전화를 걸어왔다.
이곳으로 출발 하겟다고,으잉! 이런 고마운일이.
어렵사리 차를 몇번을 갈아타면서 휘날리는 백발로
작업실에 들어섰을땐 감동의 도가니였다.
이번 나들이의 동행을 위해 며칠전 통화를 할때 다시 서로 연락하기로 하였으나
나로선 S선생의 빡빡한 스케줄 때문에 이곳에서 만나기가
불가능하리란 생각을 하고 잊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못말리는 호기심이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었든것이다.이 늦은 시간에 그 먼거리를....
늘 감탄을 하지만 식을줄 모르는 열정과 호기심.
연탄 난로 위에 프라이팬을 올려놓고 술 안주를 장만하며
작업에 대하여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유익한 시간은 흘러갔고 난 잠시 눈을 붙인 후 2시 반쯤,
일행들을 태우고 밤길을 달려 다시 돌아왔다.
몸의 상태는 병마에서 완전히 풀려난것 같진 않았으나 스트레스는 많이 풀린듯하였다.
떠나기전 우울했던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것 같아서 더욱 다행이었다.
마당에 차를 세워두고 우리는 곧장 작업실로 들어갔다.
그 동안의 작업을 정리하여 쌓아둔 것들을 S선생은 피곤하지도 않은 듯
하나 하나를 꼼꼼히 다 들추어 보았다.
나 또한 그렇게 봐 주기를 속으론 희망하고 잊었기 때문에 작품들을
천천히 하나씩 들춰 보였다.
서로가 체질이 비슷한 야행성이라는 것까지 익히 알 정도로
오랜 세월을 같이 한지라 밖이 밝아오는 것도 모르고
작품 감상에 열중하였다.
작품들을 다 보고난뒤 편안히 앉아 위스키를 나누어 마시며
작업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S선생은 나의 작품 속에서 전반적으로 "비애가 느껴진다"고 했고
"죽음의 냄새가 난다"고도 하였다.
난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나의 작품 속에 숨겨진 내용을 놀라울 정도로 잘 읽어내고
화가로서의 나를 깊게 이해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난, 인간은 운명적으로 비애와 고독을 짊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신과 육체속에 내제된 삶과 죽음의 갈등과 아귀다툼속에서
매순간 마찰 의 불꽃을 일으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의 표출형태가 희망이고 절망이며,애착과 연민이고 저항과 순응인것이다.
또한,작품 속에서 그 느낌이 스며나오기바라며 작업을 한다.

이번에 전시될 작품들도 크다란 주제속에 스며있는 냄새는 마찬가지로이다.
우리는 술잔속에 담긴 위스키에 새벽의 푸른빛과 소중한 정담을 섞어마시며
아침을 맞이하였고 S선생의 열차시간에 맞춰 역으로 향하였다.
이른 시간이라 사람없는 작은 대합실은 환한 불빛과 석유난로의 열기로 따뜻하였다.
개찰구 유리창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든 역무원이 노파심에
"실내에서는 금연입니다"라고 하였다.
S선생의 입엔 아직 불붙이지 않은 담배가 물려 잇엇든 것이다.
시간이 조금 남아 밖으로 나간 우리는 역 광장, 찬 공기속에 서서
또 이야기를 나누었다.
날은 완전히 밝아졌고 6시 10분, S선생을 태운 열차는 떠나갔다.
어제 오후부터 이 순간까지 한시간 남짓 잠든 시간만 제외 한다면
짜투리 없이 완벽하고 알찬 시간을 보낸 것이다.
주고 받은 대화 속에서 소중한 것들을 정리하느라
작업실에 들어서 앉으니 비로소 피로가 밀려들었다.

개인전 준비를 끝내며 2006/03/24

개인전 제목도 정해졌고
조금 전엔 미뤄뒀든 작품들의 마지막 사인도 끝 내었다.
저녁 무렵엔 액자 집에서 올 것이고
사인을 끝낸 작품들을 넘겨주고 나면
이번 전시 준비는 거의 끝 난 것이나 마찬가지로이다.
요사이의 개인전을 궁금해하는 전화들이 부쩍 많이 걸려온다.
그럴 때 마다 더욱 긴장이 된다.
이미 스물두 번의 개인전을 치루어 내었으도
설레는 마음과 긴장감은 변함없이 매 한가지다.

명현현상 때문에 2006/03/27

몸을 추스르기 위한 치료를 위해 양의원에 갈까 한의원에 갈까 고민을 하다가
한의 치료를 선택 했으나 처음엔 가벼운 몸살이겠거니 하고
건강을 과신하여 대수롭잖게 생각하였다.
그런데 의외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질 않아 간사한 것이 인간이라
요즘은 침 맞기와 약 먹기에 부지런 해보려고 무진 애를 쓴다.
과외로 아는 후배에게 찾아가 쑥 뜸까지 부지런히 뜬다.
근데 며칠 전부터 몸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몸의 여기저기에 열을 동반한 붉은 두드러기가 생겨나고
가려워서 웬 종일 긁적대는 것이다.
가장 괴로운 것은 입술과 혀바닥이 붓고 갈라터져서 따가움은 물론이고

음식의 맛을 모르니 그 고통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처음엔 상한 음식을 먹어서 생긴 식중독증상인가? 아니면 알레르기 반응인가? 하고 걱정을 하며 우선 입안 치료를 위해 이비인후과를 찾았더니 과로 때문이라며 약을 처방 해 주었으나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차도가 없었다.

쑥 뜸을 떠 주는 후배에게 고통을 하소연 하였더니 조심스럽게 `명현 현상` 같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뜬금없는 말에, 뭐라? 웬, 명현? 하고 어리둥절 했었다.

왜냐면 내가 듣기엔 생소한 낱말인데다 앞뒤 설명 없이. 불쑥 뱉는 말이었기 때문인데 내가 잘 못알아듣겠다고 말 뜻을 다시 물어보자 부연 설명이 이르렀다.

침과 쑥 뜸의 호전적 효과 반응으로 그 동안 누적되어 있던 몸 속의 독소가 몸 밖으로 배출 되기 위한 현상이며 자신도 그런 적이 있었음을 설명하면서 한동안 상당히 괴로울 거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뜸 뜨기를 중단하면 가려움증은 없어질 거라면서 정 건디기 힘들면 치료를 당분간 중단하라고 하였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 납득이 잘 가질 않아서 고개를 갸우뚱 그렸으나 몸을 긁적이며 며칠을 생각해 보고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방향으로 마음이 바뀌었다.

`명현 현상` 알고 보니 한방에서는 익히 쓰이는 말이었다.나 혼자만 모르고 잊었던것이다.

우리나라 양의학계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서양의 의학계와 자연 치료법에서는 활발하고 체계적인 연구와 증거가 확보된 현상으로 상당히 구체적인 사례들의 정보까지 접할 수가 있었다.

너무 가려워서 미칠 지경이될땐 애잇! 치료를 관 뒤 버려? 하고 스스로 자책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명현 현상`과 맞장떠는 심정으로 끝까지 가보자는 오기까지 생겨나는 것이다.

치료의 긍정적 효과 반응의`명현 현상`임이 확실하다면 수십 년을 마구 잡이로 혹사시켜온 몸을 조금이라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이니 좋은 것이고 아니라 하더라도 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 테니 좋은 경험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오래전, 1996년 6월, 개인전 오프닝 날 아침, 팔베게를하고 누워 전날 디스플레이 해논 그림들을 떠 올리며 스스로 흡족해진 마음에 , 자만과 개으름으로 늘어진 자신이 가증스럽고 배알이 뒤틀려서 즐겁고 유쾌해야 할 전시첫날을 괴롭히기위한 심사로, 하루 두 갑씩 피우든 담배를 그날만 피우지 않기로 결심했던 일이 길어져서 아예 담배를 끊어버리는 계기가 된 것처럼 지금은 치료와 무관하게 또 다시 교만해진 자신에게 고통을 위한 또 다른 방식의 인내심을 스스로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옛말처럼 아픈 다음에 얼마나 정신적 성숙이 찾아올지는 두고 볼 일이나 가볍게 치부했던 병은 치료기간이 길어져서 몸을 괴롭히고 치료효과 또한 몸을 괴롭히니 진태양난의 늪 속에서 못돼 먹은 성격에 돌아나는 오기의 싹만 더욱 굳세어 지는 것이다.

오늘은. . 2006/03/29

이 봄에 흘날리는 눈발이라니.
몰아치는 바람에 체감온도는 한겨울이나 다를 바 없다.
낮게 드리운 잿빛 하늘을 바라보며
우울한 마음으로 병원을 오고 간다.
오늘은 아침부터 이유 없이 기분마저 잿빛이다.
따져보면 원인없는 일들이 어디 잇겠는가.
별써 한 달을 넘게 불편한 몸으로 끙끙 되며
아무일도 못하고 있으니 얼마 전부터
슬그머니 심사가 뒤틀리기 시작한 것인데
꿀꿀한 날씨가 참고 있든 감정을 뒤흔들어 놓은 것이다.
말을 듣지 않는 몸을 어찌해볼 도리가 없듯이
치미는 울화 또한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다.
화가 위로 뺏겼으니 휴식과 안정을 취하라는
의사말이 생각나서
마음을 진정시키려 창을 가득 매운 황사 바람 속으로
초점도 없는 시선을 던진다..
머릿속은 텅빈듯,
몸은 허공을 흐느적거리는 듯,
가슴은 답답하다.
사실은 병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답답하고 우울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어찌 해 볼수 없을 만큼,
시니컬하게 가라앉는 자아의 침묵이
견딜 수 없도록 힘이든 것이다.
회미하게나마 남아있든
어떤 믿음에 대한 실망과 상처가
자아를 침묵의 어둠 속으로 밀쳐넣은것이고
지친 자아는
침묵의 어둠을 헤쳐나올 여력마저
잃어버린 것이다.

별빛과 장좌불사에 대하여. 2006/03/31

차에서 내려 한기에 몸을 움츠리며 무심코 올려다 본 하늘은
온통 별 발이었다.
순간, 졸음은 달아나고 찬란한 별들이 눈 속에 가득 밀려들었다.
시린 새벽하늘의 별빛은 아름다웠다.
의사의 말대로 잠자는 시간을 지키려다 보니

밤을 지새우며 먼 거리를 다녀와 이 꼭두새벽에
마당에 서 있기가 너무 오래만인 것이다.
며칠 전 월산리 김씨와 점심을 먹으면서 부친의 안부를 물었을때
"거동은 조금 힘이 들어도 건강은 연세에 비해서 괜찮으시다"며
조만간 찾아뵈거라고 하였는데 어제 낮 임종 소식을 전해온 것이다.
가까운 친구들에게 비보를 대신 전하고 느즈막에 후배와 함께 대구로 향했다.
차는 어느덧 도심속으로 접어 들어
낮설고 복잡한 길을 물어 물어 병원을 찾았다..
영안실에 들어서자 문상객들이 가득 뿔뿔.
우리 일행도 예를 표하고 김씨와 마주 앉았다.
이들을 한숨도 못자다며 껌벽이는 김씨의 눈동자엔
적막감과 슬픔이 잔잔하게 어른 그렸다.
담담한 얼굴에선 평소 효자였던 김씨의 마음이 헤아려 졌다.
부모를 알려면 자식을 보라고 했듯이
김씨를 통해 가늠해보는 망자의 인품이 머릿속에 떠 올랐다.
"조는 듯 편안하게 앉으신 자세로 돌아가셨다"는 김씨의 이야기는 놀라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의 마음도 평안해 졌다.
불가에서는 장좌불사라 하여 웬만한 득도로는 이를 수 없는 임종자세였다.
만약 내세가 있다면 분명 좋은 곳으로 가셨으리라는 믿음이 일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삶의 절반쯤은 죽음에 걸쳐져있다.
그래서 처음 문상경험의 긴장되고 어색하든 느낌은 사라지고
내집 드나드는것 같지야 않지만 익숙하고 편안해 진다.
영정 앞에서 고인에게 예를 올리기에 익숙해 지고
가족들과 슬픔을 나누기에 익숙해 진다.
그 익숙함 속에서 어렴풋이나마 자신에게 다가올 마지막 순간도 예감한다.
그 과정의 경험을 통해서 언젠가 자신에게 일어날
세상과의 이별에 대한 연습을 자연스럽게 하는것이고
남아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순간순간 깨우치기도 하는 것이다.
장례식장을 나와 밤길을 달려 돌아오는 동안은
피곤을 견디며 운전하는 후배에게 미안한 마음에
졸며 깨며 선잠으로 눈까풀만 붙이고 있는 꼴이었다.
차는 어느덧 작업실 마당에 도착했고
나를 내려놓곤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쏟아질 듯 가득한 별들을 올려다 보며 잠시 서서
지금쯤 고인은 어디쯤 가고 계실까 하고 생각하다가
한기에 몸을 움츠리며 방으로 들어선다.

봄날은 간다 2006/04/06

봄은 왔다

마당 소나무 발엔 파릇파릇 여러 종의 풀들이 돋아나고

샛노란 양지꽃들이 토끼풀과 소나무 아래 쌓인

마른 솔잎을 비집고 얼굴을 내어민다.

산수유 꽃은 만개한지 이미 오래다.

물오른 나뭇가지들은 저마다 잎 싹과 꽃망울을 터트릴 준비를 한다.

며칠째 내린 봄비는 건딜 수 없는 우울 속으로 날 밀쳐 넣었지만

가뭄에 목말랐든 풀과 나무들에겐 생명수처럼

소중하고 반가운 선물이었을 것이다.

봄은 이제 곧,

아찔하도록 화려하고 짙은 향기로

흐드러지게 피고 지며 대지와 인간을 희롱하며 즐기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재빨리 여름에게 자리를 내어줄 것이다.

나는, 잠시 봄의 흥에 취한 대가로 여름 내내

등에 풀 깎는 기계를 짊어진채 땀을 뻘뻘 흘리며

무성하게 웃자란 풀들과의 전쟁을 끊임없이 치러내야 할 것이다.

그리곤 습기에 시달리며 긴긴 장마비를 견뎌야 할 것이다.

그렇게 여름을 보내고 나면 느닷없이 찾아온 가을에게

대지 위의 모든것들은 생기를 빼앗겨 버릴 것이고 대신

가을의 선물인 빛 바랜 얼룩과 건조한 먼지바람만

가득 뒤집어쓴 들판은

혈뺏은 몸으로 겨울맞이를 해야 할 것이다.

다시 찾아온 길고 긴 겨울

지겹도록 쏟아지는 눈과 휘몰아치는 삭풍,

멀리서 아주 천천히 오고 있을 봄.

세월은 그렇게 오고 가는 것이다.

체 쏠리어가지 못한 낡고 녹슨 시간의 부스러기들은

나의 가슴과 몸에 분진처럼 달라붙어

비늘이나 두터운 각질처럼 쌓일테고

그 둔중한 무게에 짓눌린 가슴은

열정으로 출렁이든 예민함과

송곳 같은 오기마저 점점 무디어지고

활기 넘치든 육체는 생기를 잃고 노쇠해져서

결국에는 삶의 끓을 놓아 버릴 것이다.

아니면 그때를 기다리기가 지겨워서 좀더 일찍....

그리곤 흔적조차 없어질 것이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나의 마당에 무성하게 웃자란 풀들과

늪어버린 나무들만이

짧은 봄날같은 한때를 스쳐간
불꽃같이 뜨거웠고 소리 산 매처럼 고독했던 나를
어렴풋이나마 추억 해 줄려는지...
그러거나 말거나 아무일 없는 듯,
세월의 망령은 지치지도 않고 끝없이 가고 오며
대지를 당금 질 할 것이다.
독(毒)같은 모든 인간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대지를 태초의 원형으로 되 돌려 놓을 때까지.

개인전을 앞두고 2006/04/17

4월10일

그럼 운반 차가 8시 30분에 도착 하였다.
약속시간보다 30분이나 빨리 도착을 하는 바람에 내가 바빠졌다.
운반을 도와 주기로 한 학생들과 후배에게 황급히 전화를 해 노곤
하늘을 올려다 보며 걱정을 한다.
쏟아져 내리는 비가 쉽게 그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이다.
“이 일을 어떡하나?”
빗속에서 작품들을 차에 싣기란 이만저만 고역이 아닌 것이다.
조심조심 그림을 실으며 며칠째 잠잠하던 조바심과 걱정이 다시 고개를 든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엔 망쳐버릴 전시가 아닐 것이라는 믿음도 있다.
빗속으로 짐 차를 먼저 떠나 보내고 나도 미술관으로 향한다.
서울로 향하는 젖은 길센엔 개나리며 살구나무며 함박꽃들이 활짝 피었다.
며칠 내린 봄비로 나무들이 활기를 찾은 것이다.
빗속의 창밖풍경을 바라보는 머릿속은 텅 빈듯하였다.
사실은 전시장에서 작품들이 어떻게 보일지 궁금증과 걱정뿐이었으나
겉으론 내색을 하지 않으려 애를 쓰고 있었든 것이다.
한편으론 기대감으로 설레는 마음 또한 없는 것은 아니었다.
차가 서울 시내로 접어들자 비는 그쳤다. 다행이었다.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는 운반 차에서 작품들을 내리고
이방 저 방으로 옮기며 애초 계획한대로 자리를 잡는 동안도
전체 분위기가 맥이 빠진 듯이 보이어서 마음은 영 편칠 않았다.
몇 시간이 흐른 후 못다 신고 온 대형작품 두 점이 운반되어 왔다.
그 작품들이 중요한 공간에 제자리 매김을 하고 나자 전체의 균형이 잡히기 시작 하였다.
비로소 안도의 숨이 쉬어졌다.
걱정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해결되었고 무겁든 마음도 가벼워지기 시작 했다.
내용별로 나누어 이방 저 방에다 작품들을 대충 기대어 세워두고 둘러보니
디스플레이의 세심함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었으나 기간이 일주일이니 시간은 넉넉하였다.
일단은 처음 결정한 대로 그림을 배치하기 시작 하였다.
큐레이트와 제자들이 바빠 움직이며 작품들을 옮겨 다니고

나도 종일을 서서 보내느라 해질녘엔 다리가 후들 그렸다.
내일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 작업실로 가기 위해 복잡한 서울을 빠져 나오는 동안
뱀처럼 길게 늘어 서서 느릿느릿 움직이는 차량행렬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안도의 숨을 내어 쉬었다. 노력한 만큼의 결실이 들어나고 있으니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가졌든 조바심은 이제 날려 보내도 좋은 것이다.

4월 11일

아침 일찍 서둘러 작업실을 나선다.
병원에 들렀다 미술관에 갈려니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병원에선 여기저기 침을 뽑고 누워
하얀 천정에다 작품들 진열 방식을 끝없이 그려보곤 지우기를 반복하였다.
걱정스러운듯 내려다 보는 의사 선생에게
뜬금없이 “언제쯤 다 나올까요?”하고 질문을 한다.
달을 넘기며 술을 먹지 못하고 있으니
술향한 상사병이 하나 더 생길 것 같은 마음 때문이었다.
물끄러미 내려다 보는 의사선생이 “병의 차도가 더딘 것 같지요?” 한다.
“오랜 동안을 마구잡이로 굴러온 몸이니 완치기간도 그만하겠지요”
괜한 질문을 했다는 생각에 의사선생이 해야할 대답을 대신한다.
실없는 질문을 해 가지고 마음만 더 풀이 죽은 것이다.
까짓 술, 좀 참으면 어때!
미술관에선 도우미들과 머릿속에 그려 본대로 천천히 작품들을 배치하기 시작하였다.

4월 15일

디스플레이 6일째,
오늘은 49인의 명상이 걸리는 방을 푸른색으로 칠하기로 한 날이라
서둘러 작업실을 나섰다.
미술관에 도착하자 일을 도와 주기로 한 제자들은 이미 와서 날 기다리고 있었다,
몇 해 전 대학원 수업이 인연이 되어 sos를 날릴 때 마다 바쁜 일 제쳐 두고
싫은 내색 않고 달려와 주는 녀석들이 너무 고마웠다.
손끝들이 야무지고 우러나는 마음으로 도와주는지라 한두 번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을 청해보긴 했으나 오랜 기간을 서로 호흡을 맞춰온 이 녀석들 같지는 않았다.
허기사 만족을 모르는 까탈스런 성격이라 눈에 차는 일손이 몇이나 되겠는가.
팽개치고 도망이나 안 가면 다행이지!
녀석들이 이런 내 마음을 읽었다면 이 구 동성으로 “알긴 아시네요” 하며 깔깔 났을 것이
다.
몇 번의 색 교정 끝에 페인트칠이 끝나자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만류하는데도 바닥에 어질러진 것들을 정리하는 녀석들의 마음 씩씩이가 이쁘고 고마웠다.
피곤할 텐데도 내색조차 않는 녀석들에게 저녁을 먹여 돌려 보내고
작업실로 돌아오는 길은 지난 6일 동안의 작품 진열 과정을 되돌아 보느라
피곤한 줄도 몰랐다. 디스플레이 기간 중 또 하나의 즐거움이 있었다면
지산이와 함께한 시간이다. 어릴 때 손잡고 놀러 다닌 시간을 뻘다면

집밖에서 아들과 같이 보낸 시간 중에 가장 긴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
 아버라는 것이 그림 그리기에만 미쳐서 일찍부터 작업실에서만 살았으니
 서로의 얼굴을 한 달에 한두 번 볼까 밀까를 16년을 되풀이한 것이다.
 툼툼이 혼자서 오기도 하고 친구들을 데려오기도 하며
 일을 도우는 녀석을 뒤에서 바라보는 마음은 특별하였다.
 혈연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이제 곧 자신만의 인생 속으로 걸어갈 것이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점점 귀해질 것이다.
 또 하나 즐거움이 있었다면 선머섬에 같은 황큐레이트와의 만남이다.
 요즘 애들 같지않은, 몸을 사리지 않는 적극성과 열정이다.
 하는짓거리를 찬찬히 관찰해 보니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영리하기도 하거니와 그림을 읽어내는 정확한 눈에다 티 내지 않는 겸손까지,
 자만하지 않고 잘 걸어만 간다면 `물건`이 될만한 재목이었다.
 앎튼 6일간의 디스플레이 기간은 끝났다.
 19일 오프닝을 시작으로 50일간의 대 장정에 들어갈 것이고 술에 절어 살 터이니
 며칠 동안 만이라도 회복되지 않은 몸을 좀더 추슬러야 할 것이다.
 개인전이 끝나면 오랜 기간을 중국에서 머물 터이니
 챙겨가야할 화구와 짐들도 만만찬을뿐만 아니라
 작업실의 안팎을 정리해야 할 일들 또한 한둘이 아니니
 설짬도 없이 일복이 터진 것이다.

얼굴(FACE)에 대하여 2006/04/17

얼굴= 얼(녘)이 드나드는 굴
 얼굴= 얼(녘)의 모양(형태)

..... 2006/04/18

심한 두통으로 잠을 설쳤다.
 잠이든 듯 만 듯 밤새 눈까풀에 일어나는 경련을 느끼며
 불면증에 시달린 것이다.
 견디다 못해 일어나 앉으니 잔뜩 찌푸린 청 회색하늘 아래
 바람마저 잠재워버린 침묵의 아침이 대지를 덮고 있다.
 숨막히는 정적 사이로 이따금 새들의 지저귀만이 스치듯 지나간다.
 불면증이 다시 시작된 것일까? 설마 그럴 리가 있을라고.
 해일 수 조차 없는 불면의 밤들,
 불규칙한 심장 소리를 느끼며
 먼 눈으로 먼동 터기를 바라보는 그 고통을 누가 알랴!
 그 불면증이 다시 시작된다면 난 두렵다.

그러면서도 불면의 밤들을 달게 달게 지새웠지 않은가!
 오랜 경험을 통한 예감엔,
 병원을 오가며 한동안 잠잠했던 불면증이
 분명코, 다시 고개를 쳐든 것이다.
 원인을 생각해 보면 어디다 하소연 할 수조차 없는 내 탓이다.
 불면증과 싸우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의 평정과 함께 잠자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면서부터,
 내 주위를 서성이다 무용지물이 되어 썩어 나가는
 시간의 쓰레기 더미를 한탄하며 늘 못 견뎌 한 것이다.
 생각날 때 마다 “시간을 이렇게 함부로 허비하다간 벌 받을 거야” 하고
 입버릇처럼 구시렁되었으니 방정맞은 입버릇이
 불면증을 다시 불러 오려고 고사라도 지낸 꼴이 되어버린 것이다.
 벌이라도 받는 듯 오늘 아침엔 두통까지 심하니
 이렇게 찢찢매고 있는 것이다.
 며칠째 외면당한 외로운 작업실이
 처녀귀신처럼 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가 편한 꼴을 못 봐주는 분열된 정신이
 무의식 속에서 불면증을 불러 오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이다.

자격(資格) 에 대하여 2006/04/18

자격(資格)의 사전적 의미와 일상적 의미

자격(資格)[명사]

1. 일정한 신분·지위를 가지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
2. (어떤 조직 속에서의) 일정한 지위나 신분.

복잡한 세상을 살다 보면 축하하고 격려할 일도 많지만 꺾은일도 많다.
 타의든 자의든 상대에게 피해나 상처를 줄 수도, 받을 수도 있다.
 그럴 때 마다 방어 용이든 공격용이든 충고용이든 예방 차원이든
 말속에 자주 등장하는 낱말들이 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심심찮게 쓰이는 낱말 중에 하나가 자격(資格)이라는 명사일 것이다.

긍정적으로는 “ 넌 정말 그럴 자격이 있어 축하해!” “ 그 사람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야!”
 등 상대방의 실력이나 노고를 인정하고 추켜 세울 때 주로 쓰인다.
 의미를 곱씹어 보면 어떤 목적이나 대상에 대한
 성심과 노력의 결과에 대한 공적인 찬사이다.
 부정적으로는 의견 대립이나 타자를 꾸짖을 때나 상대를 비하할 때,
 혹은 충고의 의미를 우회적으로 표현할 때 많이 쓰인다.
 이를테면 분수에 맞지 않는 간섭을 하려 하거나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으려 할 때
 끼어들 자리가 아닌데 끼어들려고 할 때

“넌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혹은 “넌 그곳에 끼어들 자격 없어!” “자격도 없는 것이!”

“넌 자격을 더 갖추고 와!”라고 꾸짖거나 일침을 가한다.

부정적으로 쓰이는 말들을 종합해 보면 상대방이 자신의 능력을 과신 하거나 자만할 때,

잘못된 행동을 깨닫지 못하거나 오히려 반대된 언행을 할 때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쓰인다.

분노의 시간은, 2006/04/18

상처뿐인 대지를 어루 만지며 시간은 스쳐간다.

천길 만길 깊은 땅속,분노로 들끓는 불덩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무지 막지한 굴삭기에, 앞산 아름답든 스카이라인은 붉은 황토를 토해내며 무참이 내려앉고 한 여름에도 서늘하든 잣나무 숲은 뽑히고 부러지고 돌에 깔리고 뿌리가 하늘을 향한 채 계곡에 쳐 박힌다. 땅속 깊은곳에서 분노의 불덩이가 끓어 오르거나 말거나 굴삭기는 넘치는 힘을 과시한다. 활켜파고 쭈시고 뒤집으며 망가진 능선 위에 오히려 개선장군처럼 늠름하다. 저러다가 벌받지,저러다가 큰일나지.수천 년의 풍랑을 견디어 왔을 야트막이 아름답든 동산은 인간이 조종하는 한갓 쇠 조각에 짓뭇개지고 그 위로 패작 같은 시멘트 구조물이 솟아오른다.

의기양양한 설계사가 으스스 으스스 이야기한다.자연친화적인 건물이 들어설테니 이동네가 업 그레이드 될 거라고. 씨팔! 무슨놈의 자연 친화가 산을 까뭇개고 숲을 이룬 아름다리 나무들을 뽑아선 패때기치고 너구리 오소리 고라니 산토끼 다니든 오솔길을 탱크가 지나가고도 남을 만큼 넓적허니 밀더니 그 위에다 시멘트를 쳐 붓는단 말인가! 강남 노른자위 땅에서 빌딩전체가 한의원이라는 주인은 안경너머로 번들거리는 눈알과 창백한 낯짝으로 보아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인술을 펼칠 것 같지는 않다. 이싸람들이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정신이 어찌된 걸까? 돈이면 만사 형통인 이들의 쥐불알 만한 녀속엔 뭐가 들었을까?

시간은, 인간의 오만과 이기심으로 신음하는 대지의 거죽을 핏으며 애써 모른 척 지나간다. 너르디 너른 가슴에 분노가 다 차오를 때까지,짐짓 못본 척 인내하며 지나간다. 깊은 땅속 끓어 오르는 심장이 분노로 터져 버릴 때까지, 그래도 상처뿐인 지표엔 꽃들이 피어나고 땅강아지는 먹이를 찾아 조그만 발삼으로 부지런히 굴을 판다. 개미는 땅속 밑에서 버섯을 재배하고 못 애벌레들은 나무 뿌리 사이에 숨어서 영양만점인 파릇파릇 새순이 돌아날 따뜻한 봄을 기다린다. 인간외에 살아있는 모든것들은 인간의 이기심과 마구잡이 광포함을 원망하며 대지의 분노가 더 크지지 않기를,불덩이를 뿜어내지 않기를 기원한다.

난, 감상주의자인가? 2006/04/25

누군가가 “하루 중 어느 때를 제일 좋아하느냐?”고 물어왔다

느닷없는 질문이기도 하거니와 생각해보지 않은 일이라

답이 궁해져서 하루 일과를 잠시 머릿속으로 떠올려 본다.

그리곤

“밤과 새벽이 교차하는 순간, 해질녘 황혼 빛과 어둠의 사이.”

라고 답한다.

섬광보다 더 짧게 스치는, 너무나 짧아서

시각적으로도 도저히 구분해 낼 수 없는

찰나의 틈, 혹은 찰나의 경계.

그 순간을 느낌으로라도 경험해 볼 심사로

수없이 많은 세월을 창 앞에 앉아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내 대답에 상대방은 “아하!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군,

그래서 안선생 그림 속에 음영이 없는 것이군.” 하였다.

덧붙여 번개같은 섬광속에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의 느낌을 이야기 하였다.

나름의 해석이야 어찌 되었든 내 그림을 정확하게 관찰한 것이다.

그림 속에 음영이 없다? 맞는 말이다.

근년에 제작된 그림들 속에는 대부분 의도적으로 음영을 없앴다.

특히 인물화의 경우, 정면에서 후레쉬를 터트린 듯 느껴지게 묘사 하였다.

그 이유는, 음영의 강조로 인한 극적 연출만으로

화면을 드라마틱하게 끌고 가지 않기 위함이고.

시각적 감흥에서, 관자들이 감상에 젖어들게하는 축축함을 없애기 위함이다.

건조하고 냉정하면서도 적나라한, 피약별 속에서의 비애라고나 할까?

말이 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으나

감성과 이성의 명징한 대비가 화면 속에서 공존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음영이 없는 그림 그리기와 세상을 바라보는 눈 또한 무관하지 않다.

화폭 앞에서의 그런 마음가짐을 통해

더문 더문 고개드는 감상적 감성의 나이브함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바꾸어 말하면 화폭과 손끝 사이가

너무 떠거워지지 않게 하기 위함인 동시에

세상(대상과 사물)을 너무 떠겁게 바라보지 않기 위함이기도 하다.

그림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관찰, 분석하고

욕구의 유혹을 통제해야 하며

알량한 손재주와 지나친 감상주의를 경계해야만 한다.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알량한 손재주에서 완전히 벗어날수 없음은 늘 나를 괴롭힌다.

또한, 낙엽 뒹구는 깊고 스산한 가을날은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난, 감상주의자 임이 분명할 것이다.

누군가가 또 질문을 한다.

“안선생님은 어느 계절을 가장 좋아하세요?”

“계절과 계절 사이요!”

“??”

“가을과 겨울 사이요, 근데 왜 물어보세요?”

"통계학적으로 예술가들은 시각적 변화가 강한 계절을 좋아한데요ㅎㅎ"

돌아온 불면증. 2006/05/01

몸이 조금씩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잠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한다.

의 마지막 2006/05/07

이틀에 걸쳐 내린 비는 대기의 먼지를

말끔히 씻어가 버렸다.

싱그러운 바람과 햇살에 연 초록 나뭇잎들이

반짝 반짝 나폴나폴

몸을 흔들며 눈을 간질인다.

방안까지 밀려들어 탁자와 손등에 아롱지는

나무 그림자의 움직임만 바라보아도

싱그러운 봄바람의 장단이 느껴진다.

춤을 추듯, 잔물결이 일 듯

부드럽게 하늘 되는 애기 잎들의 교태에

잠시나마 시름을 잊는다.

마당엔 민들레며, 냉이 꽃이며,애기똥풀이며,

조팝나무며, 붉디붉은 명자 꽃이며,

연분홍빛 꽃 사과 , 보랏빛 라일락,

눈이 부신 복사꽃,

쉽게 시야에 드는 꽃들만으로도

눈은 현기증으로 어질 어질하다.

한 순간에 스쳐 가버릴 덧없는 눈부심이라

더욱 발광하듯 허더러지며 몸부림치는 것이다..

난, 놓칠새라 이 찬란한 봄을 포식한다.

이젠 2006/05/15

봄우리를 오른다.

목젖까지 숨이 차올라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마음속 봉우리
나비 한마리 초차 팔랑일 수 없는,
바람만 잉잉 되는 띄약별 속 민 등 봉우리.
이미 그곳으로 마음 떠나보낸 빈 몸뚱이만
마당에 나 앉아 종일 꽃을 옮겨 심는다.
간혹 나뭇가지 사이로 잎을 흔들며 바람이 스치고
흙 내음 배인 코 끝에선 땀 방울이 툭 하고 떨어진다.
바람이 일듯 걱정도 인다.
나중에 몇 뿌리나 살아있을까?
무심해진 손,
꽃삽끝에 묻어나는 노란피.
이젠 익숙해 지거라
동강난 몸 뒤트는 까짓 지렁이에게
이젠 무심해 지거라
꽃삽을 놓지 말거라
삶을 놓지 말거라
세상은 애벌레처럼 상처 받기 쉬운 것들의 지뢰밭.
세상엔 유리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것들만 모여있나니.
그래도 필요한 곳에 꽃은 있어야 하고
민 등 봉우리 오르다 지쳐 돌아온 내영혼 또한
설곳이 있어야 하느니.
모든것들은 균형을 위해 필요한 것.
어느 하나라도 내쳐서는 않된다.
껴안고 가야할 많은것들,
그 삶에 지치지 않으려거든
간혹은,
나뭇가지 사이로 스치는 바람처럼
무심해 지거라.
봄별에 익은 이마에
맺혔다 떨어지는 땀 방울처럼.

어젠, 2006/05/20

어젠 그림 몇 점이 팔렸다. 즐거운 일이다.
전업 화가는 그림 판 돈으로 먹고 산다. 그래서 개인전을 열 즈음이 되면
화방이며 술집이며 집 생활비며 할 것 없이 적당히 빚이 쌓이고
마이너스통장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한다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진 경우에는 책임감의 스트레스까지 어깨를 걸 터 앓는다.
그래서 전업 화가에게 개인전을 통한 작품 발표는

사회 구성원인 화가로서의 역할을 위한 책무가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거래를 위한 창구의 역할 또한 무시할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팔려나간 몇 점의 그림은 가뭄에 단비처럼
반갑고 즐거운 일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정작 본인 마음은 꼭 즐겁지만은 않다.
그림을 팔 때 마다 이 한계만은 늘 극복하지 못한다.
팔려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땐 무지하고 천한 세상이라 좋은 그림 몰라본다고
툑툑되다가도 정작 누가 사겠다고 나서면 그 그림이 슬슬 아까와 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그림이 포장되어서 나갈 땐
품에서 피붙이를 때내어 주는 듯이 마음이 아프고 우울이 밀려온다.
이 얼마나 이율 배반적인 일인가?
그림 판매를 마치 자식과 생 이별 하듯이
유치한 신과로 끌고 가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순정 때문에
몇 해 전엔 팔려나갔든 그림을 비싼 값에 되 사온 일까지 있었으니 말이다.
전업 화가가 그림을 팔지 않으면 뭐로 먹고 살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나의 불만은
복에 겨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배부른 투정이리라.
그러나 이런 감정의 북받침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은 분명하다.
굶기를 밥 먹듯이 하든 시절, 난생 처음 그림을 팔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속되는 감정이니
어찌 복에 겨운 투정이라고만 단언 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심리상태를 분석해 보면 그 덜떠러진 순정이
만연하는 상업주의를 경계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였고
화가로서의 자존과 자부심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다.
그래도 이번 전시에서는 많이 팔렸으면 좋겠고
늘 그러듯, 한편으론 정 반대의 마음 또한 가지고 있다.

꼭 해야할 일 때문에 생긴 절때로 해서는 안될 일 2006/05/25

음주운전

2006,5,20, 23:58

서울 성북구 종암경찰서에서 운전 면허 취소.

1년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혈중알콜농도:0.191

꼭 해야할 일을 치루고난 후

진정되지 않은 불같은 성격때문에 화를 부름.

변명의 여지없음.

레밍쥐에 대하여 2006/05/30

특정 지역의 레밍쥐 숫자는 3, 4년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레밍쥐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보이는 반응은 매우 특이하다. 개체수가 과밀해 지면 레밍쥐는 하나하나가 이동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점점 모여들면서 줄지어 이동하게 된다.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으면, 그들은 집단적인 공황 상태에서 장애물을 뛰어넘으려는 무모한 시도를 한다. 각 개체가 지닌 이주의 본능은 그들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개울이나 강이 앞을 가로막으면 헤엄을 쳐서 건넌다. 이과정에서 많은 레밍쥐들이 포식자에게 잡아 먹히거나 굶주림과 사고로 죽는다. 때때로 레밍쥐의 이주 행렬은 바다와 맞닥뜨리는데, 그러면 그들은 마치 작은 개울을 건널 때처럼 그대로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을 친다. 그들은 지칠 때까지 헤엄치다가 결국 물에 빠져 죽게 된다. 이와 같은 집단 이주와 대량 익사를 통해 레밍쥐의 숫자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엄청난 숫자의 레밍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와 같은 행동이 어떻게 오랜 세월을 걸쳐 계속 되풀이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과학자들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내지 못했다.

봄의 바람에게 2006/05/30

그랬었구나.
있어도 없는 듯
그냥 잊혀지기엔 너무 외로웠구나.
침묵으로 건넌 호흡 너무 차 올랐구나.
그랬었구나,
자칫, 존재조차 잊혀졌을,
참고 참았던 너의 날숨 내뿜음에
비로소 연 초록의 잎들 흔들리고
부동의 정원, 구석까지 밀려든 활기.
약속이나 한 듯 다투어 피어나는 꽃망울들.
그대 길고 긴조한 숨결 점점 거칠어지면
서둘러 깊어지는 봄
어차피 지고 말 꽃잎,
미리 찢기고 꺾여서 사방 천지에 흩날린다.
정원의 꽃들, 몇 마리의 배추흰나비,
흩날리고 꽤 때가 처진 것 어찌랴 만
되돌려 놓기엔 너무 늦어버린 봄의 폐경.
이미 긴 들숨의 침묵으로 돌아앉은 봄의 바람.

빈센트 반 고흐의 마지막 2006/06/04

1853년 출생 1880년경 ~1890년까지 약 10년간 화가 생활을 함
1890년 7월 27일 보리밭에서 리볼베 권총을 가슴에 발사,

이틀후 29일 "고통이란 살아 있는 그 자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동생이자 후원자인 테오가 지켜보는 가운데 삶을 마감하였다. 끝내 천재를 몰라본 무지한 한 세상에 훗날 가장 귀하게 대접받을 그림들을 남기고 궁핍과 외로움의 고통속에서 눈을 감은 것이다. 그의 나이 향년 37세.

<동생 테오에게 고평가 보낸 마지막 편지.>

"인생의 1890년 7월 24일 테오에게"

편지와 동봉한 50프랑 수표 고맙게 받았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그럴 마음이 사라져버렸다. 그렇게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 사람들이 너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주었으면 좋겠다. 네 가정의 평화문제라면, 잠시 파란이 있어도 잘 해결되리라 믿는다. 내가 알고 있는 얼마 안 되는 프랑스어나마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토론 할 때 이런저런 면의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더 깊이 파고들다 보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게 될 것 같다. 그게 그리 중요한 관심사는 아니지만. 요즘은 온통 그림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 내가 미치도록 사랑하고 존경했던 화가들처럼 잘 그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있으니, 오늘날 화가들이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그런데 화가 공동체를 결성하는 게 유용하다고 화가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는 이미 사라진 것이냐? 하긴, 공동체가 결성되더라도 다른 화가들이 파멸한다면 공동체 역시 파멸하게 될 테지. 너는 그런 경우, 화상들이 인상파 화가들과 운명을 같이할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르지. 그러나 그건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만 가능한 일이다. 결국 개인적인 노력은 별소용이 없는 것 같다. 게다가 이미 여러 가지 일을 겪었는데, 정말 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일까? 고갱이 브르타뉴 지방에서 그린 그림을 보았는데 정말 아름다웠다. 그곳에서 그린 다른 그림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봉한 것은 도비니의 정원을 소재로 그린 작품을 다시 스케치한 것이다. 내가 가장 세심하게 생각해서 그린 작품 중 하나다. 구식으로 이영을 인 지붕과 비온 후의 광대한 밀밭 정경을 그린 30호 크기 그림 두 점도 대략 스케치했다.

<테오는 이 편지의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한다.>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도 머릿속엔 온통 그림생각 뿐인 이 한통의 편지가 새삼 가슴을 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안창홍의 패러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쉐일버스타인 원작)

2006/06/06

옛날에 행복한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나무 곁엔 항상 꽃들과 새들의 노래소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에게 소년이
하나 다가왔습니다.

날마다 소년은
나무에게로 와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한 잎
두 잎
주워
모으고
예쁜
꽃들도
하나
둘
따다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나뭇잎과 꽃을 엮어
왕관을 만들어 쓰고
숲 속의 왕 노릇을 했습니다.

꺾은 나뭇가지로 만든 칼을 허공에 휘젓기도 하였습니다.
소년의 놀이가 꽃과 새들에겐 너무 위험했습니다.
나비들은 너무 놀라 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소년은 나무 등치를 타고 올라가서는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타고

잘 익은 열매도 따먹곤 했습니다.

나뭇잎 속에 등치를
틀었던 황조롱이는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꽃들이 사라진 숲 속엔

배추흰나비와 제비꼬리나비도 하나 둘
사라져 버렸습니다

소년은 행복했지만 나무는 불행했습니다.
왜냐구요?
그 이유는.....

나무는 소년을 위해
때로는
숨바꼭질놀이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소년은 피곤해져서
나무그늘에서
단잠을 자기도 했지요.

나무가 쉴 수 있는 기회는 이때뿐이었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무척 사랑했지만.....

.....나무는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나무는 살갓이 패이고 찢겨져 나가는
고통도 견뎌야 했습니다.
소년이 사랑하는 만큼
나무는 불행했습니다.
(그림: 밀둥치에 칼로 새긴 하트마크와 글씨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소년도 점점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나무는 홀로 있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나무는 옛날이 늘 그리웠습니다.
황조롱이의 노랫소리와 제비꼬리나비가 그리웠습니다.

소년이 돌아오지 않자
황조롱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지 사이에 둥지를 틀고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꽃들이 다시 피어나고
배추 흰 나비와 제비꼬리 나비도 돌아왔습니다.

맛있는 열매는
황조롱이 가족이 먹고 먹어도 남았습니다.
다람쥐와 나뉘 먹기에도 충분했습니다.
먹거리가 풍부해진 숲속은 활기로 넘쳐났습니다.

몸에 난 상처기가 아물어가듯
마음의 상처도 천천히 아물어져 갔습니다.

나무는 황조롱이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오래 전에 잊어버렸던 행복을
이제 다시 찾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나무야 잘 있었니, 나랑 놀고 싶었지?”
소년이 말했습니다.
“.....응”
나무는 불안한 마음에 작은 소리로
마지못해서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하지만 이제 너와 놀기엔 내가 너무 커 버린걸.
그래서 돈이 필요해. 내게 돈을 좀 줄 수 없겠니?
난 물건을 사고 싶고 신나게 놀고 싶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내겐 그런 게 없는데 돈이 뭐야?”
나무가 말했습니다.
“내겐 나뭇잎과 열매밖에 없어. 하지만 열매도 숲속 친구들의 양식인걸”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소년은
나무 위에 올라가
열매를 모두 따서는 가지고 가 버렸습니다.

황조롱이도 작은 창살에
가둬서 가져 가버렸습니다.
애원을 해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무는 슬펐습니다.

소년이 사라진 언덕을 바라보며 나무는
날마다 황조롱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도
황조롱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나무는 외롭고 슬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너무 반가워서 몹시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애야 황조롱이는 어디에 있니?”

소년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무는 다시 물었습니다.

“애야, 황조롱이는 어디에 있니?”

소년이 말했습니다.

“으응 몰라.

내겐 따뜻하게 지낼 집이 필요해.

아내도 있어야겠고, 자식도 있어야겠고.

그래서 집이 필요하단 말이야.

나에게 집 한 채 마련해 줄 수 없겠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집? 그게 먼데?

나에겐 집이 없단다. 황조롱이는 어디 있니?”

나무가 말했습니다.

“나무야 네 가지를 베어다가 집을 지을 거야 미안해.”

소년이 말했습니다.

그리곤 소년은 가지들을 베어서는
집을 지으려고 가지고 가 버렸습니다.

나무는 잘려나간 팔들이 너무나 아프고 쓰라려서
황조롱이 생각마저 잠시 잊을 정도였습니다.

그 후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떠나간 소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몸과 마음의 상처를 낫게 하는데 오랜 세월이 필요 했습니다.
그러다가 소년이 돌아오자
나무는 너무 놀라 거의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야 잘 있었니?”
소년이 말했습니다.
“...아니.. 너.. 무 ..힘...들..었...단..다...”
나무는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난 나이가 들어 잘 들리질 않아”

소년이 말했습니다.

“배가 한 척 있었으면 좋겠어. 멀리 떠나고 싶거든.

내게 배 한 척 마련해 줄 수 없겠어?”

“배? 난 그런 게 없단다. 나에게 남은 건 이 몸통이 전부란다”.

나무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물끄러미 바라보든 소년은 나무의 몸통을 베어 내서

배를 만들어 타고 멀리 떠나 버렸습니다.

나무는 고통과 슬픔에 절망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무야 너도 이제 쓸모 없이 되어버렸구나”

소년이 말했습니다.

“으응”

나무가 말했습니다.

“맞난 열매도 없고.”

소년이 말했습니다.

“으응 그...그렇지.”

나무가 겨우 말했습니다.

“있어도 소용이 없지. 난 이가 아파서 과일을 씹을 수가 없어.”

“가지도 없군... 차라리 잘 된 일이야.

가지에 매달려 그네를 타기에는 난 이제 너무 늙었어.

타고 오를 기운조차 없으니 나무둥치가 없는 게 차라리 맘 편해.”

소년은 지나간 추억을 떠 올리는듯 혼잣말처럼 중얼 거렸습니다.

남김없이 빼앗긴 나무는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잠시 후 나무는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그만 것들이 필요치 않아.

그저 편안히 앉아서 쉴 곳이나 있으면 좋겠어.

난 몹시 피곤하거든.”

소년이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나무는 말했습니다.

“ 앉아서 쉬기에는 나무 밑둥이 그만이야.

나무야 고마워”

소년은 밀둥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아...안돼....예야 이제 날 좀 혼자있게 두면 안되겠니?”

나무는 말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 소년은 듣지 못했습니다.

나무는 오랜 친구들을 볼수 없게된게 슬펐지만

밀둥밖에 없기 때문에 눈물도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는 그래서 더욱 슬펐습니다

친구들은 숨죽여 나무와 소년의 대화를 지켜 보았습니다

“인간은 자기밖에 몰라 너무 이기적이야”

다람쥐가 말했습니다.

“인간은 너무 욕심이 많아

남김없이 다 빼앗아 가놓고도 어떻게 또 저럴 수가 있지?”

말벌이 말했습니다.

“난 너무 화가 나”

‘딱 딱 딱’ 집게 이빨을 부딪히며 병정개미가 말했습니다.

“오래 전 저 소년이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잡아가 버렸대”

황조롱이가 말했습니다.

“인간은 너무 잔인해”

장수 하늘소가 사슴뿔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난 인간이 너무 무서워”

제비꼬리 나비가 말했습니다.

“맞아 너무 무서워”

도롱뇽이도 겁먹은 듯이 까만 눈동자를 껌벅이며 말했습니다.

날마다 찾아와 불행한 나무를 위로해 주었던

친구들은 저마다

그동안 쌓였던 생각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부턴가 사람들이

아름드리 나무들을 하나 둘 잘라내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 시작하더니

마지막 희망이었던 나무마저

소년이 오래 전에 밀둥만 남겨두고 잘라 가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곳 민둥산에 남겨진 것은

그들 한뼘없는 피약별과 굽주림 뿐이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사라진 웃음소리였습니다.
“난 이제 참을 수가 없어. 더이상 보고만있지 않을 거야.”
말벌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곤 몇마디의 충고를 위해 소년에게로 날아갔습니다.

소년이 놀라서 말벌을 내려쳤습니다.

성난 말벌들이 떼로 몰려 날아갔습니다.
땅벌들도 날아갔습니다.

벌들은 뽕족한 침을 사정없이
소년의 얼굴 여기저기 콧났습니다.
소년이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황조롱이들도 엉겁결에 날아갔습니다.
부리와 발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쪼아댔습니다.
실수로 눈동자도 쪼았습니다.
개미들도 바지가랑이 속으로 들어가
살갓 깊숙히 집게 이빨을 박아 넣었습니다.
노린재도 떼로 몰려들어 목덜미에
뽕족한 빨대를 콧났습니다.
겹많은 다람쥐들도 용기가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제비꼬리 나비들도 내키지 않았지만 그냥 있지는 않았습니다.

소년은 땅 위에 쓰러졌습니다.
소년의 비명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나무의 친구들이 더욱 많이 몰려 왔습니다.

“애들아 안돼 그러지마 그만해”
나무가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세월이 흘러갔지만
그때의 일을
그 누구도 입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햇벌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한 순간이나마 인간을 닮아 버렸던 부끄러운 기억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든 것이랍니다..

나무는 이제 행복했던 일들 마저도 기억이 가물거렸습니다.
기력이 다하여

흠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으니까요.....

나에게 2006/06/15

거울을 들여다 보라.
개으름,
핑계,
변명.
공갈빵 처럼 두꺼워지는 거죽과
텅빈 속.
머 언 훗 날,
"나도 한뎀 빛났었찌"
우리들은 그렇게
먼지 혹은 티끌이 된다.

그렇게 하라. 2006/06/22

삶의 난장이 비단길이 아님은 세상사람 다 아는 일.
자칫 들어서면 막다른 길, 자칫 내디디면 벼랑 끝..
하찮고 가벼워 보이는 유혹도 때론,
무겁고 단호하게 밀쳐내거라.
아! 너무나 달콤한,
위장된 유혹, 전략의 길.
뻔히 알면서도 뿌리칠 수 없는 毒의 안락함.
그 유혹을 온전히 피해 가기엔 너무 버거운,
품을 수도 내칠 수도 없는 바늘 같은 통증의 삶.
어차피 인생이 비단길이 아닐 바엔
차라리 毒도 마셔보고
달콤한 유혹에도 못이기는 척 빠져 보거라.
밀쳐 내어도 앓을땐 그렇게 하거라.
벼랑에 굴러 떨어져 만신창이가 되어도 보거라.
다만, 무엇에 빠지든 지독한 향기를 맛볼 때까지,
중단하지 말거라.
아예 끝장을 보거라.
질이겨져서 삶과 뼈가 완전히 뒤섞여 피범벅이 될 때까지,
그 유혹과 퇴폐의 바닥이, 절망의 바닥이 보일 때까지.
나중에 헤쳐 나올 때 상처의 고통이 너무 커서
터져 나오는 비명을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예술의 참 에너지는 습기 찬 어둠과 고통 속에 존재하나니.

규율과 금기의 경계에서 자유로워 질때
예술은 비로소
치열하고 충만한 완결의 세계로 닥아갈 수 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거라. 주저 없이 내어 던져라.
불고 따뜻한 피의 비린내와 질은 향기로 살아있는 모든것들은
허울 좋고 건전한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생아들,
진정한 힘은 버려진 어둠의 파편들 속에 숨어있나니.
벼랑아래. 진흙밭속에. 곰팡네와 상처의 고름과 악취의 뒷골목에.

‘아하 누가 그렇게’ 2006/06/22

몇 해 전 강남 모 중국집서 마주쳤을때
서로 다른 손님들을 앞에 두고 손 잡아볼 틈도 없이
먼 발치로 "어! 멩기형 오래간만."
민기형도 노랫속 목소리로 "어! 안형 오래간만"
한때 정박했던 항구를 떠나가듯
그렇게 서로 자기 일에 묻혀서 세월의 파도에 밀려간다.
노랫말처럼 손잡기는 모두의 염원일 뿐.
서로 멀리서 멀리서 바람에 실려 오는 향기로 살아있음을 확인한다.
무수히 잡아주고 잡혀 주었던 따스한 손의 기억들.
이젠 흐미해지는 손의 기억들.

‘후회’ 2006/07/20

어리석음은, 소중한것들을 값아 먹으며 살찌고
살찐 어리석음은 이미 소용없는 느린후회를 낳는다.

2001년 기자와 주저리주저리..... 2006/07/20

1. 네, 사실 수상 소식을 전화로 전해 듣고 조금은 뜻밖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황 스럽기도 했습니다. 학연과 지연이 실타래처럼 얽혀 또 다른 권력과 정치의
냄새를 풍기는 우리의 미술계를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지요. 그
리고 평소 나의 사고 방식이나 작업 내용들이 제도권 미술에 대한 냉소가 묻어있는 것 또
한 사실이니까요.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전국 규모의 미술상이
부산에서 제정되었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제1회 수상자에 제가 선정되었다는 것이
앞으로의 부일 미술상의 방향을 어느 정도 가늠 할 수 있는 것 같아 수상에 대한 거북한 마
음을 조금은 들 수 있었고, 뒤늦게 기쁜 마음을 가졌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힘겨운 선택에

감사 드립니다.

2. 사실 며칠 전 부산 남산 화랑에서의 개인전이 끝났고 지금은 서울 ‘이목 화랑’에서의 개인전도 끝날 무렵이지만 정말 열심히 하는 작가들에 비하면 그저 부끄러울 뿐이지요.

최기자님께서는 지칠 줄 모르는 정열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화가가 그림 그리는 일 아니면 달리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제에게는 그림이 어릴 때부터 구원이었고 자아와의 소통을 위한 유일한 통로였지요. 그래서 그림 그리기가 저에게는 좀 특별한 의미로 존재한답니다. 힘겨울 때도 있고,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고독감에 괴로워 할 때도 있지만 정신적인 자유와 해방감을 맛 볼 수 있다면 그 정도는 감내해야겠지요.

3. 지난 세기 동안 진보적인 미술은 사회와의 불화 속에서 소외된 채 과정을 맡거나 힘겹게 지탱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예술도 경제력을 잃을 때는 가차없이 제거되고 살아 남기 위해서는 권력과 돈, 종교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이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하고 또한 그것들과 타협할 수 없는 빛나는 정신은 다가올 미래와의 소통을 위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타협하지 않은 저항의 정신이 베어나는 그림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4. 제 그림 속에는 훼손되고 상처받은 인간들 대한 연민과 존재에 대한 애착이 녹아 있습니다. 불구로서의 정신성과 어둠 속에서 꿈틀대는 욕망의 헛바닥이 날름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항 정신이 있습니다.

인간 이후 연작, 가족 사진 연작, 위험한 놀이 연작, 새 연작, 얼굴 연작, 우리도 모델처럼 연작, 여장 남자 연작, 개 연작, 똥 연작, 파리 연작 등 많은 시리즈의 그림들 - 그 속에는 불온하고 불완전한 인간 본질에 대한 늦추지 않는 공격이 항상 가해지고 있습니다.

저의 작품세계를 한마디로 켜서 설명 하기에는 선뜻 떠오르는 낱말이 없습니다.

5. 80년대 초에 그린 인간 이후 연작은 잘못된 역사와 권력으로부터 상처받고 나뒹구는 소통이 단절된 개개인들의 절망을 그린 것입니다. 그림 속의 서로의 단절된 회색 빛 절망을 통하여 그것과 상반된 역설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요즈음의 내 그림 속에는 성적(性的) 표현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본성은 끝없이 성을 갈망하고, 자본과 권력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성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유린당하는 성, 사회적 규율과 도덕에 의해 가려지고 은폐된 본능과 욕망 쾌락의 성, 우주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위한 성그것을 위한 육체와 정신이 합일화된 성.

이 모든 성들은 그 사회와 그 시대의 정신성과 동일 선상에 있으며, 그 현상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발견하고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속에서 낚아 올린 것들을 타자와의 가장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형 방식을 연구하고 숙고 끝에 내용을 화폭에 옮깁니다.

6. 작업실을 양평으로 옮긴 지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술

직히 나는 흘러가는 시간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이 좁은 땅에서 작업실을 어디로 옮기든- 어디에서 작업을 하든 지역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즈음은 다시 작업실을 어디로 옮겨 볼까하고 궁리중에 있습니다. 화가에게 새로운 환경과 자유로움은 참으로 중요한 창조의 조건이 됩니다.

돌이켜 보면 나에게 있어 부산은 내 작품의 정신적 뿌리입니다. 약 22년간의 부산 생활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나의 정신세계도 없을 것입니다. 힘겨운 시절이기도 했지만, 열정과 순수의 소중한 시간들 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점차 안정되어 가는 생활을 버리고 부산을 떠나 서울로 옮긴 지 8개월만에 경기도의 동쪽끝 양평의 11가옥밖에 살지 않는 한적한 시골 마을로 작업실을 다시 옮겼습니다. 이유는 작업시간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좀더 홀로 버려지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듯 합니다. 내가 작업실을 양평으로 옮길 때만해도 이곳에는 화가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300명을 웃도는 화가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화랑과 규모 있는 미술관도 여럿 생겼고 앞으로도 많이 들어설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 요즈음은 죽음에 대한 문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고비 사막 여행 중에 경험한 새로운 느낌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고 평소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있는 큰 덩어리 중의 한 부분을 좀더 확대하여 들여다보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8. 폼 잡지 않는 그림 좀더 막가는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내장 속의 오물 같은 그림 말입니다. 우리들은 그 오물들에게서 빼앗은 자양분으로 겉모습을 지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역설적으로 그 오물들을 통해 우리들 삶의 모습을 조명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진정한 감동의 빛깔과 형태는 알팍한 술수로 가리워지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빛속에 서서 2006/07/22

하루에도 몇번씩 개울에 나가
거친 황톳물 곁을 바라본다.
특별히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뭍인 발에 개울이 원망스러운 것도 아니다.
쓸려 가버린 전신주 때문에 두절된
문명의 이기가 답답해서도 아니다
거친 물살의 넘실거림에
초점 없이 시선을 던지고 있노라면
어느새 자아는 물살에 떠 밀려가 버리고
상실된 존재감과 텅빈 몸뚱이만이
허깨비처럼 서있음이 좋아서이다.
너무 퍼부어대니

우산도 소용없고 장화도 소용이 없다.
평음과 물살을 뒤로하고 돌아설 때쯤 이면
장화 속은 빗물로 차오르고
젖은 팔뚝엔 소름이 돌아있다.

"그래, 모든것은 한때야" 2006/07/22

처연한 꽃밭에 서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여기 저기 나자빠진
꽃대를 바라본다.
“그래, 모든 것은 한때야”
쓰러진 꽃들 위로
나비들이 나폴된다.
이 빗속에 웬.....?
젖은 날개짓이 애처롭다.
비가와도 먹어야 사는 것이니
꿀 빨기에 목숨을 건 것이다.